

제 출 문

한국정보화진흥원 귀하

본 보고서를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용역과제 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공동연구 책임자 : 정부만(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장)
남팔근(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윤리팀장)
이주황((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상무이사)
참여 연구원 : 이성준(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박종범((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책임연구원)
권연정((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선임연구원)

목차

I.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3
2. 조사 연혁	3
3. 조사 내용 및 범위	4
가. 학생 및 성인	4
나. 교사 및 학부모	5
4.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	6
5. 조사 설계	7
6. 응답자 특성	8
가. 학생	8
나. 교사	9
다. 학부모	9
라. 성인	10

II. 주요결과 요약 11

1. 사이버폭력 실태	13
가. 2019년 사이버폭력 경험	13
나. 2019년 가해 및 피해 유형	13
다. 2017년~2019년 사이버폭력 경험률	14
2. 사이버폭력 경험자 특성	15
가.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15
나.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공간(2017년~2019년)	16
다.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및 가해 후 심리	17
3. 사이버폭력 인식 및 예방대책	18
가. 가정 및 학교의 심각성 인지	18
나.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18
다. 대응 교육 우선순위	19
4. 디지털 생활	20
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	20
나. SNS 이용 빈도	20
다.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21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23

1. 사이버폭력 경험	25
가. 경험 현황	25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26

다. 목격 현황	32
2. 사이버폭력 특성	35
가. 가해 행태	35
나. 피해 행태	40
3. 사이버폭력 원인분석	46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46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51
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상관성	54
4. 학생의 디지털 생활	55
가. 학생의 SNS 이용과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	55
나. SNS의 긍정적인 효과	58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61

1. 사이버폭력 경험	63
가. 경험 현황	63
나. 사이버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64
다. 목격 현황	68
2. 사이버폭력 특성	71
가. 가해 행태	71
나. 피해 행태	76
3. 사이버폭력 원인	82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82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87
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상관성	90
4. 성인의 디지털 생활	91
가. 성인의 SNS 이용과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	91
나. SNS의 긍정적인 효과	94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97

1. 지도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태	99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99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01
가. 사이버폭력 인식	101
나. 사이버폭력 대응	104
3. 사이버폭력 예방	107
가.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107

V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113

1.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태	115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115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17
가. 사이버폭력 인식	117
나. 사이버폭력 대응	119
3. 사이버폭력 예방	121
가. 사이버폭력 교육	121

VII. 부록 129

1. 설문지	131
가. 학생용	131
나. 성인용	142
다. 교사용	152
라. 학부모용	157

표 목차

II. 주요결과 요약 11

[표II-1] 학생 사이버폭력 유형별 경험률	14
[표II-2] 성인 사이버폭력 유형별 경험률	14
[표II-3]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별 가해 후 심리(학생)	17
[표II-4]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별 가해 후 심리(성인)	17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23

[표III-1] 사이버폭력 경험률	25
[표III-2] 가해 유형별 경험률	26
[표III-3] 가해 유형별 빈도(전체)	27
[표III-4] 피해 유형별 경험률	30
[표III-5] 피해 유형별 빈도	31
[표III-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32
[표III-7] 목격 후 대응	33
[표III-8] 목격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34
[표III-9] 가해 대상	35
[표III-10] 가해 수단	36
[표III-11] 가해 방식	37
[표III-12] 가해 사실 주변인지	37
[표III-13] 가해 이유	38
[표III-14] 가해 후 심리	39
[표III-15] 가해 주체	40
[표III-16] 피해 수단	41
[표III-17] 피해 방식	42
[표III-18] 피해 사실 주변인지	42
[표III-19] 피해 후 대응	43
[표III-20] 피해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44
[표III-21] 피해 후 심리	45
[표III-22] 사이버폭력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46
[표III-23] 선호 소통방식별 사이버폭력 경험	47
[표III-24] 부모의 인터넷 사용관여도에 따른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	53
[표III-25]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선호 소통방식	55
[표III-26] SNS 이용빈도	56
[표III-27] SNS 이용 목적별	57
[표III-28]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따른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58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61

[표 IV-1] 사이버폭력 경험률	63
[표 IV-2] 가해 유형별 경험률	64

[표 IV-3] 가해 유형별 빈도	65
[표 IV-4] 피해 유형별 경험률	66
[표 IV-5] 피해 유형별 빈도	67
[표 IV-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68
[표 IV-7] 목격 후 대응	69
[표 IV-8] 목격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70
[표 IV-9] 가해 대상	71
[표 IV-10] 가해 수단	72
[표 IV-11] 가해 방식	73
[표 IV-12] 가해 사실 주변 인지	73
[표 IV-13] 가해 이유	74
[표 IV-14] 가해 후 심리	75
[표 IV-15] 가해 주체	76
[표 IV-16] 피해 수단	77
[표 IV-17] 피해 방식	78
[표 IV-18] 피해 사실 주변인지	78
[표 IV-19] 피해 후 대응	79
[표 IV-20] 피해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80
[표 IV-21] 피해 후 심리	81
[표 IV-22] 선호 소통별 사이버폭력 경험	83
[표 IV-23] 선호 소통방식	91
[표 IV-24] SNS 이용빈도	92
[표 IV-25] SNS 이용목적	93
[표 IV-26]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94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97

[표 V-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99
[표 V-2]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100
[표 V-3] 사이버폭력 심각성	101
[표 V-4]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102
[표 V-5]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103
[표 V-6]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여부	104
[표 V-7]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105
[표 V-8]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106
[표 V-9]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107
[표 V-10]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평가	107
[표 V-11] 사이버폭력 교육 내용별 중요도	108
[표 V-12]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109
[표 V-13] 교육 대상 우선순위	110
[표 V-1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111

V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113

[표 VI-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115
[표 VI-2]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116

[표VI-3] 사이버폭력 심각성	117
[표VI-4]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	119
[표VI-5]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120
[표VI-6]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모가 취한 방법	121
[표VI-7]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방내용 및 방법	122
[표VI-8] 교육 이수 여부	123
[표VI-9] 교육 이수 의향	123
[표VI-10] 교육 대상 우선순위	124
[표VI-11] 사이버폭력 관련 희망 교육방법	125
[표VI-12]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별 중요도	126
[표VI-13]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127

그림 목차

II. 주요결과 요약 11

[그림 II-1] 사이버폭력 경험(학생+성인)	13
[그림 II-2] 폭력 유형별 경험률(학생+성인)	13
[그림 II-3] '17년 ~ '19년 사이버폭력 경험(학생+성인)	14
[그림 II-4]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수단	15
[그림 II-5]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수단	15
[그림 II-6]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수단	16
[그림 II-7]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수단	16
[그림 II-8] 사이버폭력 심각성 인지(교사, 학부모)	18
[그림 II-9] 학교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18
[그림 II-10]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대상 우선순위	19
[그림 II-11] 학생과 성인의 선호 소통 방식	20
[그림 II-12] 학생과 성인의 SNS이용 빈도	20
[그림 II-13] 학생과 성인의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21
[그림 II-14] 학생과 성인의 난처한 상황 발생 시 지인을 위한 온라인 활동	21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23

[그림 III-1] 사이버폭력 경험률	25
[그림 III-2] 가해 유형별 경험률	26
[그림 III-3] 가해 유형별 빈도(전체)	27
[그림 III-4] 가해 유형별 빈도(초등학교)	28
[그림 III-5] 가해 유형별 빈도(중학교)	28
[그림 III-6] 가해 유형별 빈도(고등학교)	29
[그림 III-7] 피해 유형별 경험률	30
[그림 III-8] 피해 유형별 빈도	31
[그림 III-9]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32
[그림 III-10] 목격 후 대응방법	33
[그림 III-11] 목격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34
[그림 III-12] 가해 대상	35
[그림 III-13] 가해 수단 및 가해 방식	36
[그림 III-14] 가해 사실 주변인지	37
[그림 III-15] 가해 이유	38
[그림 III-16] 가해 후 심리	39
[그림 III-17] 가해 주체	40
[그림 III-18] 피해 수단 및 피해 방식	41
[그림 III-19] 피해 사실 주변인지	42
[그림 III-20] 피해 후 대응	43
[그림 III-21] 피해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44
[그림 III-22] 피해 후 심리	45
[그림 III-23] 사이버폭력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46

[그림 III-24] 선호 소통방식별 사이버폭력 경험	47
[그림 III-25]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빈도	48
[그림 III-26]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49
[그림 III-27]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50
[그림 III-28] 개인 심리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51
[그림 III-29] 대인관계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51
[그림 III-30]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별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수	52
[그림 III-31] 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률	52
[그림 III-32]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이나 신고처 인지율	53
[그림 III-33] 사이버폭력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율 ..	54
[그림 III-34]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54
[그림 III-35]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선호 소통 방식	55
[그림 III-36] SNS 이용 빈도	56
[그림 III-37] SNS 이용 목적	57
[그림 III-38]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58
[그림 III-39] 온라인과 친구 관계 형성	59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61

[그림 IV-1] 사이버폭력 경험률	63
[그림 IV-2] 가해 유형별 경험률	64
[그림 IV-3] 가해 유형별 빈도	65
[그림 IV-4] 피해 유형별 경험률	66
[그림 IV-5] 피해 유형별 빈도	67
[그림 IV-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68
[그림 IV-7] 목격 후 대응	69
[그림 IV-8] 목격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70
[그림 IV-9] 가해 대상	71
[그림 IV-10] 가해 수단 및 가해 방식	72
[그림 IV-11] 가해 사실 주변 인지	73
[그림 IV-12] 가해 이유	74
[그림 IV-13] 가해 후 심리	75
[그림 IV-14] 가해 주체	76
[그림 IV-15] 피해 수단 및 피해 방식	77
[그림 IV-16] 피해 사실 주변인지	78
[그림 IV-17] 피해 후 대응	79
[그림 IV-18] 피해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80
[그림 IV-19] 피해 후 심리	81
[그림 IV-20] 사이버폭력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82
[그림 IV-21] 사이버폭력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82
[그림 IV-22] 선호 소통방식별 사이버폭력 경험	83
[그림 IV-2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84
[그림 IV-24] 폭력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85
[그림 IV-25] 유해콘텐츠 접촉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86
[그림 IV-26] 개인 심리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87
[그림 IV-27] 대인관계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87

[그림 IV-28]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별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수	88
[그림 IV-29]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88
[그림 IV-30]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이나 신고처 인지율	89
[그림 IV-31] 사이버폭력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율	89
[그림 IV-32]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상관성	90
[그림 IV-33] 선호 소통방식	91
[그림 IV-34] SNS 이용 빈도	92
[그림 IV-35] 인터넷 이용 목적	93
[그림 IV-36]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에 따른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94
[그림 IV-37] 온라인과 친구 관계 형성	95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97

[그림 V-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99
[그림 V-2]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100
[그림 V-3] 사이버폭력 심각성	101
[그림 V-4]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102
[그림 V-5]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103
[그림 V-6]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4
[그림 V-7]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105
[그림 V-8]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106
[그림 V-9]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및 평가	107
[그림 V-10] 사이버폭력 교육 내용별 중요도	108
[그림 V-11]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109
[그림 V-12] 교육 대상 우선순위	110
[그림 V-13]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111

V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113

[그림 VI-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115
[그림 VI-2]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116
[그림 VI-3] 사이버폭력 인지 및 심각성	117
[그림 VI-4]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2017년~2019년)	118
[그림 VI-5]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률	118
[그림 VI-6]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	119
[그림 VI-7]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120
[그림 VI-8]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모가 취한 방법	121
[그림 VI-9]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122
[그림 VI-10] 교육 이수 여부 및 향후 이수 의향	123
[그림 VI-11] 교육 대상 우선순위	124
[그림 VI-12]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선호 방식	125
[그림 VI-13]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별 중요도	126
[그림 VI-1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127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3
2. 조사 연혁	3
3. 조사 내용 및 범위	4
가. 학생 및 성인	4
나. 교사 및 학부모	5
4.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	6
5. 조사 설계	7
6. 응답자 특성	8
가. 학생	8
나. 교사	9
다. 학부모	9
라. 성인	10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일반성인 및 학생 대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 경험 비율을 파악하고,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사이버폭력에 대한 지도교육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향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연혁¹⁾

조사 연도	자료수집 기간	특이사항
2013년	2013.10.3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생 1,500명(교급별 각 500명), 성인 500명, 초중고 교사 250명, 초중고생 학부모 250명 대상 조사 진행 ▪ 학생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총화비례 후 초등학생은 개별 면접조사, 중·고등학생은 온라인 조사 진행 ▪ 성인은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 이용자 수 기반 총화비례 후 온라인 조사 진행 ▪ 교사 및 학부모는 모두 온라인 조사 진행 ▪ 사이버폭력 유형은 언어,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유출, 떠돌림 등 6개 유형으로 조사 진행
2014년	2014.11.10.~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생 3,000명(교급별 각 1,000명), 성인 1,500명으로 표본 규모 확대 ▪ 학생 및 교사는 우편조사로 변경 ▪ 학생 및 교사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총화비례 후 학교목록에서 Kn번째 학교를 계통 추출하여, 선택된 학교의 1개 학급 전원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2015년	2015.10.22.~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교사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총화비례 후 학교목록에서 Kn번째 학교를 계통 추출하여, 선택된 학교의 1개 학급 전원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 학부모는 응답 학생의 학부모와 매칭하여 조사 실시 및 우편조사로 조사방식 변경
2017년	2017. 9.25.~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계자료 기반 교급/지역/학년별로 총화계통 추출하여 학생 대상 자료수집 ▪ 학부모의 경우 조사 대상 학생의 학부모(부모 중 1명) 대상으로 자료수집 ▪ 기존 6개 사이버폭력 유형에 '갈취' 유형 신규 포함
2018년	2018.10. 2.~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지역 모집단 추출 방식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 ▪ 기존 7개 사이버폭력 유형에 '강요' 유형 신규 포함 ▪ 온라인 정보 판별 관련 조사 진행
2019년	2019. 10.1.~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지역 모집단 추출 방식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 ▪ 인터넷이용 행태와 사이버폭력의 연관성 조사 진행

1) 2016년은 사이버폭력 유형화 연구로 진행

I. 조사개요

3. 조사 내용 및 범위

가. 학생 및 일반성인

구분	내용
인터넷 이용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목적별 인터넷 이용시간 (학습, 미디어, 게임, 뉴스 등)▪ 서비스별 인터넷 이용시간 (채팅/메신저, 커뮤니티, SNS 등)▪ SNS 이용 빈도 및 목적▪ 온라인(인터넷)과 친구 관계 형성▪ 소셜미디어 영향▪ 사이버폭력 유형별 문제의식 수준▪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 및 접촉 경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 경험 및 빈도▪ 가해 대상 및 방식▪ 가해 사실 주변 인지▪ 가해 수단 및 이유▪ 가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경험 및 빈도▪ 가해 주체 및 피해 방식▪ 피해 사실 주변 인지▪ 피해 수단 및 피해 후 대응▪ 피해 후 미대응 이유▪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격 경험▪ 목격 후 대응 방법 및 미대응 이유
사회/심리 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존중감/공감능력/공격성/충동성▪ 부모·자녀간/가족구성원간 상호 작용▪ 교우관계/주변관계 신뢰도▪ 친구 환경▪ (학생)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 학교의 사이버폭력 통제력▪ (일반 성인)소속 조직내 사이버폭력 관련 발생 유무▪ 사이버폭력 대응 환경 인지 여부

나. 교사 및 학부모

구분	내용
자녀/학생의 인터넷 이용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수준 ■ 자녀/학생과의 온라인 상호 관계 유형 ■ 인터넷 이용 시간 인지 수준(학부모)
학생/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p>(교사, 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폭력 심각성 동의 정도 ■ 학생/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대응 방식 ■ 그 외 학생 문제 심각도(학교폭력/언어폭력/심리적 문제 등) <p>(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및 소속 학교내 사이버폭력 심각성 동의 정도 ■ 사이버폭력 관련 대화 여부 ■ 소속 학교의 사이버폭력 발생여부 <p>(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폭력 인지 및 심각성 동의 정도 ■ 청소년 비행 인식 ■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유형/피해시 대응/가해시 조치
예방 활동	<p>(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폭력 정책 운영 여부 및 형태/효과성/필요성 ■ 사이버폭력 가·피해 대응 유형 ■ 온라인 문제 행동에 대한 심각성 동의 정도/대응 활동 여부 ■ 사이버폭력 교육 대상자/교육 유무/효과성/수강 희망 여부/내용 ■ 사이버폭력 대응 주체 <p>(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내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유형 ■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효과성 ■ 사이버폭력 교육 유무/효과성/수강 희망 여부/우선 교육 대상자 ■ 사이버폭력 교육 유형/내용 ■ 사이버폭력 대응 주체

I. 조사개요

4.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²⁾

-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 본 조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강요’ 등 아래 8가지 유형으로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분류하였음

연번	사이버폭력 유형	정의
1	사이버 언어폭력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누구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혼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7	사이버 갈취 ³⁾	인터넷에서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
8	사이버 강요 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2) 2016년도 사이버폭력 유형화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나온 유형을 활용

3) 2017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이버폭력 유형임

4) 2018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이버폭력 유형임

5. 조사 설계

- 정량조사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지도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정성조사를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형별 사례 등 심층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각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조사 규모는 아래와 같음

구분	정량조사				정성조사
	우편조사 ⁵⁾		온라인 조사 ⁶⁾		
조사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응답 대상자	초(고학년)· 중·고등학생	조사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	조사 대상 학생의 학부모 (부모 중 1명)	20~50대 성인 남녀	(학생) 중·고등학생 (교사) 초·중·고 담임교사 (학부모) 초·중·고 자녀의 학부모 (성인) 20~40대 직장인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서울
조사 규모	4,779명	324명	2,422명	1,500명	대상별 2개 그룹씩, 총 8개 그룹 ⁷⁾
표본추출방법	총화계통 추출	학생 표집 으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 대상으로 표집 ⁸⁾	설문 참여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표집	인구비례 할당	임의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1.42%p	±5.44%p	±1.99%p	±2.53%p	-
조사 기간	2019. 10. 1 ~ 11. 23.				2019. 11. 7 ~ 11. 15.

5) 우편조사 자료수집 절차: 학교 리스트 추출 → 조사 대상 학교 선정 및 사전 전화 안내 → 선정 학교 대상 공문, 설문 및 설문 안내서 발송 → 설문 수거 및 집계 → 최종 자료 검증

6) 온라인조사 자료수집 절차: 온라인 설문 제작 → 온라인 설문 로직 점검 및 최종 확정 → 패널 대상 온라인 설문 발송 → 최종 자료 검증

7) 그룹당 4명씩 8그룹, 총 32명 집단 인터뷰 진행

8) 1개 학교당 최대 2명의 교사 대상으로 표집(담임교사, 부장교사 혹은 학교폭력 지도 교사 등)

I. 조사개요

6. 응답자 특성

가. 학생

분류		사례수 (명)	비중 (%)
교급	초등학교	1,577	33.0
	중학교	1,560	32.6
	고등학교	1,642	34.4
교급별 소계		4,779	100.0
성별	남학생	2,589	54.2
	여학생	2,190	45.8
성별 소계		4,779	100.0
성별 by 교급	(남) 초등	789	16.5
	(여) 초등	788	16.5
	(남) 중등	731	15.3
	(여) 중등	829	17.3
	(남) 고등	1,069	22.4
	(여) 고등	573	12.0
	성별 by 교급별 소계	4,779	100.0
지역	서울	489	10.2
	부산	258	5.4
	대구	225	4.7
	인천	225	4.7
	광주	225	4.7
	대전	225	4.7
	울산	225	4.7
	세종	225	4.7
	경기	800	16.7
	강원	225	4.7
	충북	225	4.7
	충남	225	4.7
	전북	225	4.7
	전남	225	4.7
	경북	225	4.7
	경남	307	6.4
	제주	225	4.7
지역별 소계		4,779	100.0

나. 교사

분류		사례수 (명)	비중 (%)
교급	초등학교	109	33.6
	중학교	108	33.3
	고등학교	107	33.0
교급별 소계		324	100.0
성별	남성	183	56.5
	여성	141	43.5
성별 소계		324	100.0
연령대	20대	40	12.3
	30대	131	40.4
	40대	104	32.1
	50대 이상	49	15.1
연령대별 소계		324	100.0

다. 학부모

분류		사례수 (명)	비중 (%)
자녀 교급	초등학교	872	36.0
	중학교	871	36.0
	고등학교	679	28.0
자녀 교급별 소계		2,422	100.0
성별	남성	468	19.3
	여성	1,954	80.7
성별 소계		2,422	100.0
연령대	20대	7	0.3
	30대	208	8.6
	40대	1,856	76.6
	50대	351	14.5
연령대별 소계		2,422	100.0

I. 조사개요

라. 성인

분류		사례수 (명)	비중 (%)
성별	남성	769	51.3
	여성	731	48.7
성별 소계		1,500	100.0
연령대	20대	326	21.7
	30대	347	23.1
	40대	410	27.3
	50대	417	27.8
연령대별 소계		1,500	100.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28	28.5
	200~400만원 미만	680	45.3
	400~600만원 미만	242	16.1
	600~800만원 미만	89	5.9
	800만원 이상	61	4.1
가구 소득별 소계		1,500	100.0
지역	서울	294	19.6
	부산	97	6.5
	대구	71	4.7
	인천	88	5.9
	광주	44	2.9
	대전	44	2.9
	울산	35	2.3
	세종	9	.6
	경기	392	26.1
	강원	41	2.7
	충북	44	2.9
	충남	58	3.9
	전북	50	3.3
	전남	47	3.1
지역별 소계		1,500	100.0

II. 주요결과 요약

1. 사이버폭력 실태	13
가. 2019년 사이버폭력 경험	13
나. 2019년 가해 및 피해 유형	13
다. 2017년~2019년 사이버폭력 경험률	14
2. 사이버폭력 경험자 특성	15
가.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15
나.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공간(2017~2019년)	16
다.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및 가해 후 심리	17
3. 사이버폭력 인식 및 예방대책	18
가. 가정 및 학교의 심각성 인지	18
나.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18
다. 대응 교육 우선순위	19
4. 디지털 생활	20
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	20
나. SNS 이용빈도	20
다.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21

1. 사이버폭력 실태

가. 2019년 사이버폭력 경험⁹⁾

- 2019년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 또는 피해)은 33.5% 수준임
-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9%, 성인은 54.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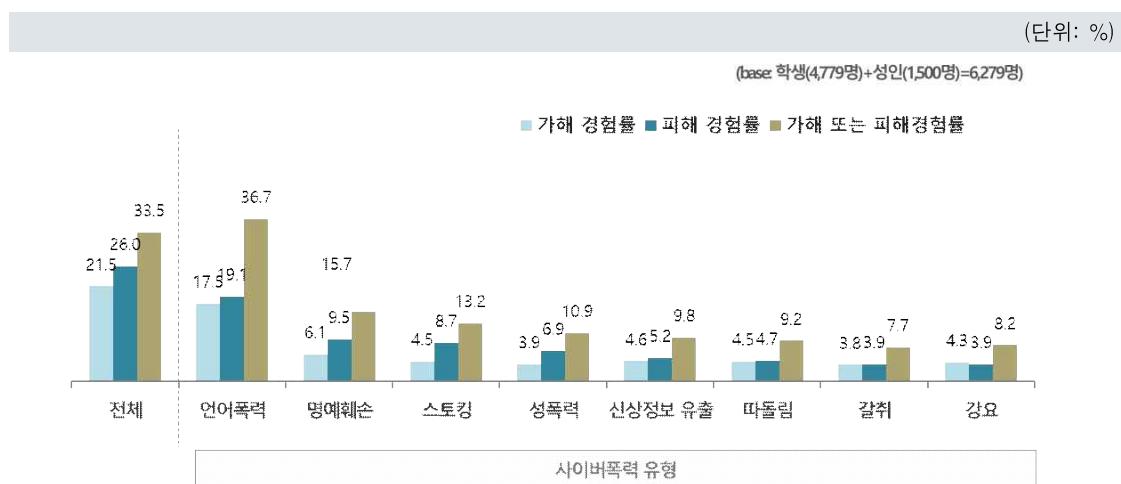
[그림 II-1] 사이버폭력 경험(학생+성인)



나. 2019년 가해 및 피해 유형

- 2019년 전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21.5%, 피해 경험률은 26.0%임
- 유형별로는 가해와 피해 경험률 모두 ‘언어폭력’이 가장 높음

[그림 II-2] 폭력 유형별 경험률(학생+성인)



9) 총 8가지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에 대한 경험률

II. 주요결과 요약

- 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가해 경험률 16.8%, 피해 경험률 16.9%)과 ‘명예훼손(가해 경험률 3.6%, 피해 경험률 6.2%)’을 제외한 폭력 유형별 가해 경험률과 피해 경험률은 4% 미만임

[표II-1] 학생 사이버폭력 유형별 경험률

구분		전체	사이버폭력 유형								(전체, n=4,779, 단위: %)
학 생	언어 폭력		명예 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가해 또는 피해 경험률	26.9	24.6	8.3	4.1	2.9	3.3	3.0	1.5	1.9	
	가해 경험률	18.0	16.8	3.6	1.5	1.0	1.9	1.8	1.0	1.0	
	피해 경험률	19.0	16.9	6.2	3.1	2.2	2.1	1.7	1.0	1.1	

- 성인의 경우 사이버폭력의 모든 유형에서 가해 경험률과 피해 경험률이 12%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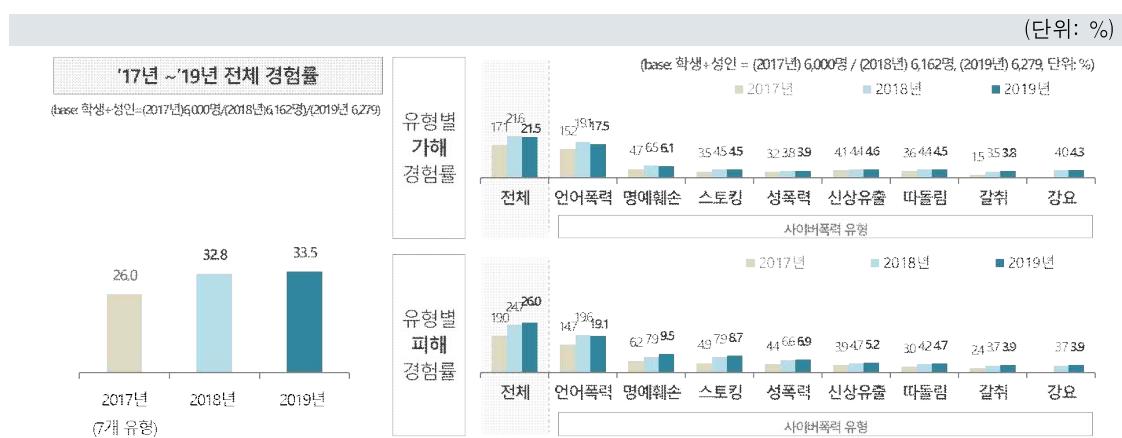
[표II-2] 성인 사이버폭력 유형별 경험률

구분		전체	사이버폭력 유형								(전체, n=1,500, 단위: %)
성 인	언어 폭력		명예 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가해 또는 피해 경험률	54.7	32.5	24.0	29.7	24.9	18.3	17.7	16.4	17.6	
	가해 경험률	32.5	19.9	14.1	13.9	13.1	13.3	13.2	12.7	14.5	
	피해 경험률	48.5	26.3	20.2	26.3	22.0	15.3	14.1	13.4	12.9	

다. 2017년~2019년 사이버폭력 경험률¹⁰⁾

- 전년 대비 전체 응답자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0.7%p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가해 경험률은 0.1%p 감소하고 피해 경험률은 1.3%p 증가함

[그림 II-3] '17년 ~ '19년 사이버폭력 경험(학생+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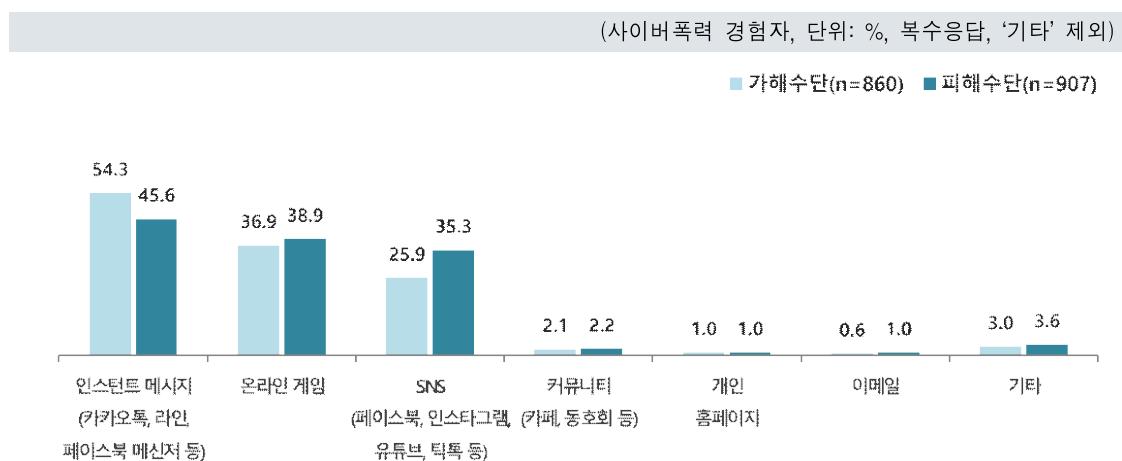
10) 2017년 사이버폭력 유형은 총 7개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이였으며, 2018년 이후 ‘강요’가 추가되어 총 8개 유형으로 측정

2. 사이버폭력 경험자 특성

가. 사이버폭력 발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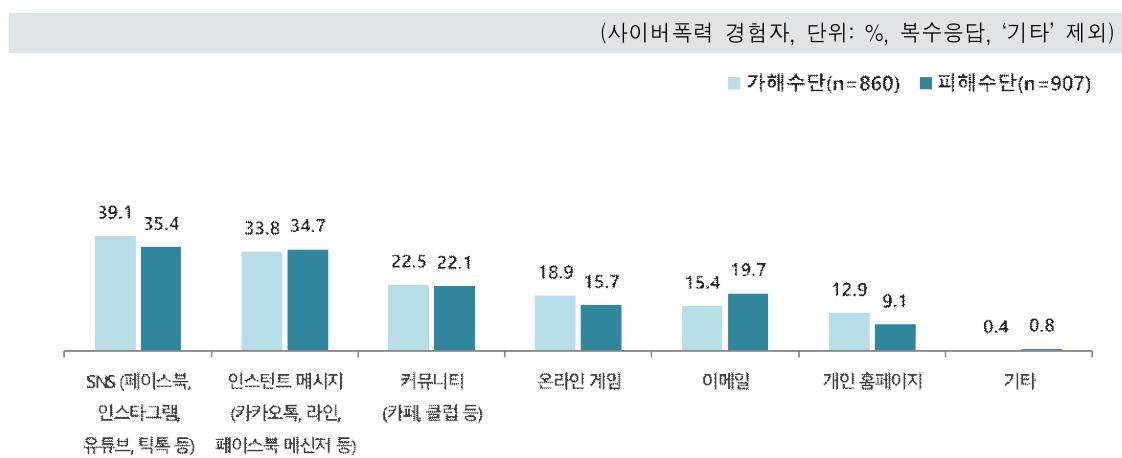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인스턴트 메시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온라인 게임’, ‘SNS’, ‘커뮤니티’ 순임

[그림 II-4]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수단



-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SNS’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스턴트 메시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이메일’, ‘개인홈페이지¹¹⁾’ 순임

[그림 II-5]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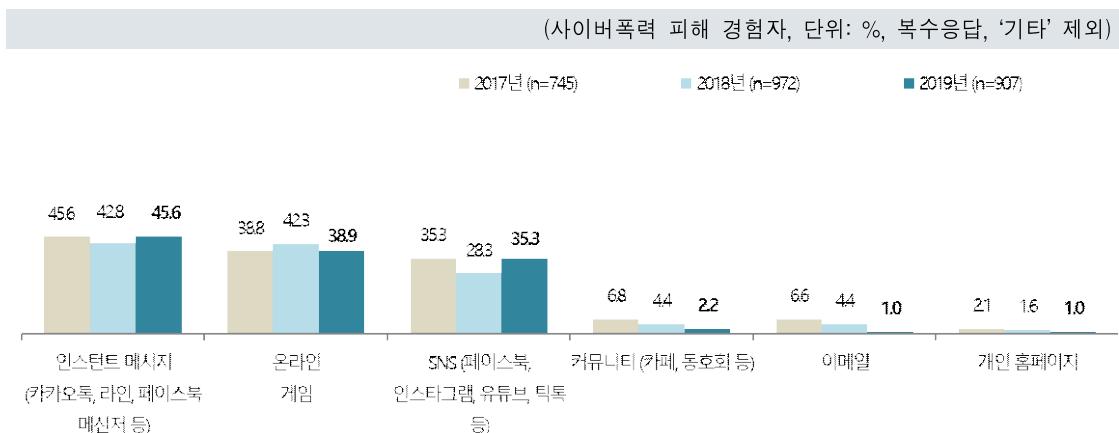
11) 개인 블로그 등

II. 주요결과 요약

나.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공간(2017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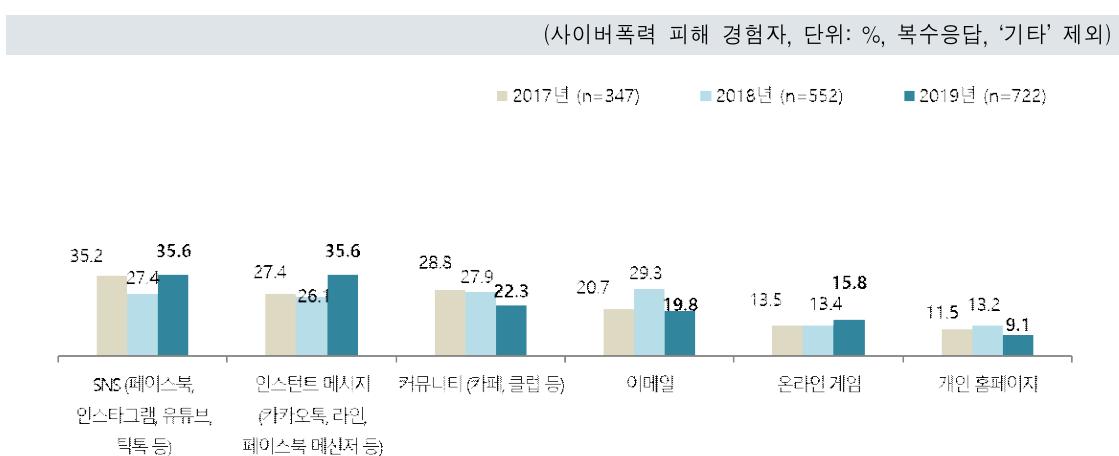
- 학생은 주로 ‘인스턴트 메시지’, ‘온라인 게임’, ‘SNS’ 공간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스턴트 메시지’와 ‘SNS’는 전년 대비 각각 2.8%p, 7.0%p 증가함

[그림 II-6]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수단



- 성인의 경우 주로 ‘SNS’(35.6%)와 ‘인스턴트 메시지’(35.6%)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SNS’, ‘인스턴트 메시지’는 전년 대비 각각 8.2%p, 9.5%p 증가함

[그림 II-7]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수단



다.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및 가해 후 심리

-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가해 행동을 한 학생들은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 행동을 학생들은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가해 행동을 한 학생들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음

[표표-3]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별 가해 후 심리(학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복수응답)

구분	가해 이유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내 의견과 달리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사례수)	(181)	(62)	(387)	(339)	(118)	(87)	
가 해 후 심 리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함	22.7	27.4	48.6	44.0	50.8	25.3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음	54.7	66.1	46.5	48.7	44.1	50.6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됐음	44.2	71.0	49.1	50.1	38.1	40.2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34.8	32.3	10.9	10.6	16.1	25.3
	아무 느낌 없었음	38.1	30.6	34.6	31.9	33.9	49.4

-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가해 행동을 한 경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 행동을 한 집단에서는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표-4]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별 가해 후 심리(성인)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복수응답)

구분	가해 이유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내 의견과 달리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사례수)	(94)	(100)	(133)	(140)	(169)	(45)	
가 해 후 심 리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함	43.6	50.0	45.9	43.6	45.0	26.7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음	57.4	57.0	60.9	57.1	53.3	71.1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됐음	63.8	61.0	60.2	58.6	52.1	60.0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53.2	40.0	23.3	30.7	22.5	26.7
	아무 느낌 없었음	46.8	54.0	30.1	36.4	32.5	40.0

II. 주요결과 요약

3. 사이버폭력 인식 및 예방대책

가. 가정 및 학교의 심각성 인지

- 교사 중 38.0%(매우 심각 3.4% + 심각 34.6%)는 재직 학교의 사이버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우 98.7%(매우 심각 57.5% + 심각 41.2%)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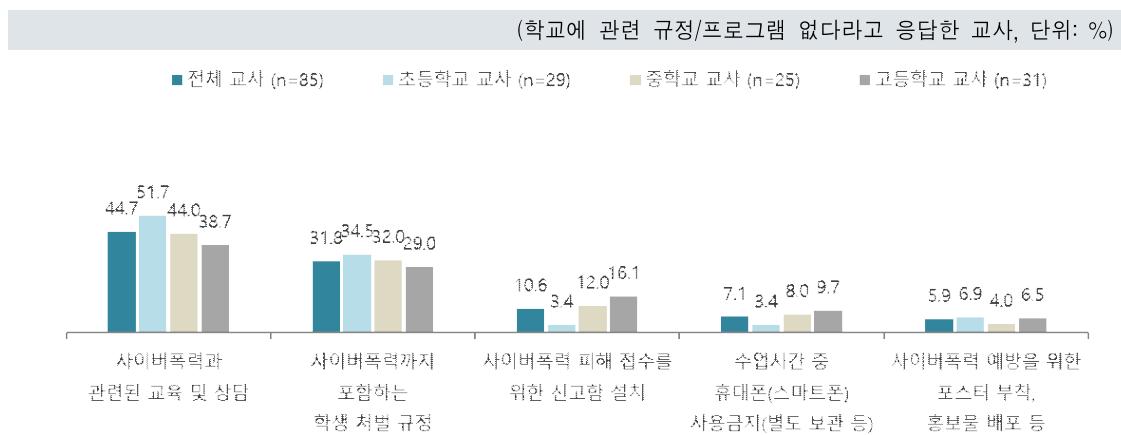
[그림 II-8] 사이버폭력 심각성 인지(교사, 학부모)



나.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 학교에 필요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은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및 상담'(44.7%)과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31.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초중고 교사 모두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과 '처벌 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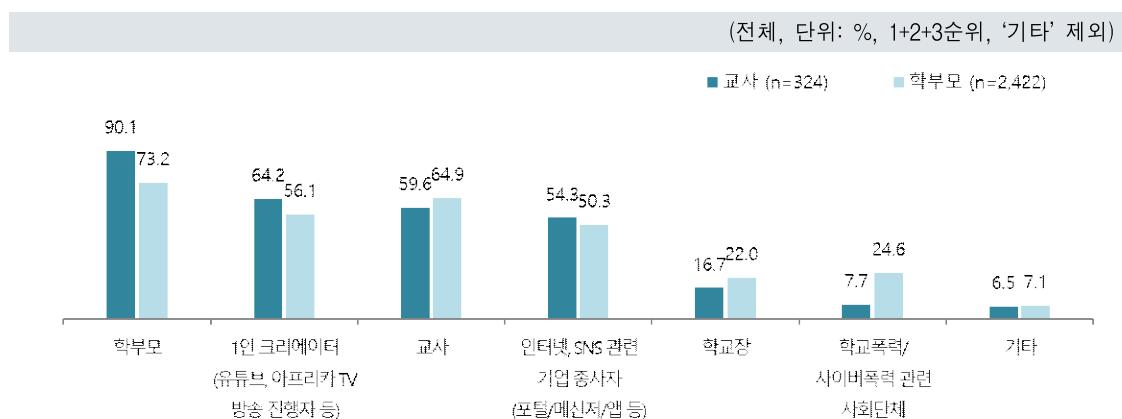
[그림 II-9] 학교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다. 대응 교육 우선순위

- 교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학부모’(90.1%)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인 크리에이터’, ‘교사’, ‘인터넷, SNS 관련 기업 종사자’ 등의 순임
- 학부모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학부모’(73.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사’, ‘1인 크리에이터’, ‘인터넷, SNS 관련 기업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0]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대상 우선순위



II. 주요결과 요약

4. 디지털 생활

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

- 학생들이 친구들과 이야기(소통)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직접 만나서’(41.7%)가 가장 많고,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37.0), ‘전화’(16.5%) 등의 순임
- 성인은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49.4%)가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였으며, ‘전화’(19.7%), ‘직접 만나서’(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1] 학생과 성인의 선호 소통 방식



나. SNS 이용 빈도

- 학생들 중 SNS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은 59.7%이며, 1주일에 5일을 이용하는 비율은 20.4%임
- 성인은 15.4%가 SNS를 이용하지 않으며, 1주일에 5일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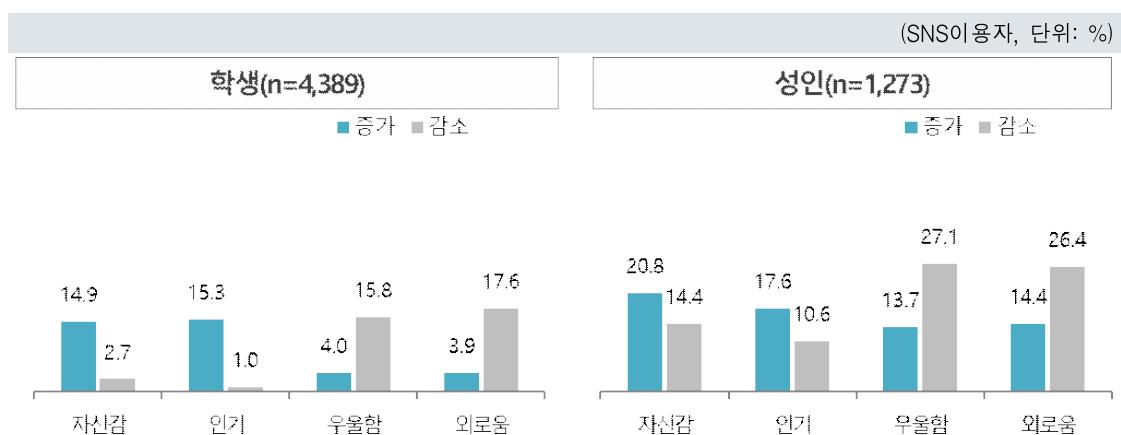
[그림 II-12] 학생과 성인의 SNS이용 빈도



다.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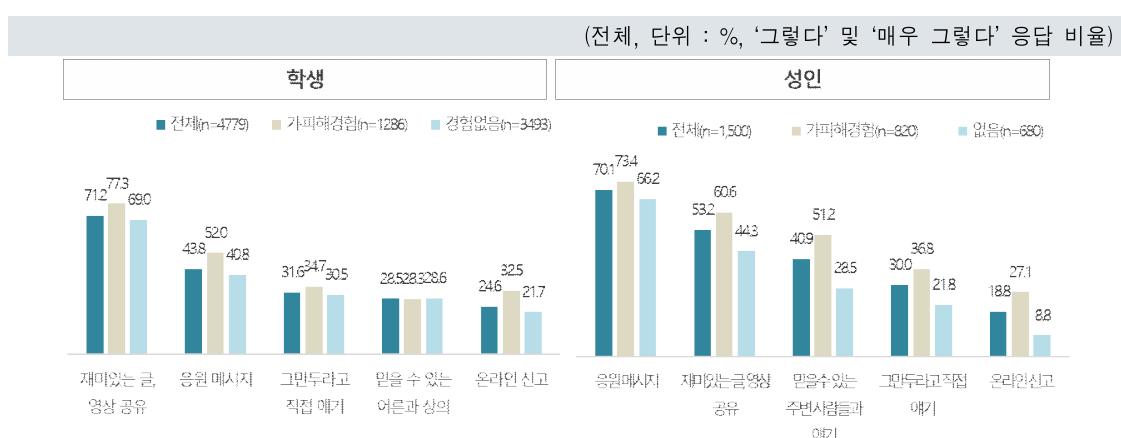
- 학생의 경우 SNS를 통해 ‘자신감’과 ‘인기’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4.9%, 15.3%로 나타났으며, ‘우울함’과 ‘외로움’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8%, 17.9%로 나타남
- 성인의 경우 SNS를 통해 ‘자신감’과 ‘인기’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0.8%, 17.6%로 나타났으며, ‘우울함’과 ‘외로움’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7.1%, 26.4%로 나타남

[그림 II-13] 학생과 성인의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 친구나 지인이 온라인 상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학생과 성인 모두 재미있는 글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응원 메시지를 통해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4] 학생과 성인의 난처한 상황 발생 시 지인을 위한 온라인 활동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1. 사이버폭력 경험	25
가. 경험 현황	25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26
다. 목격 현황	32
2. 사이버폭력 특성	35
가. 가해 행태	35
나. 피해 행태	40
3. 사이버폭력 원인	46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46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51
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상관성	54
4. 학생의 디지털 생활	55
가. 학생의 SNS 이용과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	55
나. SNS의 긍정적인 효과	58

1. 사이버폭력 경험

가. 경험 현황

- 학생 4,779명 중 18.0%가 최근 1년 이내에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피해 경험 응답은 19.0%로 나타남. 전년 대비 가해 또는 피해 경험률은 각각 2.8%p, 1.8%p 감소함
-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가해 경험 비율과 피해 경험 비율 모두 상대적으로 높고,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가장 낮음
- 성별로는 남학생의 가해 경험률이 피해 경험률보다 높고, 여학생은 피해 경험률이 가해 경험률보다 높음

[그림 III-1] 사이버폭력 경험률

[표III-1] 사이버폭력 경험률¹²⁾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가해 또는 피해 경험률	2019년	(4,779)	26.9	24.2	32.4	24.3	27.8	25.9
	2018년	(4,662)	29.5	24.4	32.9	31.0	32.5	25.8
	2017년	(4,500)	24.8	18.4	31.0	24.6	29.3	18.9
가해 경험률	2019년	(4,779)	18.0	13.3	23.1	17.7	21.5	13.8
	2018년	(4,662)	20.8	14.3	25.1	22.9	25.2	15.5
	2017년	(4,500)	16.5	9.3	23.4	16.6	22.0	9.4
피해 경험률	2019년	(4,779)	19.0	18.8	22.9	15.4	18.1	20.0
	2018년	(4,662)	20.8	19.8	22.2	20.6	22.0	19.5
	2017년	(4,500)	17.4	15.0	20.9	16.3	19.2	15.1

12) 2017년 사이버폭력 유형은 총 7개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이었으며, 2018년 이후 '강요'가 추가되어 총 8개 유형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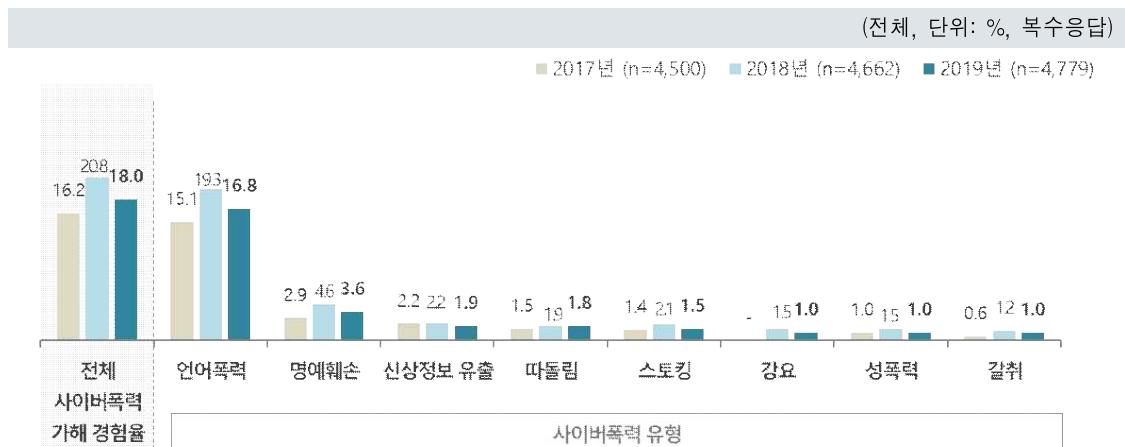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1) 가해 유형별 경험률

- 사이버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16.8%로 가장 많고, ‘명예훼손’(3.6%) > ‘신상정보 유출’(1.9%) > ‘따돌림’(1.8%) > ‘스토킹’(1.5%) > ‘강요’, ‘성폭력’, ‘갈취’(각 1.0%) 순임
- 전년 대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가해 경험률은 각각 2.5%p, 1.0%p 감소함

[그림 III-2] 가해 유형별 경험률¹³⁾



[표III-2] 가해 유형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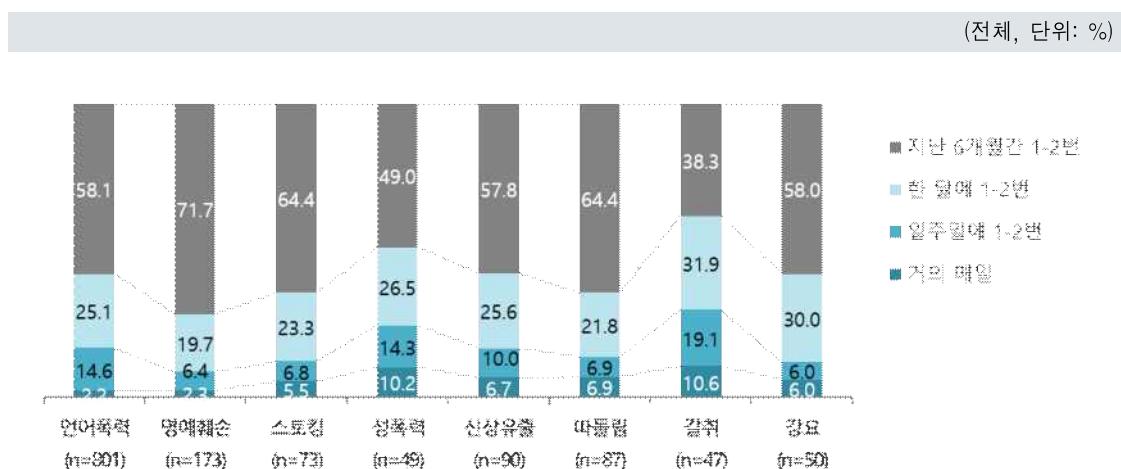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4,779)	(1,577)	(1,560)	(1,642)	(2,589)	(2,190)
가해 유형	전체 가해 경험률	18.0	13.3	23.1	17.7	21.5
	언어폭력	16.8	11.5	22.1	16.7	20.0
	명예훼손	3.6	2.7	4.4	3.7	4.5
	스토킹	1.5	1.5	1.4	1.7	2.0
	성폭력	1.0	0.5	0.8	1.7	1.5
	신상정보 유출	1.9	1.3	1.9	2.4	2.6
	따돌림	1.8	2.0	1.8	1.6	2.5
	갈취	1.0	0.8	1.0	1.2	1.6
	강요	1.0	0.7	1.2	1.2	1.5

13) 2017년 사이버폭력 유형은 총 7개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이었으며, 2018년 이후 ‘강요’가 추가되어 총 8개 유형으로 측정

(2) 가해 유형별 빈도

-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주기는 보통 6개월에 1~2번 정도로 나타남
- ‘성폭력’, ‘갈취’의 경우 ‘거의 매일’ 했다는 응답이 약 10%이고, ‘지난 6개월간 1~2번’이라는 응답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적어 전체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가해 행위가 발생함
- 가해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은 ‘명예훼손’이며, ‘지난 6개월간 1~2번’이라는 응답이 71.7%임

[그림 III-3] 가해 유형별 빈도(전체)



[표III-3] 가해 유형별 빈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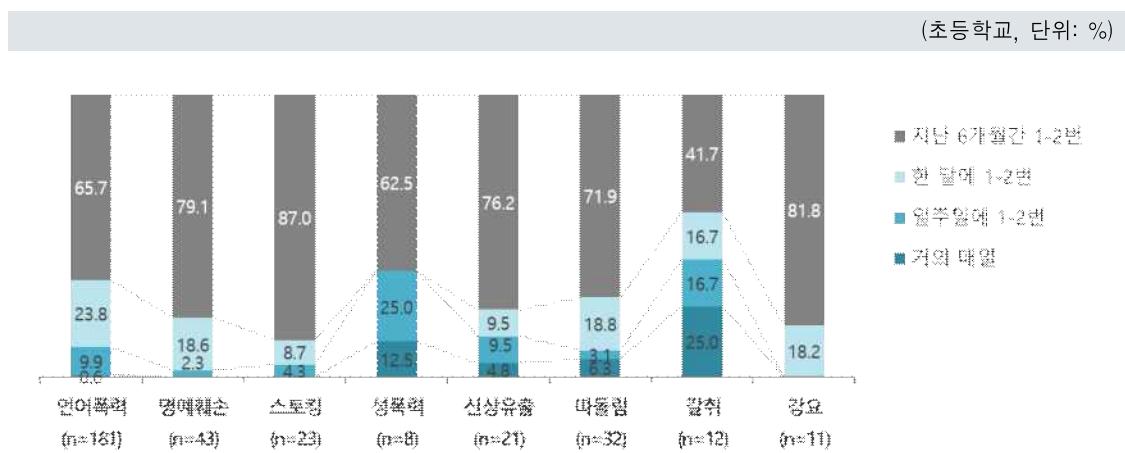
(전체, 단위: %)

구분	가해 유형							
	언어 폭력	명예 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사례수)	(801)	(173)	(73)	(49)	(90)	(87)	(47)	(50)
지난 6개월간 1~2번	58.1	71.7	64.4	49.0	57.8	64.4	38.3	58.0
한 달에 1~2번	25.1	19.7	23.3	26.5	25.6	21.8	31.9	30.0
일주일에 1~2번	14.6	6.4	6.8	14.3	10.0	6.9	19.1	6.0
거의 매일	2.2	2.3	5.5	10.2	6.7	6.9	10.6	6.0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 초등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주기가 보통 ‘6개월에 1~2번’ 정도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유형 중 ‘갈취’는 ‘거의 매일’ 했다는 응답이 25.0%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가해 행위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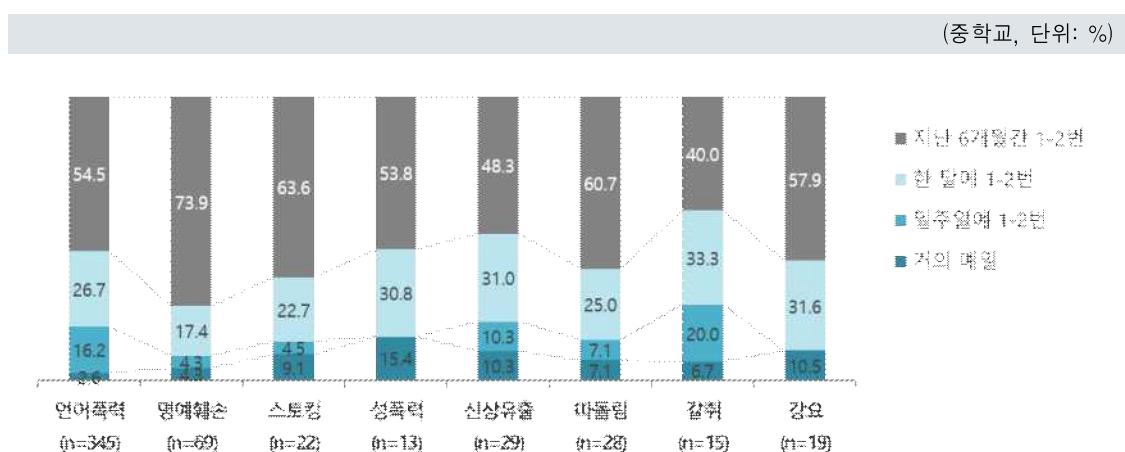
[그림 III-4] 가해 유형별 빈도(초등학교)



*사례수 n<30 해석시 주의.

- 중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주기는 ‘6개월에 1~2번’ 정도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유형 중 ‘성폭력’(15.4%), ‘신상정보 유출’(10.3%), ‘강요’(10.5%)는 ‘거의 매일’ 했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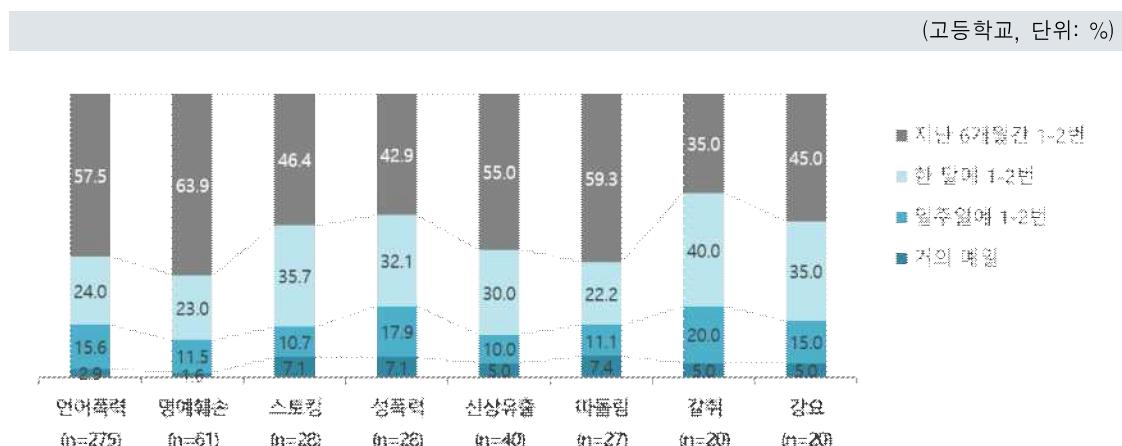
[그림 III-5] 가해 유형별 빈도(중학교)



*사례수 n<30 해석시 주의.

- 고등학생의 경우 '1주일에 1~2번' 발생한다는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높고, 사이버 폭력 유형별 가해 주기가 짧음

[그림 III-6] 가해 유형별 빈도(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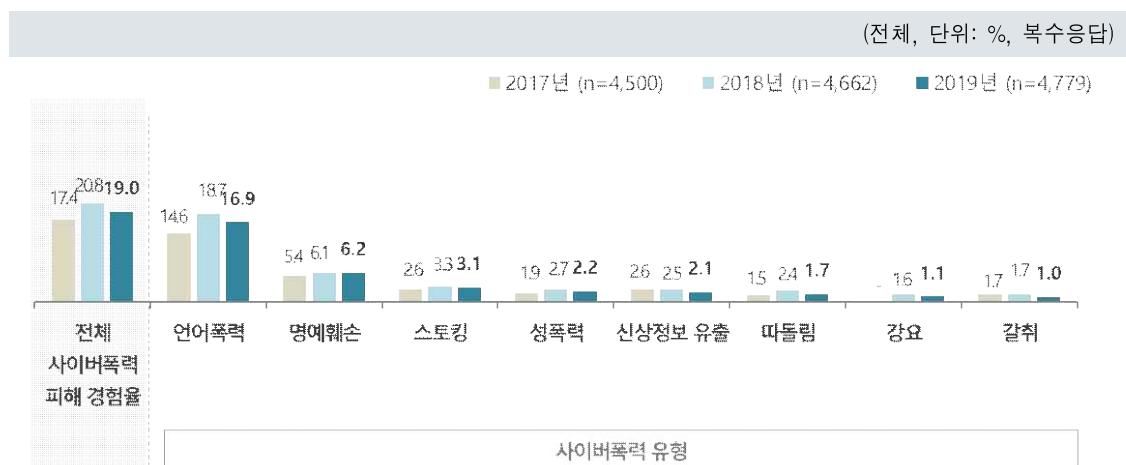
*사례수 n<30 해석시 주의.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3) 피해 유형별 경험률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은 ‘언어폭력’이 16.9%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명예훼손’(6.2%) > ‘스토킹’(3.1%) > ‘성폭력’(2.2%) > ‘신상정보 유출’(2.1%) > ‘따돌림’(1.7%) > ‘강요’(1.1%) > ‘갈취’(1.0%) 순임
- 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년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함. ‘언어폭력’의 경우 전년 대비 1.8%p 감소하여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감소 폭이 가장 큼
-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은 타 교급 대비 중학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성폭력은 타 교급 대비 고등학생에서 가장 많고, 따돌림은 타 교급 대비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음

[그림 III-7] 피해 유형별 경험률¹⁴⁾



[표III-4] 피해 유형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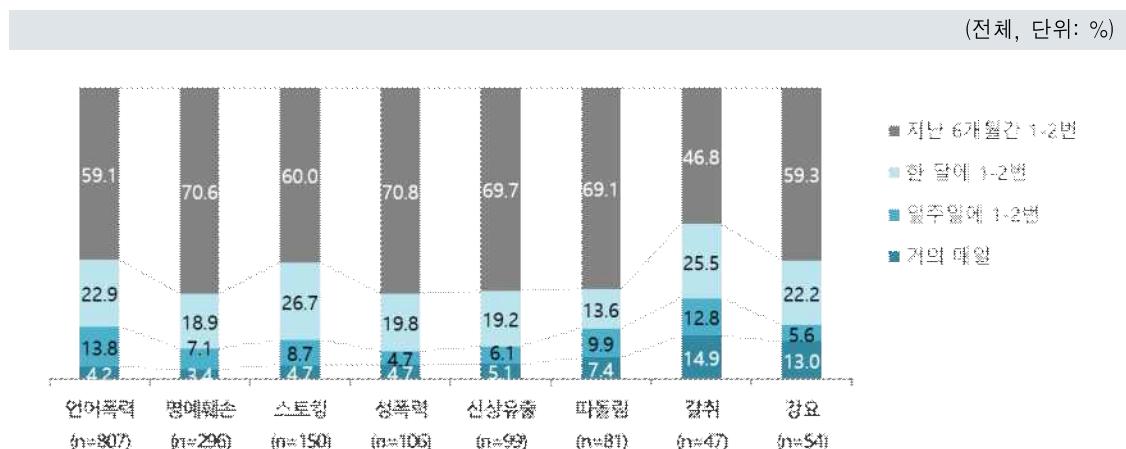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4,779)	(1,577)	(1,560)	(1,642)	(2,589)	(2,190)
피해 유형	전체 피해 경험률	19.0	18.8	22.9	15.4	18.1
	언어폭력	16.9	16.5	20.5	13.8	16.6
	명예훼손	6.2	5.8	8.0	4.8	5.6
	스토킹	3.1	2.4	3.7	3.3	2.5
	성폭력	2.2	1.8	2.2	2.6	1.7
	신상정보 유출	2.1	1.6	2.5	2.1	2.1
	따돌림	1.7	2.3	1.3	1.4	2.2
	갈취	1.0	1.1	0.8	1.1	1.4
	강요	1.1	1.5	1.0	1.0	1.2

14) 2017년 사이버폭력 유형은 총 7개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이었으며, 2018년 이후 ‘강요’가 추가되어 총 8개 유형으로 측정

(4) 피해 유형별 빈도

-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빈도는 보통 ‘6개월간 1~2번’인 경우가 가장 많음
- ‘갈취’와 ‘강요’ 유형은 ‘거의 매일’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각각 14.9%, 13.0%로 타 유형에 비해 높음

[그림 III-8] 피해 유형별 빈도



[표III-5] 피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구분	피해 유형							
	언어 폭력	명예 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사례수)	(807)	(296)	(150)	(106)	(99)	(81)	(47)	(54)
지난 6개월간 1~2번	59.1	70.6	60.0	70.8	69.7	69.1	46.8	59.3
한 달에 1~2번	22.9	18.9	26.7	19.8	19.2	13.6	25.5	22.2
일주일에 1~2번	13.8	7.1	8.7	4.7	6.1	9.9	12.8	5.6
거의 매일	4.2	3.4	4.7	4.7	5.1	7.4	14.9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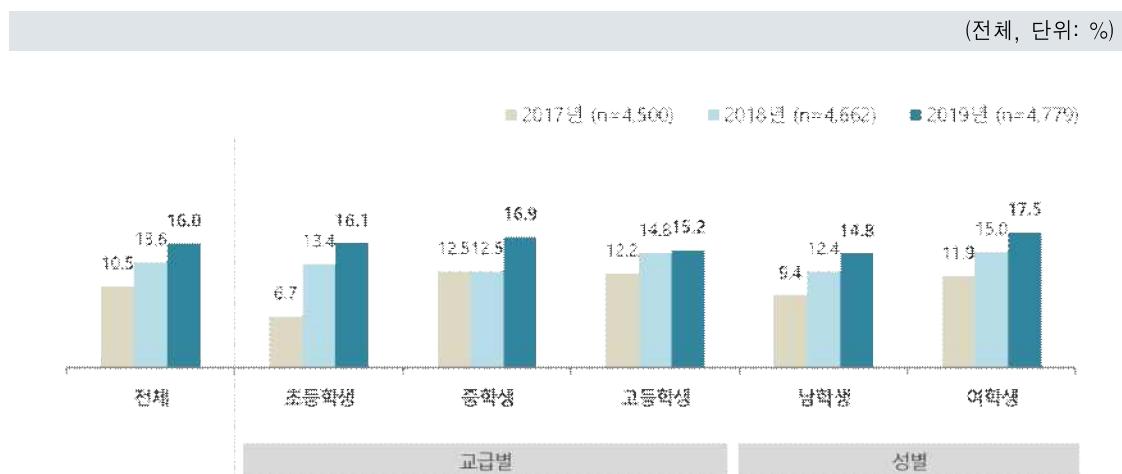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다. 목격 현황

(1) 목격 현황

- 학생 10명 중 1명 정도가 최근 1년 이내에 주변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상황을 목격한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이후 매년 약 3%p씩 증가하고 있음
- 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이 각각 전년 대비 2.7%p, 4.4%p 증가함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년 대비 목격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목격 경험률이 남학생보다 높음

[그림 III-9]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표III-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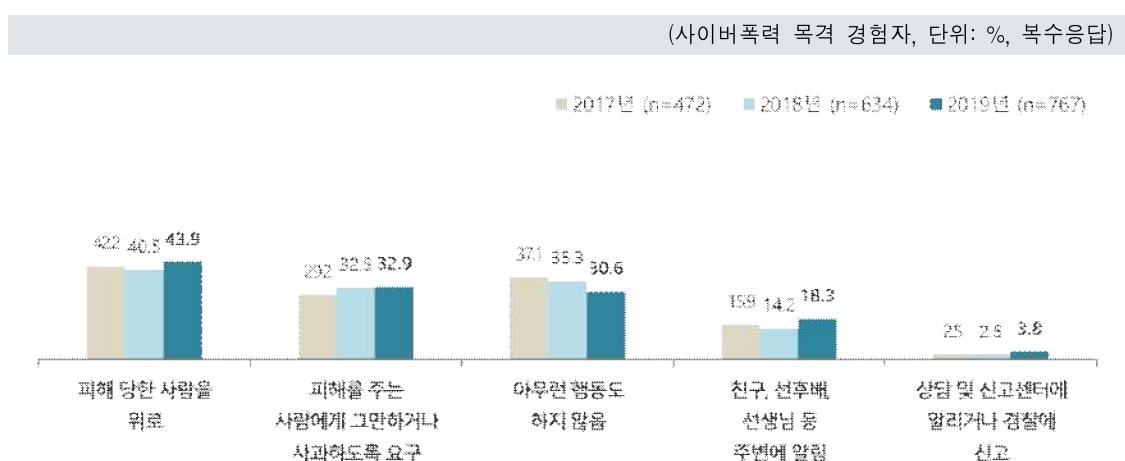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4,779)	(1,577)	(1,560)	(1,642)	(2,589)	(2,190)
본 적 있음	16.0	16.1	16.9	15.2	14.8	17.5
본 적 없음	84.0	83.9	83.1	84.8	85.2	82.5

(2) 목격 후 대응방법

-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장면을 목격한 후 대응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로’(43.9%)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32.9%),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3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이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의 비율이 높아짐

[그림 III-10] 목격 후 대응방법



[표III-7] 목격 후 대응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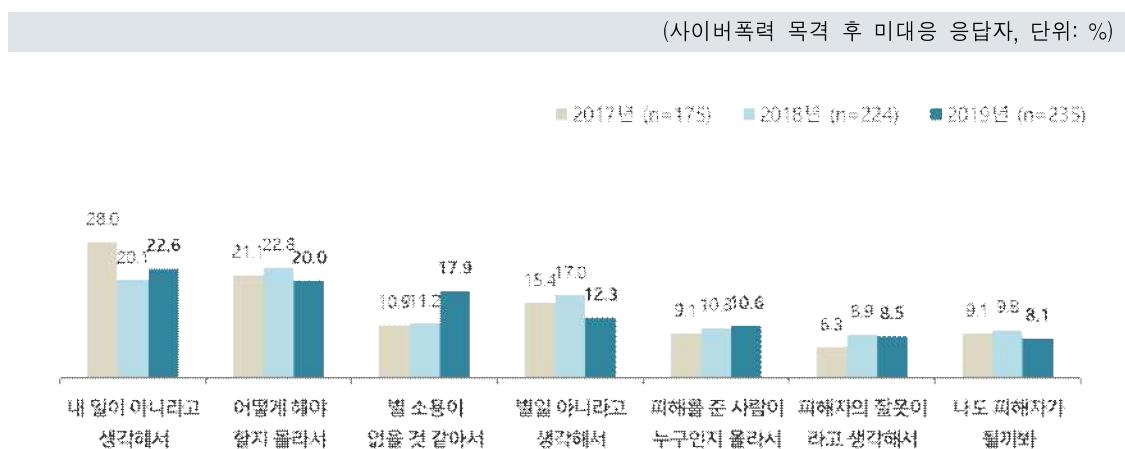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767)	(254)	(264)	(249)	(383)	(384)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	43.9	41.3	47.3	43.0	34.7	53.1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32.9	45.3	24.2	29.3	36.8	28.9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18.3	18.5	17.0	19.3	14.9	21.6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3.8	3.9	3.0	4.4	3.4	4.2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30.6	22.0	34.1	35.7	34.5	26.8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3) 목격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 사이버폭력을 목격했으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2.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0.0%),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는 2018년 11.2%에서 17.9%로 6.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교급이 낮을수록 ‘나도 피해자가 될까 봐’ 아무 행동도 안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교급이 높을수록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와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의 비율이 높음

[그림 III-11] 목격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표III-8] 목격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사이버폭력 목격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235)	(56)	(90)	(89)	(132)	(103)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2.6	12.5	23.3	28.1	23.5	21.4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0.0	26.8	27.8	7.9	13.6	28.2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7.9	14.3	17.8	20.2	18.2	17.5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12.3	17.9	8.9	12.4	15.2	8.7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10.6	5.4	8.9	15.7	9.1	12.6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8.5	7.1	4.4	13.5	12.1	3.9
나도 피해자가 될까 봐	8.1	16.1	8.9	2.2	8.3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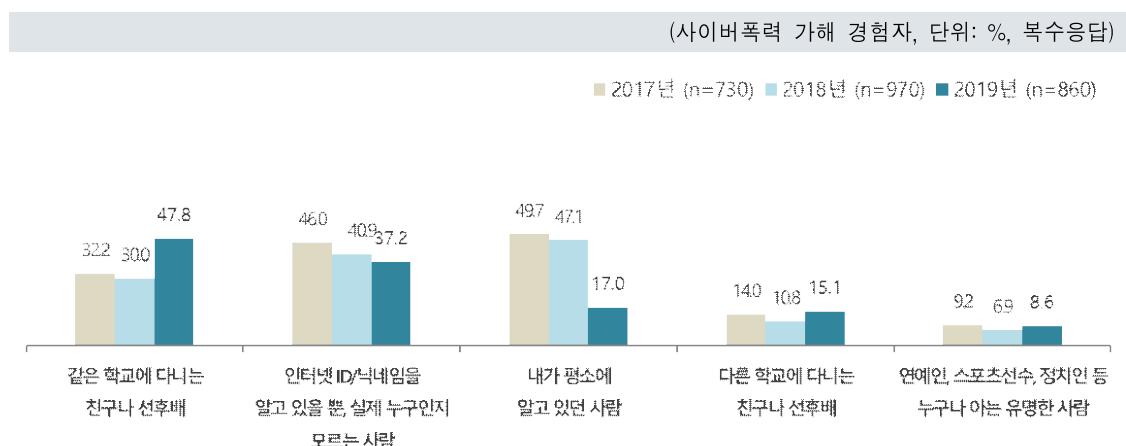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특성

가. 가해 행태

(1) 가해 대상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중 47.8%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가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7.2%는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교급이 낮을수록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가해를 한 비율이 높음
-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가해를 한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비율이 높음

[그림 III-12] 가해 대상



[표III-9] 가해 대상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860)	(210)	(360)	(290)	(557)	(303)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47.8	54.8	49.2	41.0	44.2	54.5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37.2	30.0	38.6	40.7	44.9	23.1
15)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17.0	18.1	16.4	16.9	15.1	20.5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15.1	11.0	14.4	19.0	15.8	13.9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8.6	5.2	8.3	11.4	5.2	14.9

15) '19년도 조사 진행 시 '같은/다른 학교/선후배 외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으로 변경하여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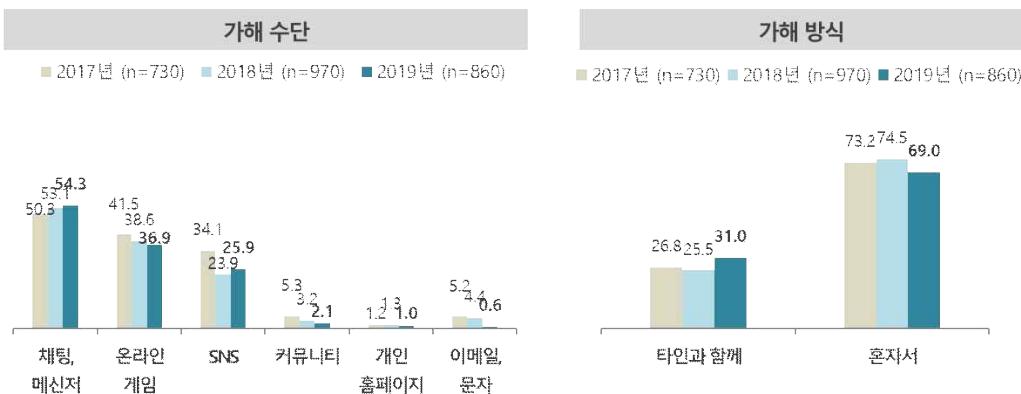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2) 가해 수단 및 방식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은 ‘인스턴트 메시지’(54.3%)를 통하여 사이버 폭력 가해 행위를 하였으며, 그 뒤로는 ‘온라인 게임’(36.9%), ‘SNS’(25.9%) 순임
-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한 가해 행위는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감소함
- 교급이 낮을수록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해 행위를 많이 하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가해 수단으로 ‘인스턴트 메시지’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급이 높을수록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비율이 높음
-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69.0%는 ‘혼자서’ 사이버폭력을 행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가해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III-13] 가해 수단 및 가해 방식

(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 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표III-10] 가해 수단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860)	(210)	(360)	(290)	(557)	(303)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54.3	59.5	55.6	49.0	47.2	67.3
온라인 게임	36.9	32.4	36.9	40.0	50.3	12.2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25.9	27.6	29.4	20.3	19.2	38.3
커뮤니티 (카페, 동호회 등)	2.1	1.0	1.4	3.8	2.9	.7
개인 홈페이지	1.0	0.5	1.1	1.4	1.1	1.0
이메일, 문자메시지	0.6	1.4	0.3	0.3	0.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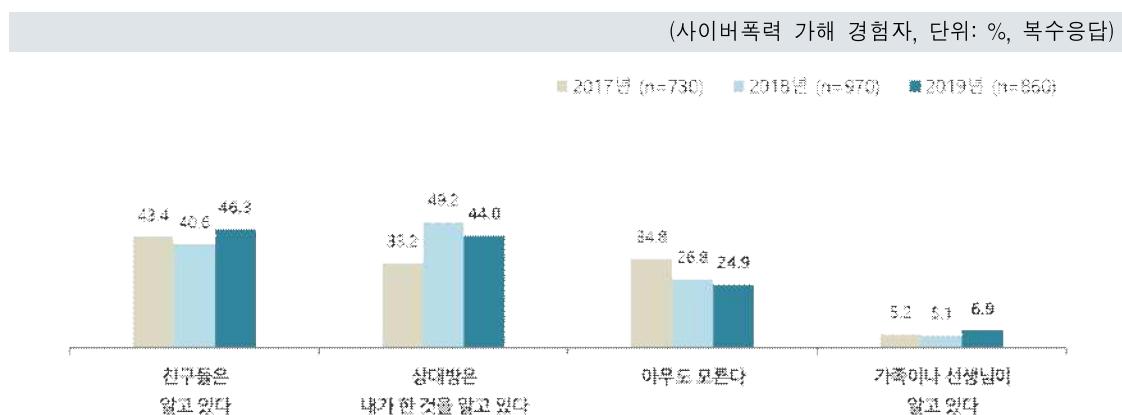
[표III-11] 가해 방식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860)	(210)	(360)	(290)	(557)	(303)
여러 명과 함께 했다	31.0	28.1	35.3	27.9	24.6	42.9
혼자서 했다	69.0	71.9	64.7	72.1	75.4	57.1

(3) 가해 사실 주변인지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본인의 가해 사실에 대해 ‘친구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6.3%이며, ‘상대방도 내가 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4.0%임
- ‘아무도 모른다’의 응답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함
- 초등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와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중·고등 학생은 ‘친구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남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많고, 여학생은 친구,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경우가 높음

[그림 III-14] 가해 사실 주변인지



[표III-12] 가해 사실 주변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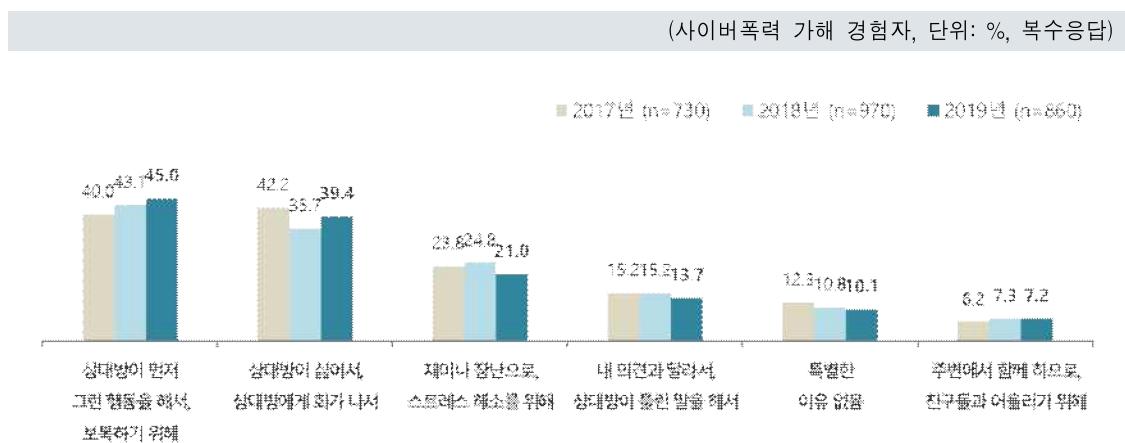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860)	(210)	(360)	(290)	(557)	(303)
친구들이 알고 있다	46.3	38.6	51.9	44.8	42.7	52.8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44.0	49.5	41.9	42.4	46.3	39.6
아무도 모른다	24.9	23.3	24.4	26.6	25.9	23.1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	6.9	15.7	5.8	1.7	4.3	11.6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4) 가해 이유

-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의 이유로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라고 45.0%가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가해 행동을 했다는 응답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교급이 높을수록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가해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음
- 성별로는 남학생은 보복성 및 재미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 가해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III-15] 가해 이유



[표III-13] 가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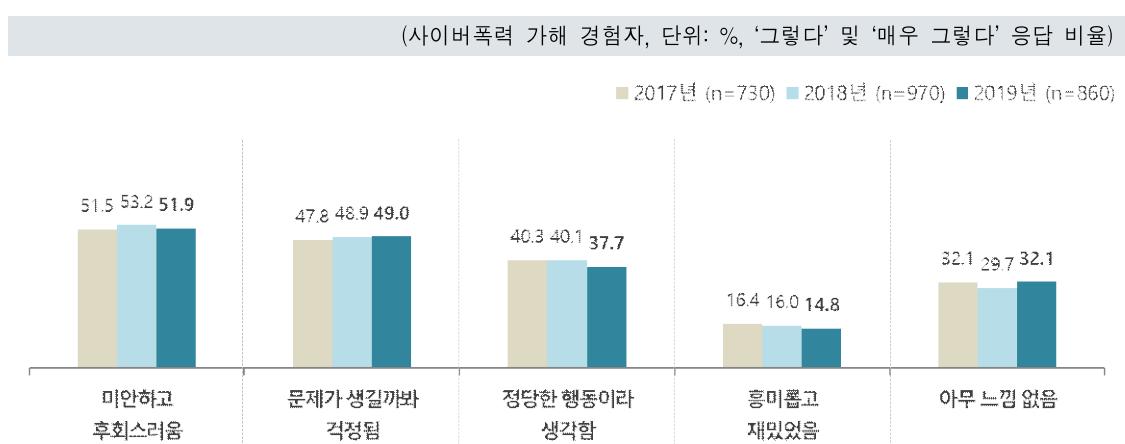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860)	(210)	(360)	(290)	(557)	(303)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45.0	47.1	50.3	36.9	49.0	37.6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39.4	32.9	41.9	41.0	31.4	54.1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1.0	19.5	19.2	24.5	24.2	15.2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13.7	7.1	13.3	19.0	13.6	13.9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10.1	11.0	8.3	11.7	11.1	8.3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7.2	5.2	7.8	7.9	7.0	7.6

(5) 가해 후 심리

- 사이버폭력 가해를 한 학생의 51.9%는 ‘미안하고 후회스러움’을 느끼고, 49.0%는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급이 낮을수록 ‘미안하고 후회스러움’이나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교급이 높을수록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함’과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그림 III-16] 가해 후 심리



[표III-14] 가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860)	(210)	(360)	(290)	(557)	(303)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음	51.9	66.7	50.3	43.1	48.5	58.1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됐음	49.0	63.8	50.3	36.6	42.4	61.1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함	37.7	23.8	38.6	46.6	42.2	29.4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14.8	7.1	13.6	21.7	16.3	11.9
아무 느낌 없음	32.1	23.8	31.1	39.3	33.9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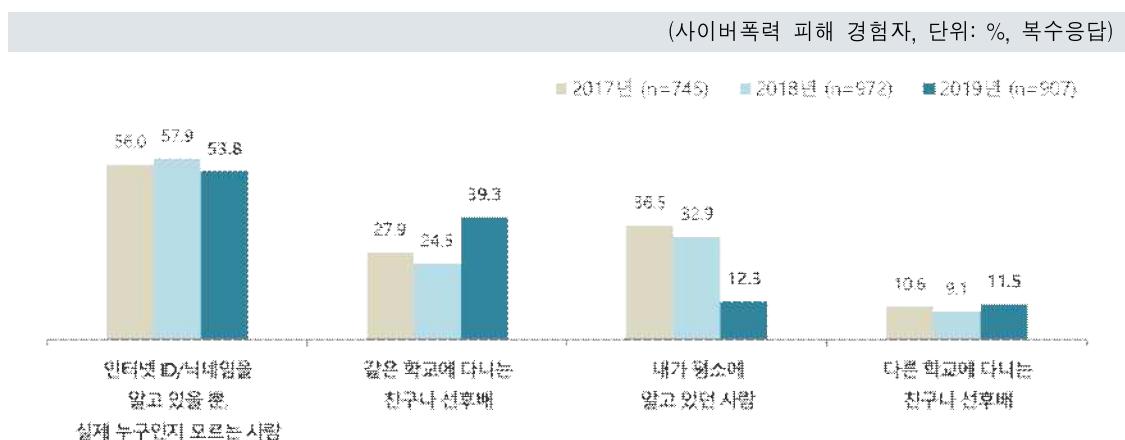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나. 피해 행태

(1) 가해 주체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53.8%는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남
- 교급이 올라갈수록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으며, 교급이 낮을수록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 남학생들은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많고, 여학생들은 ‘같은 학교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7] 가해 주체



[표III-15] 가해 주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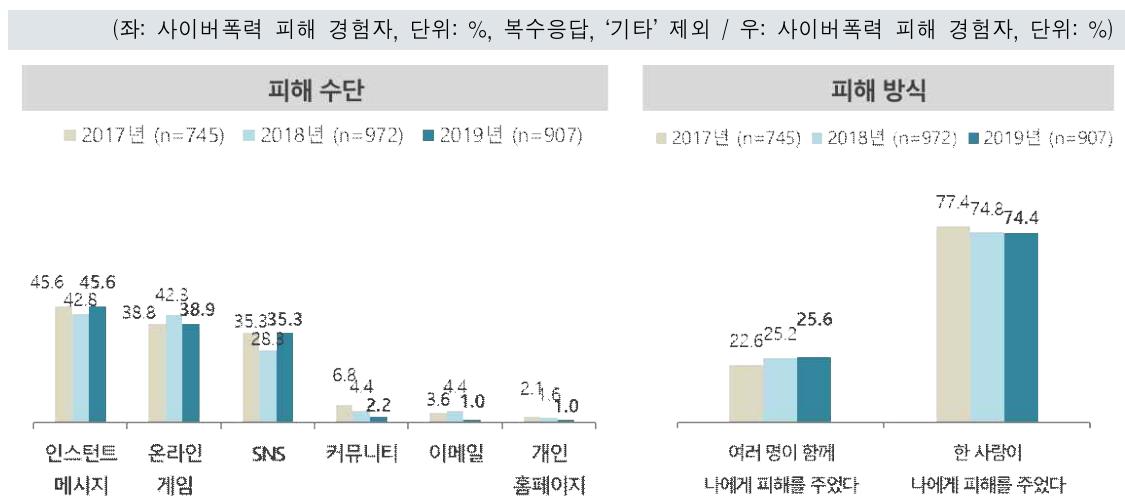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907)	(297)	(357)	(253)	(469)	(438)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53.8	50.2	52.1	60.5	60.1	47.0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	39.3	42.1	39.2	36.0	32.0	47.0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¹⁶⁾	12.3	12.1	13.2	11.5	13.2	11.4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	11.5	10.8	10.6	13.4	12.4	10.5

16) 기존 보기 문항을 ‘같은/다른 학교/선·후배 외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으로 변경함

(2) 피해 수단 및 형태

- 사이버폭력은 주로 ‘인스턴트 메시지’(45.6%), ‘온라인 게임’(38.9%), ‘SNS’(35.3%)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남학생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고, 여학생은 ‘인스턴트 메시지’나 ‘SNS’를 통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사이버폭력 피해는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가 74.4%이며, ‘여러 명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25.6%로 나타남

[그림 III-18] 피해 수단 및 피해 방식



[표III-16] 피해 수단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907)	(297)	(357)	(253)	(469)	(438)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45.6	42.4	48.2	45.8	38.8	53.0
온라인 게임	38.9	38.7	36.4	42.7	56.3	20.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35.3	38.7	34.7	32.0	24.1	47.3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2.2	1.3	1.7	4.0	2.8	1.6
이메일	1.0	0.7	0.8	1.6	1.1	0.9
개인 홈페이지	1.0	0.3	0.8	2.0	.6	1.4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표III-17] 피해 방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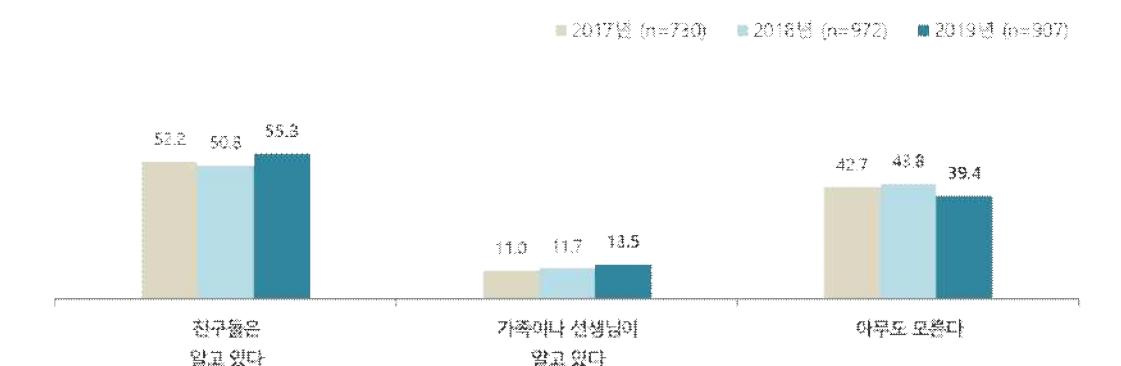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907)	(297)	(357)	(253)	(469)	(438)
여러 명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25.6	19.5	28.3	28.9	23.2	28.1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74.4	80.5	71.7	71.1	76.8	71.9

(3) 피해 사실 주변인지

- 학생 본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55.3%는 ‘친구들은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13.5%에 불과함
- 중학생의 경우 본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내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0.5%로 가장 높고, 남학생의 42.6%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응답함

[그림 III-19] 피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III-18] 피해 사실 주변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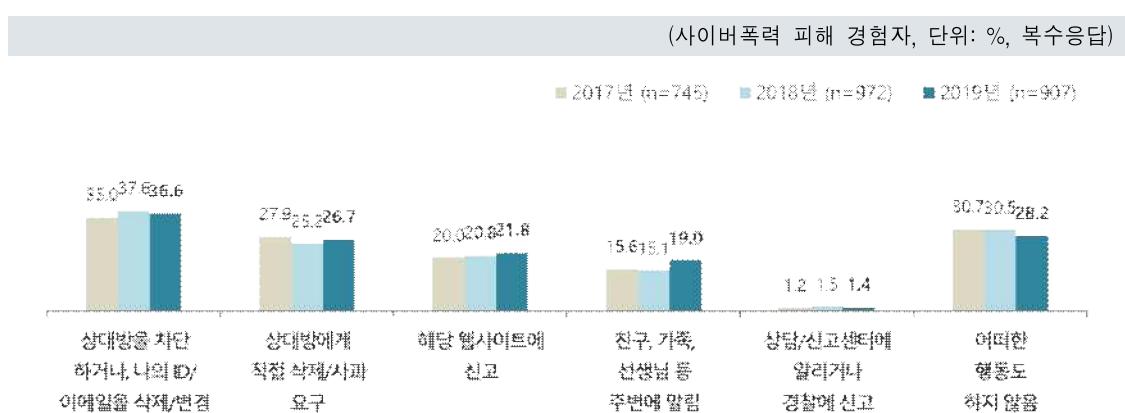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907)	(297)	(357)	(253)	(469)	(438)
내 친구들이 알고 있다	55.3	48.1	60.5	56.5	53.1	57.8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	13.5	18.5	14.6	5.9	7.7	19.6
아무도 모른다	39.4	41.8	35.6	41.9	42.6	35.8

(4) 피해 후 대응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36.6%는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ID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26.7%는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나 사과를 요구’ 등의 대응을 함
- 교급별에서는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ID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이 낮을수록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짐
- 성별로는 남학생의 26.4%는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의 29.5%는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그림 III-20] 피해 후 대응



[표III-19] 피해 후 대응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907)	(297)	(357)	(253)	(469)	(438)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	36.6	36.0	38.1	35.2	32.8	40.6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26.7	31.0	26.9	21.3	23.5	30.1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	21.8	20.9	21.6	23.3	26.4	16.9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림	19.0	20.5	21.3	13.8	9.2	29.5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	1.4	1.3	1.4	1.6	1.9	0.9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	28.2	24.2	28.9	32.0	31.6	24.7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5) 피해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가 75.0%로 가장 많고, 2018년 대비 9.1%p 상승함
- 교급이 올라갈수록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급이 낮을수록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짐
-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높고, 여학생은 ‘신고해봤자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서’와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남학생에 비해 높음

[그림 III-21] 피해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표III-20] 피해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사이버폭력 피해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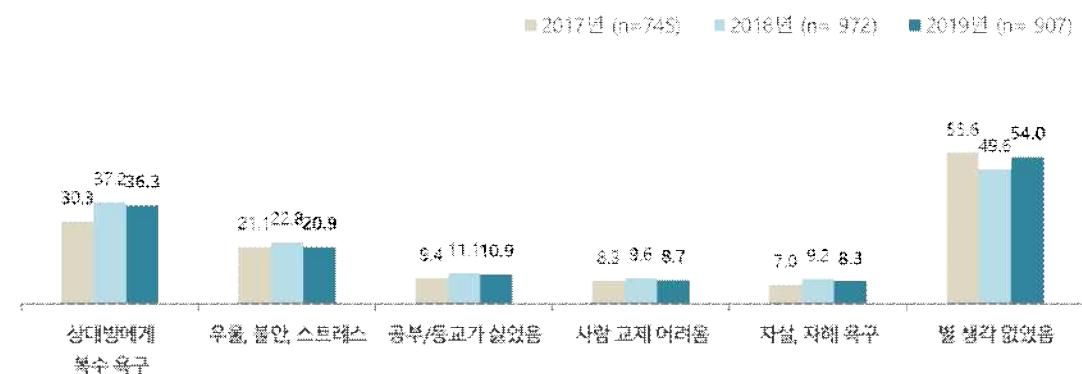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256)	(72)	(103)	(81)	(148)	(108)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75.0	68.1	72.8	84.0	80.4	67.6
신고해봤자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25.4	22.2	34.0	17.3	17.6	36.1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19.9	26.4	22.3	11.1	16.2	25.0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7.4	12.5	4.9	6.2	3.4	13.0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3.9	8.3	2.9	1.2	0.7	8.3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3.9	8.3	3.9	0.0	2.0	6.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 봐	3.9	12.5	1.0	0.0	0.7	8.3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2.7	9.7	0.0	0.0	3.4	1.9

(6) 피해 후 심리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학생들의 54.0%는 ‘별 생각 없었음’이라고 응답함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느끼는 감정으로는 36.3%가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를 느끼며, 20.9%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함
- 교급이 높을수록 ‘별 생각 없었음’이라고 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2]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III-21]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구분	전체	교급별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사례수)	(907)	(297)	(357)	(253)	(469)	(438)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	36.3	40.1	35.0	33.6	34.3	38.4
우울, 불안, 스트레스	20.9	24.9	18.8	19.4	11.3	31.3
공부/등교가 싫었음	10.9	11.1	12.3	8.7	5.5	16.7
사람 교제 어려움	8.7	8.8	8.4	9.1	4.1	13.7
자살, 자해 욕구	8.3	10.1	7.8	6.7	3.6	13.2
별 생각 들지 않음	54.0	44.1	57.4	60.9	59.3	48.4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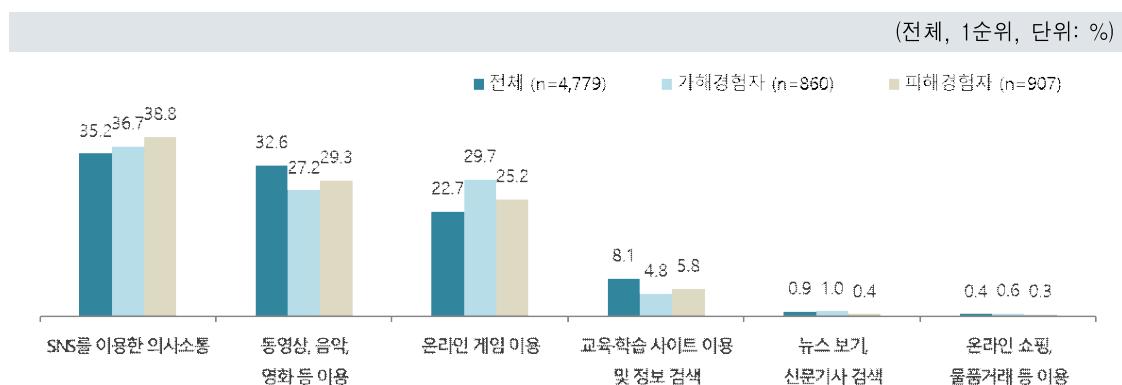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원인분석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1)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으로, 그 비율은 35.2%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자 모두 주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해 경험자는 ‘SNS(36.7%)’ > ‘온라인 게임(27.2%)’ > ‘동영상, 음악, 영화(29.7%)’ 순
 - 피해 경험자는 ‘SNS(38.8%)’ >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이용(29.3%)’ > ‘온라인 게임 이용(25.2%)’ 순

[그림 III-23] 사이버폭력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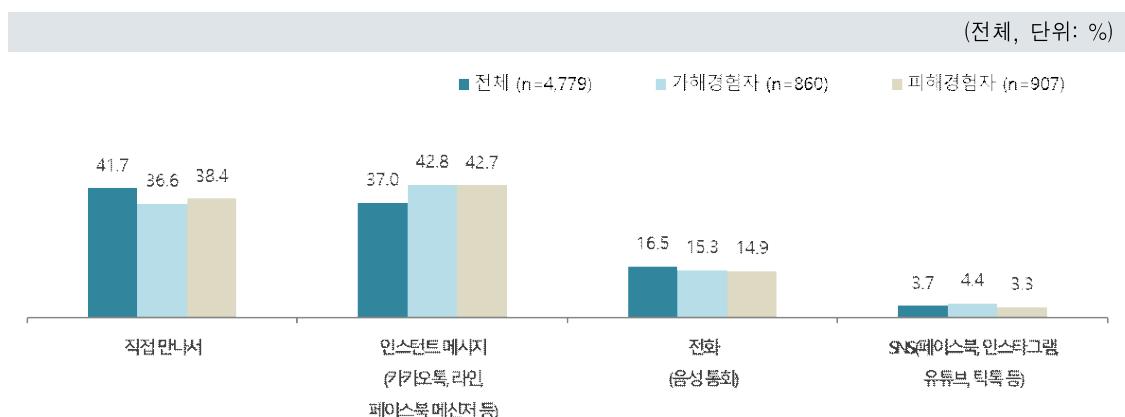
[표III-22] 사이버폭력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구분 (사례수)	전체 (4,779)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860)	비경험자 (3,919)	경험자 (907)	비경험자 (3,872)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35.2	36.7	34.9	38.8	34.3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이용	32.6	27.2	33.8	29.3	33.4
온라인 게임 이용	22.7	29.7	21.2	25.2	22.1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정보 검색	8.1	4.8	8.8	5.8	8.6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0.9	1.0	0.9	0.4	1.0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0.4	0.6	0.4	0.3	0.5

(2) 사이버폭력 경험별 선호하는 소통방식

- 학생들이 선호하는 소통방식은 ‘직접 만나서(41.7%)’, ‘인스턴트 메시지(37.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경험별로 살펴보면 가해 및 피해 경험자 모두 ‘인스턴트 메시지’를 가장 선호함
 - 가해 경험자는 ‘인스턴트 메시지(42.8%)’ > ‘직접 만나서(36.6%)’ > ‘전화(15.3%)’ 순
 - 피해 경험자는 ‘인스턴트 메시지(42.7%)’ > ‘직접 만나서(38.4%)’ > ‘전화(14.9%)’ 순

[그림 III-24] 선호 소통방식별 사이버폭력 경험



(* 응답 결과 상위 4개만 제시)

[표III-23] 선호 소통방식별 사이버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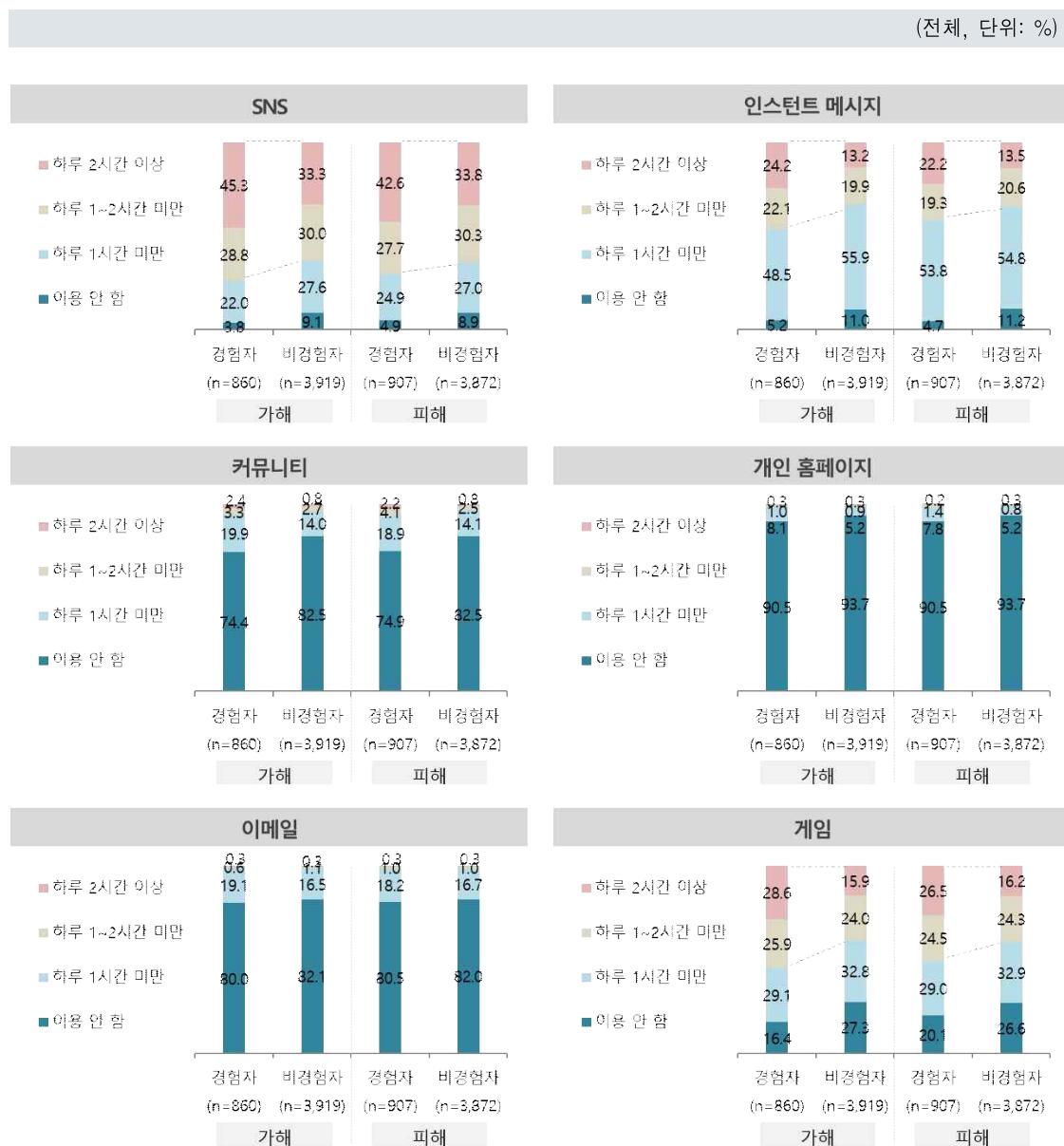
구분	전체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비경험자	경험자	비경험자
(사례수)	(4,779)	(860)	(3,919)	(907)	(3,872)
직접 만나서	41.7	36.6	42.9	38.4	42.5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37.0	42.8	35.7	42.7	35.6
전화 (음성통화)	16.5	15.3	16.8	14.9	16.9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3.7	4.4	3.6	3.3	3.8
영상통화 (스카이프, 페이스타임 등)	0.6	0.3	0.6	0.4	0.6
기타	0.5	0.5	0.5	0.3	0.5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3)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빈도

- ‘SNS’, ‘인스턴트 메시지’, ‘게임’ 등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 빈도가 ‘1시간 이상’인 비율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자가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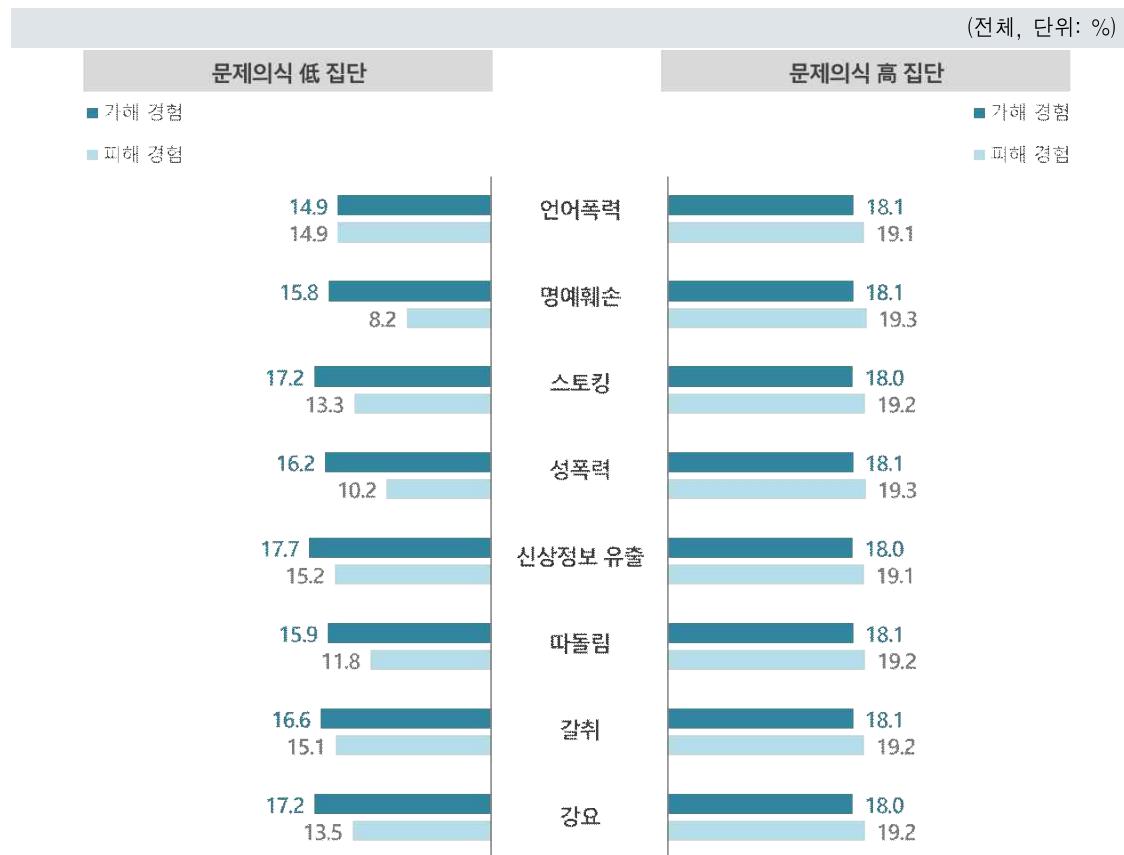
[그림 III-25]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빈도



(4)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은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개인의 문제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남. 이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이버폭력을 행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피해자 또한 사이버폭력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III-26]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 문제의식 고집단 정의 :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문제가 된다(3점 또는 4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5개 이상인 집단
문제의식 저집단 정의 :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문제가 안된다(1점 또는 2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4개 이하인 집단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5)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콘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사이버폭력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가 많음

[그림 III-27]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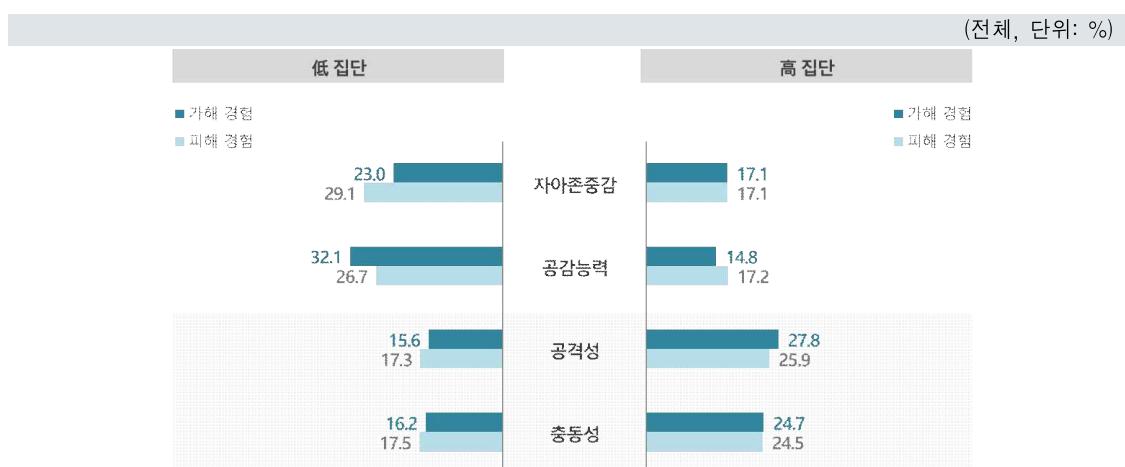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¹⁷⁾

(1) 개인 심리요인

- 응답자 본인의 심리요인과 사이버폭력 경험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공감 능력’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낮고, ‘공격 성’이나 ‘충동성’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8] 개인 심리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 高집단 정의 : 개인 심리요인별 ‘그렇다(3점 또는 4점)’라고 응답한 집단

低집단 정의 : 개인 심리요인별 ‘그렇지 않다(1점 또는 2점)’라고 응답한 집단

(2) 대인관계 요인

- 부모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낮음
-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낮고 교우관계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은 26~31%대이고, 대인관계 신뢰도가 높은 집단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17~18%대임

[그림 III-29] 대인관계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 高집단 정의 :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교우관계 신뢰도별 ‘그렇다(3점 또는 4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2개 이상인 집단

低집단 정의 :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교우관계 신뢰도별개인 ‘그렇지 않다(1점 또는 2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1개 이하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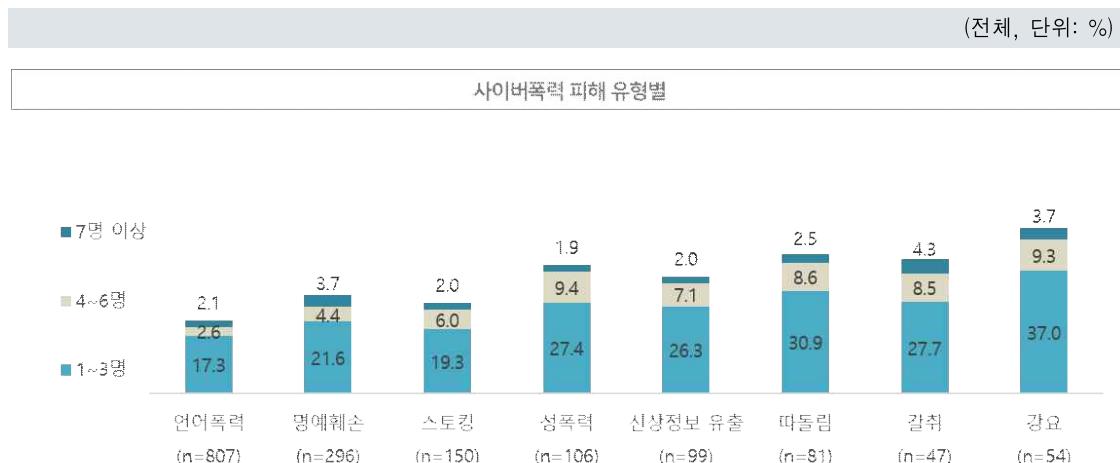
17) 2016년도 사이버폭력 유형화 연구를 통해 사회·심리 환경 요인을 개인 심리요인과 대인관계 요인 구분함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3) 사이버폭력 노출 환경

-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채팅, 문자, SNS, 게시판 등에서 친구나 선·후배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수를 확인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 중 ‘강요’나 ‘따돌림’, ‘갈취’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0]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별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수



(4)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

- 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1] 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률



- 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 시간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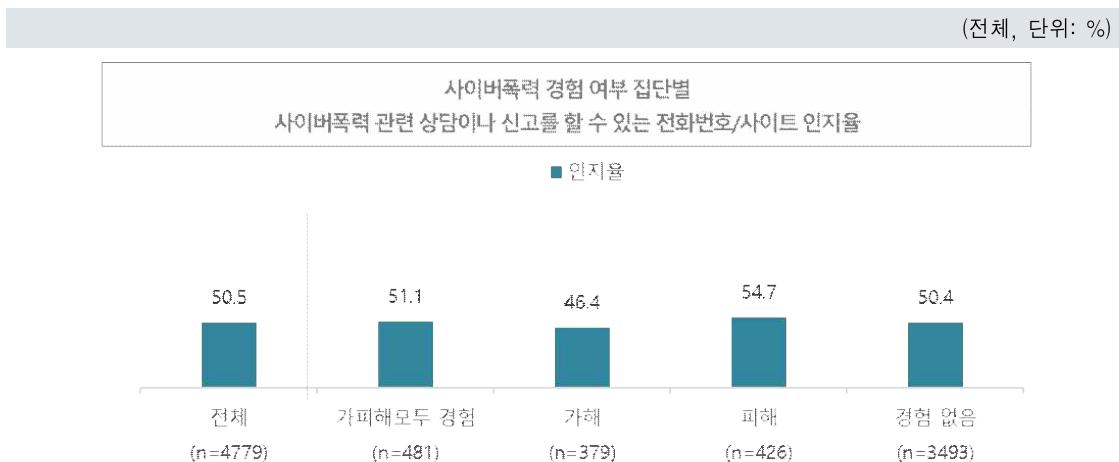
[표III-24] 부모의 인터넷 사용관여도에 따른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

구분		부모의 인터넷 사용 관여도		(전체, 단위: 분)
		저	고	
주종	PC, 노트북 등의 인터넷 이용시간	103.3	85.9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188.6	116.4	
주말	PC, 노트북 등의 인터넷 이용시간	183.7	130.6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286.6	163.7	

(5)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

-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처를 알고 있는 경우 전체 50.5%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III-32]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이나 신고처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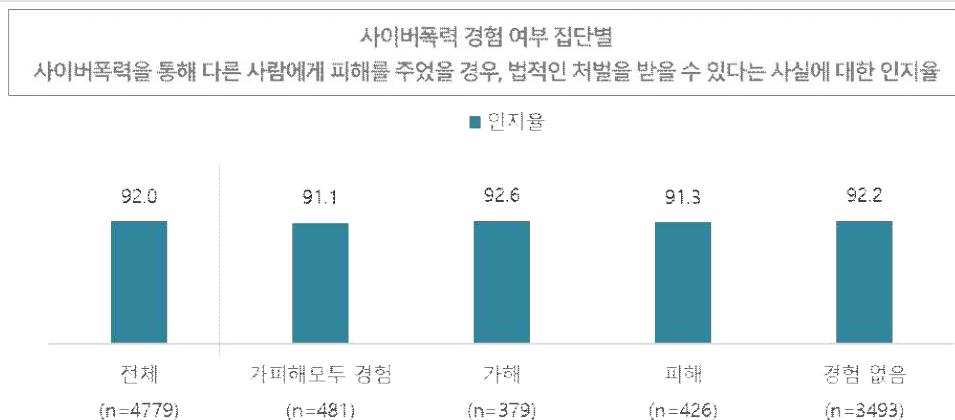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92.0%로 대부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함
-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집단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III-33] 사이버폭력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율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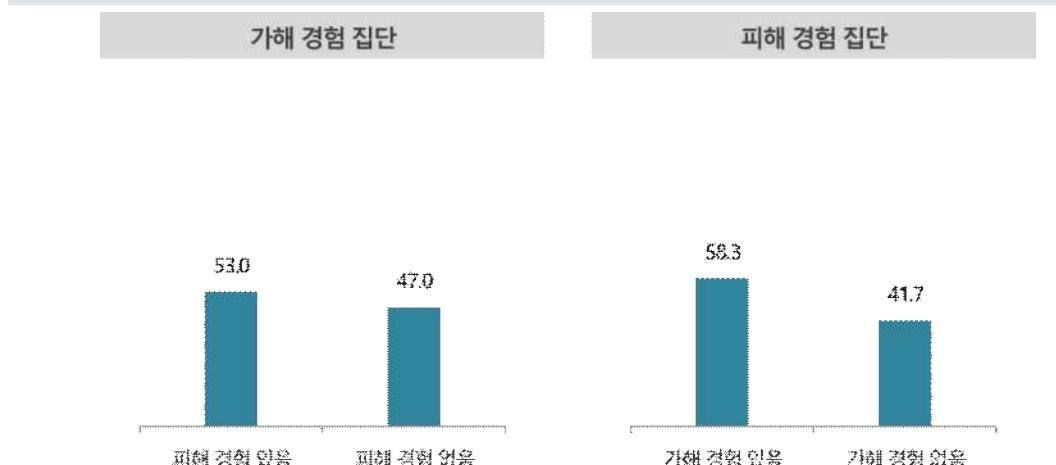


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상관성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집단의 53%는 피해 경험이 있고,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집단의 58.3%는 가해 경험이 있음

[그림 III-34] 사이버폭력 가·피해 상관성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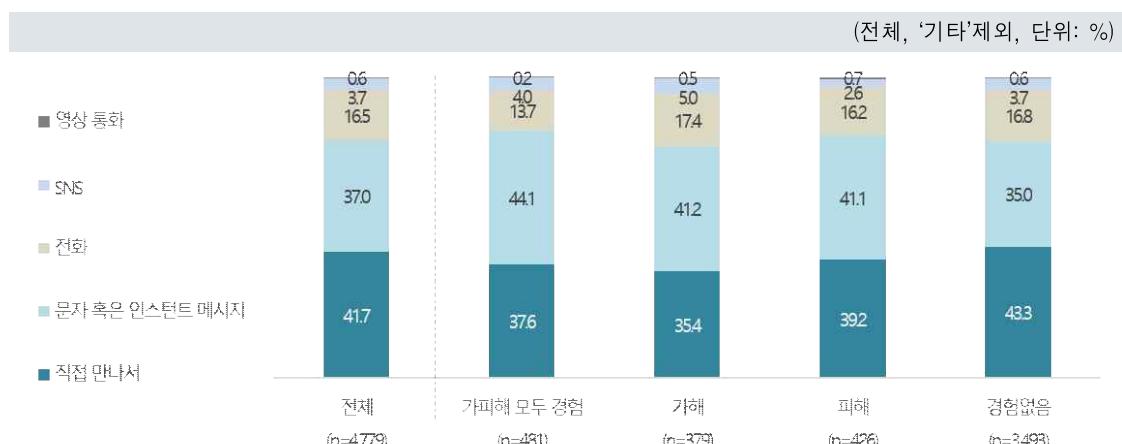
4. 학생의 디지털 생활

가. 학생의 SNS 이용과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

(1) 선호 소통방식

- 학생들의 선호하는 소통방식은 ‘직접 만나서’(41.7%)나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37.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5]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선호 소통 방식



- 사이버폭력 경험(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는 ‘문자/인스턴트 메시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43.3%는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함

[표III-25]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선호 소통방식

구분	전체	가해 및 피해 경험 집단별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경험 없음
(사례수)	(4,779)	(481)	(379)	(426)	(3,493)
직접 만나서	41.7	37.6	35.4	39.2	43.3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온라인 메신저 등)	37.0	44.1	41.2	41.1	35.0
전화(음성통화)	16.5	13.7	17.4	16.2	16.8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3.7	4.0	5.0	2.6	3.7
영상통화 (스카이프, 페이스타임 등)	0.6	0.2	0.5	0.7	0.6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2) SNS 이용 빈도

- SNS 이용 학생 중 20.4%는 1주일에 3~5일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6] SNS 이용 빈도¹⁸⁾



*이용서비스별 이용률을 합하여 응답값 기준으로 재산출함

-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한 학생의 경우 ‘1주일에 5일 이상’ SNS를 이용하는 경우는 24.2%로 가장 많으며,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은 19.5%로 나타남
-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 중 SNS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가장 많음

[표III-26] SNS 이용빈도

(응답값 기준 재산출, 단위: %)

구분	전체	가해 및 피해 경험 집단별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경험 없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59.7	56.7	57.7	56.9	60.8
일주일에 1일 미만 이용한다	7.6	8.1	7.6	8.5	7.4
일주일에 1~2일 이용한다	5.7	4.8	4.4	6.6	5.9
1주일에 3~4일 이용한다	6.6	6.2	6.9	7.0	6.6
1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다	20.4	24.2	23.3	21.0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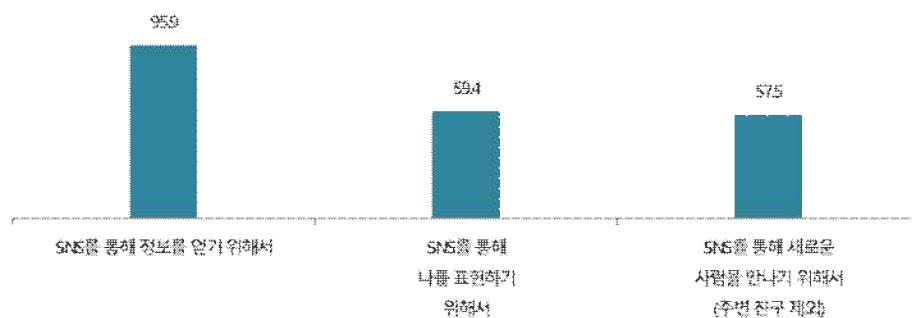
18) SNS 서비스별(네이버밴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률을 재산출함

(3) SNS 이용 목적

- 학생들 95.5%가 ‘정보를 얻기 위해’ SNS를 이용함

[그림 III-37] SNS 이용 목적

(SNS이용자, 복수응답, 단위: %)



-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SN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SNS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0.7%, 65.3%로,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 57.3%, 55.6%보다 높음

[표III-27] SNS 이용 목적별

(SNS이용자, n=4,389, 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가해 및 피해 경험 집단별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경험 없음
(응답자의 수)	(4389)	(461)	(366)	(402)	(3160)
정보를 얻기 위해서	95.9	96.1	97.3	94.5	95.9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59.4	70.7	62.6	60.2	57.3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주변 친구 제외)	57.5	65.3	62.6	59.2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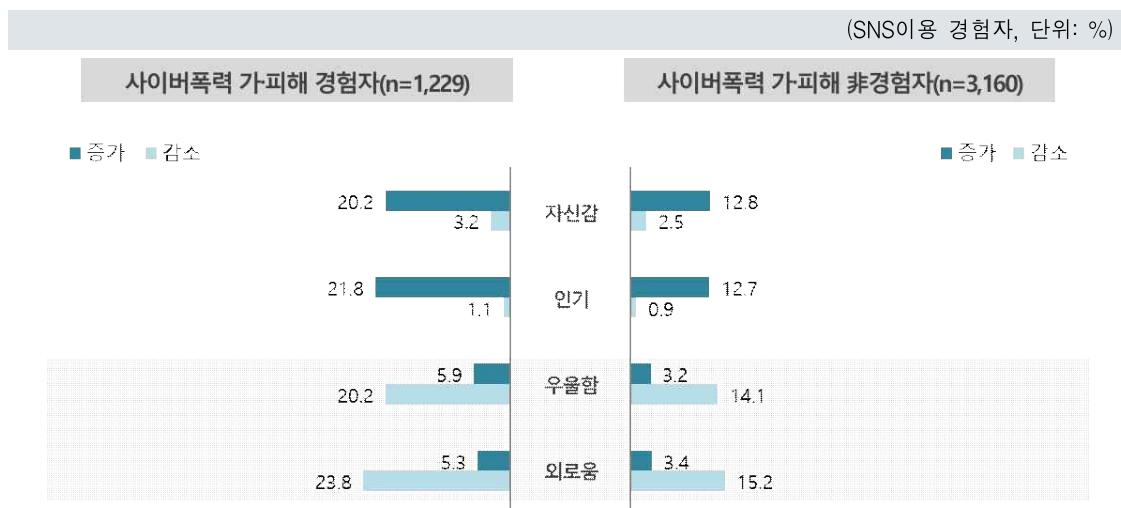
III. 학생 대상 조사결과

나. SNS의 긍정적인 효과

(1)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 보다 긍정적인 심리 요소(자신감, 인기)는 증가하고, 부정적인 요소(우울함, 외로움)는 감소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I-38]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표III-28]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따른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SNS이용자, n=4,389, 복수응답, 단위: %)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		세부 집단구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	가해 경험	피해 경험
(응답자의 수)		(4,389)	(1,229)	(3,160)	(461)	(366)	(402)
자신감	증가했다	14.9	20.2	12.8	21.0	18.0	21.1
	감소했다	2.7	3.2	2.5	3.9	3.6	2.0
	변화 없음	82.4	76.6	84.7	75.1	78.4	76.9
인기	증가했다	15.3	21.8	12.7	20.6	20.2	24.6
	감소했다	1.0	1.1	0.9	0.9	1.1	1.2
	변화 없음	83.8	77.1	86.4	78.5	78.7	74.1
우울함	증가했다	4.0	5.9	3.2	6.7	4.4	6.5
	감소했다	15.8	20.2	14.1	21.9	16.7	21.4
	변화 없음	80.2	73.9	82.7	71.4	79.0	72.1
외로움	증가했다	3.9	5.3	3.4	6.1	4.1	5.5
	감소했다	17.6	23.8	15.2	25.4	20.2	25.1
	변화 없음	78.5	71.0	81.4	68.5	75.7	69.4

(2) SNS의 긍정적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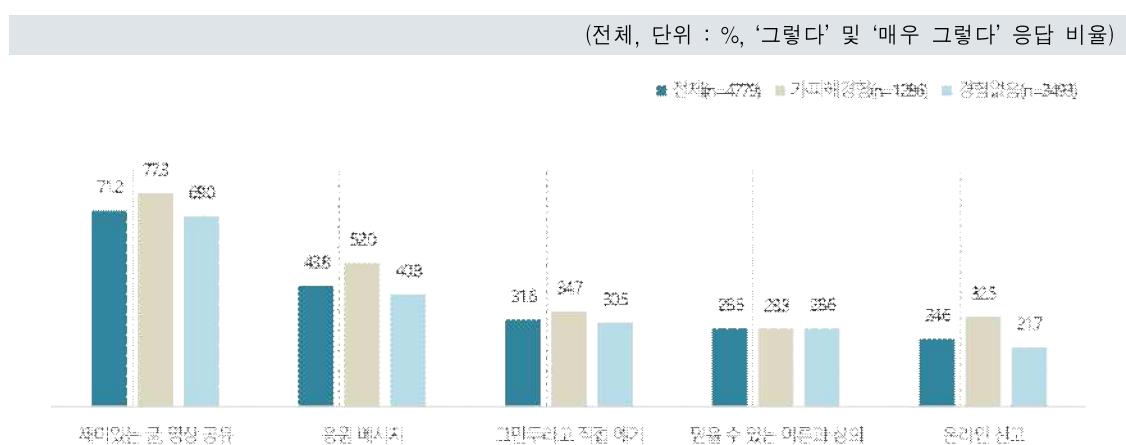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친구와 연락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온라인을 친구 관계 형성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9] 온라인과 친구 관계 형성



- 친구나 지인이 온라인 상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학생들의 71.2%는 '재미있는 글, 영상 공유'하여 친구를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40] 난처한 상황의 지인을 위한 온라인 활동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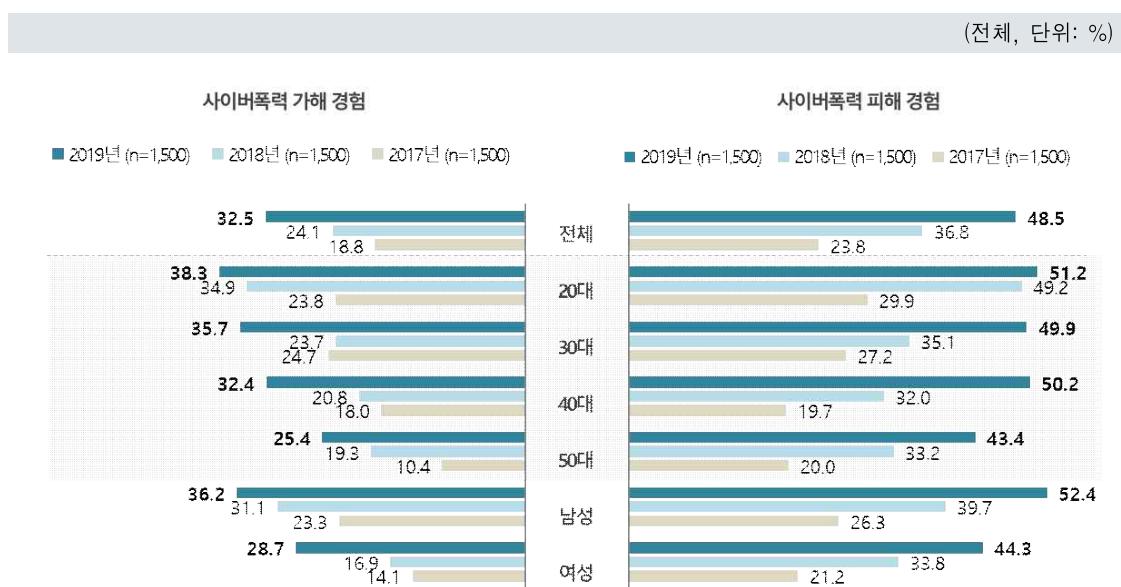
1. 사이버폭력 경험	63
가. 경험 현황	63
나. 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64
다. 목격 현황	68
2. 사이버폭력 특성	71
가. 가해 행태	71
나. 피해 행태	76
3. 사이버폭력 원인	82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82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87
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상관성	90
4. 성인의 디지털 생활	91
가. 성인의 SNS 이용과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	91
나. SNS의 긍정적인 효과	94

1. 사이버폭력 경험

가. 경험 현황

- 본 조사에 참여한 20~50대 성인 1,500명 중 32.5%가 최근 1년 이내에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8.5%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40~50대의 피해 경험률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함
- 전년 대비 가해 경험은 8.4%p, 피해 경험은 11.7%p 증가하였고,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¹⁹⁾은 13.3%p 증가함

[그림 IV-1] 사이버폭력 경험률

[표 IV-1] 사이버폭력 경험률²⁰⁾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가해 또는 피해 경험률	2019년	(1,500)	54.7	56.7	57.3	57.6	48.0	59.3
	2018년	(1,500)	43.1	55.0	42.0	38.3	39.5	47.5
	2017년	(1,500)	29.8	38.0	34.0	26.2	23.3	33.5
가해 경험률	2019년	(1,500)	32.5	38.3	35.7	32.4	25.4	36.2
	2018년	(1,500)	24.1	34.9	23.7	20.8	19.3	31.1
	2017년	(1,500)	18.8	23.8	24.7	18.0	10.4	23.3
피해 경험률	2019년	(1,500)	48.5	51.2	49.9	50.2	43.4	52.4
	2018년	(1,500)	36.8	49.2	35.1	32.0	33.2	39.7
	2017년	(1,500)	23.8	29.9	27.2	19.7	20.0	21.2

19) 최근 1년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비율

20) 2017년 사이버폭력 유형은 총 7개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이었으며, 2018년 이후 '강요'가 추가되어 총 8개 유형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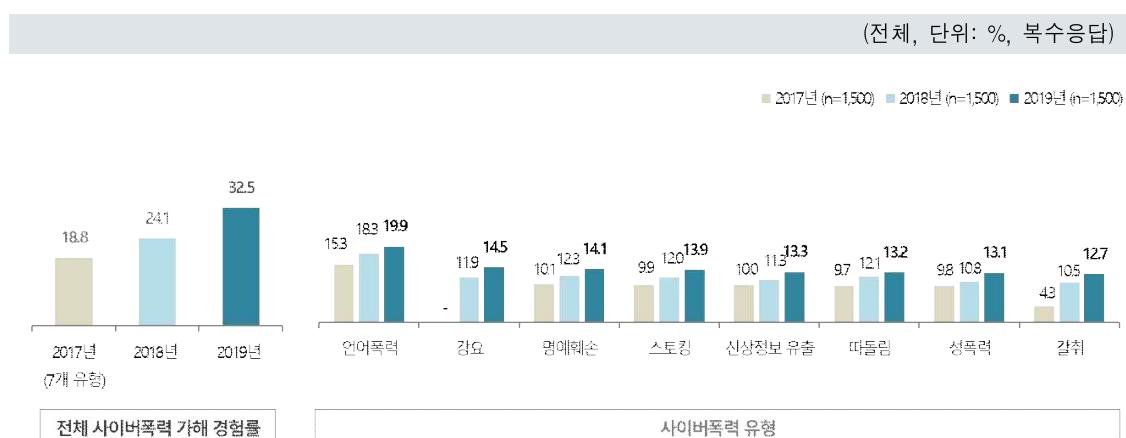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나. 사이버폭력 유형별 경험 현황

(1) 가해 유형별 경험률

- 사이버폭력 가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19.9%로 가장 많고, ‘강요’(14.5%) > ‘명예훼손’(14.1%) > ‘스토킹’(13.9%) > ‘신상정보 유출’(13.3%) > ‘따돌림’(13.2%) > ‘성폭력’(13.1%) > ‘갈취’(12.7%) 순임
- 모든 사이버폭력 유형의 가해 경험률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함
- 가해 경험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고, 남성의 가해 경험률이 여성에 비해 높음

[그림 IV-2] 가해 유형별 경험률²¹⁾



[표 IV-2] 가해 유형별 경험률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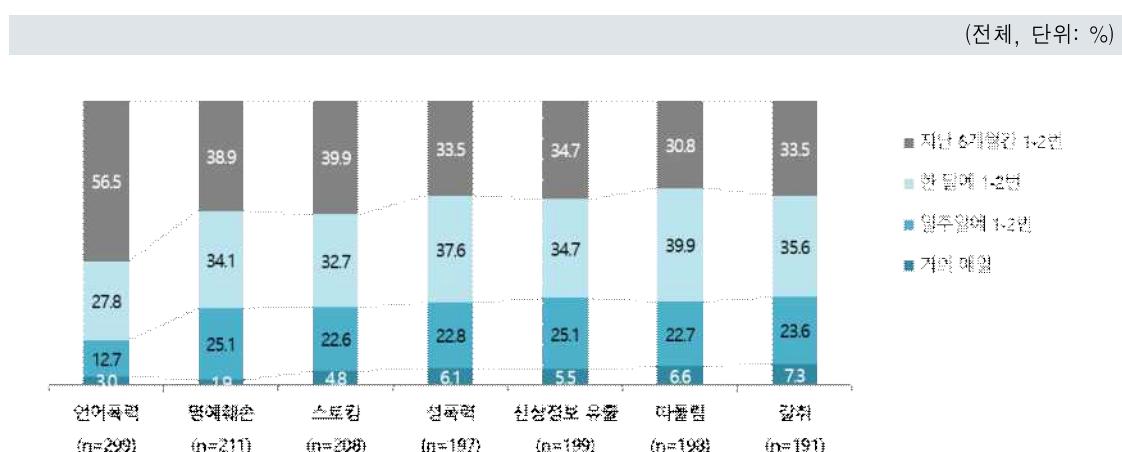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1500)	(326)	(347)	(410)	(417)	(769)	(731)
가해 유형	전체 가해 경험률	32.5	38.3	35.7	32.4	25.4	36.2
	언어폭력	19.9	27.3	21.6	20.0	12.7	23.7
	명예훼손	14.1	19.9	16.4	12.7	8.9	14.8
	따돌림	13.9	17.8	15.9	13.2	9.8	15.3
	스토킹	13.1	18.1	14.7	12.0	9.1	15.3
	신상정보 유출	13.3	19.9	15.0	11.2	8.6	15.6
	성폭력	13.2	19.0	16.1	11.2	8.2	15.1
	갈취	12.7	18.1	16.1	12.0	6.5	14.8
	강요	14.5	18.7	17.9	12.9	10.1	17.0

21) 2017년 사이버폭력 유형은 총 7개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이었으며, 2018년 이후 ‘강요’가 추가되어 총 8개 유형으로 측정

(2) 가해 유형별 빈도

- 가해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유형은 ‘갈취’, ‘따돌림’,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이며, ‘갈취’ 유형의 경우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음
- 가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언어폭력’의 경우 전체 폭력 유형 중 ‘지난 6개월간 1~2번’이라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아, 다른 가해 유형보다 발생 빈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 가해 유형별 빈도



[표 IV-3] 가해 유형별 빈도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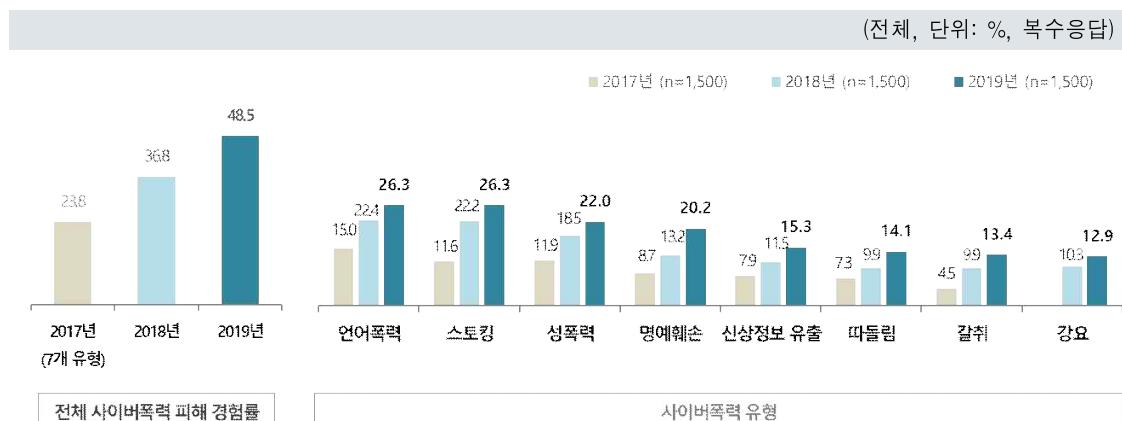
구분	가해 유형							
	언어 폭력	명예 훼손	따돌림	스토킹	강요	신상 정보 유출	성폭력	갈취
(사례수)	(299)	(211)	(208)	(197)	(199)	(198)	(191)	(218)
지난 6개월간 1~2번	56.5	38.9	39.9	33.5	34.7	30.8	33.5	43.6
한 달에 1~2번	27.8	34.1	32.7	37.6	34.7	39.9	35.6	33.0
일주일에 1~2번	12.7	25.1	22.6	22.8	25.1	22.7	23.6	18.3
거의 매일	3.0	1.9	4.8	6.1	5.5	6.6	7.3	5.0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3) 피해 유형별 경험률

-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언어폭력’과 ‘스토킹’이 각각 26.3%로 가장 높고, ‘성폭력’(22.0%) > ‘명예훼손’(20.2%) > ‘신상정보 유출’(15.3%) > ‘따돌림’(14.1%) > ‘갈취’(13.4%) > ‘강요’(12.9%)의 순서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피해 유형별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명예훼손’의 경험 비율이 전년 대비 큰 폭(7.0%p)으로 증가함

[그림 IV-4] 피해 유형별 경험률²²⁾



- 전반적으로 모든 사이버폭력 유형에서 20대의 경험률이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피해 경험률이 높음

[표 IV-4] 피해 유형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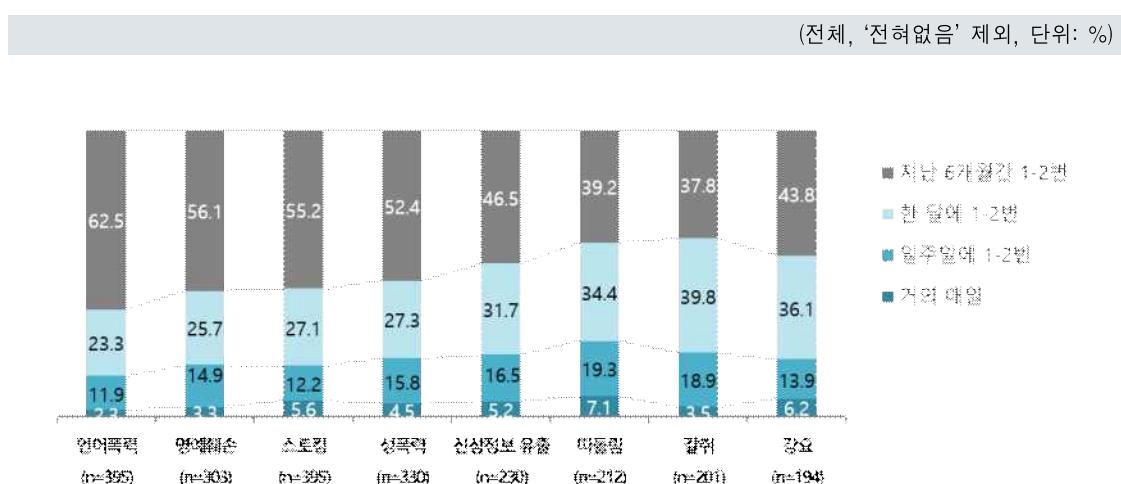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1,500)	(326)	(347)	(410)	(417)	(769)	(731)
피해 유형	전체 피해 경험률	48.5	51.2	49.9	50.2	43.4	52.4
	언어폭력	26.3	34.0	31.4	24.9	17.5	29.4
	명예훼손	20.2	24.2	23.1	18.0	16.8	23.8
	스토킹	26.3	28.2	26.8	27.8	23.0	26.8
	성폭력	22.0	23.0	21.9	21.7	21.6	24.4
	신상정보 유출	15.3	20.6	18.2	13.2	11.0	18.5
	따돌림	14.1	20.2	15.9	12.0	10.1	16.4
	갈취	13.4	20.2	16.1	11.5	7.7	15.7
	강요	12.9	18.4	15.9	10.7	8.4	15.9

22) 2017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7개 유형

(4) 피해 유형별 빈도

- 전체 유형 중 ‘따돌림’의 피해 빈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따돌림’, ‘갈취’를 ‘일주일에 1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각각 26.4%, 22.4%로 가장 많음
- ‘언어폭력’은 나머지 유형보다 피해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지난 6개월간 1~2번’ 피해 경험 62.5%)

[그림 IV-5] 피해 유형별 빈도



[표 IV-5] 피해 유형별 빈도

(전체, ‘전혀없음 제외’, 단위: %)

구분	피해 유형							
	언어 폭력	명예 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사례수)	(395)	(303)	(395)	(330)	(230)	(212)	(201)	(194)
지난 6개월간 1-2번	62.5	56.1	55.2	52.4	46.5	39.2	37.8	43.8
한 달에 1-2번	23.3	25.7	27.1	27.3	31.7	34.4	39.8	36.1
일주일에 1-2번	11.9	14.9	12.2	15.8	16.5	19.3	18.9	13.9
거의 매일	2.3	3.3	5.6	4.5	5.2	7.1	3.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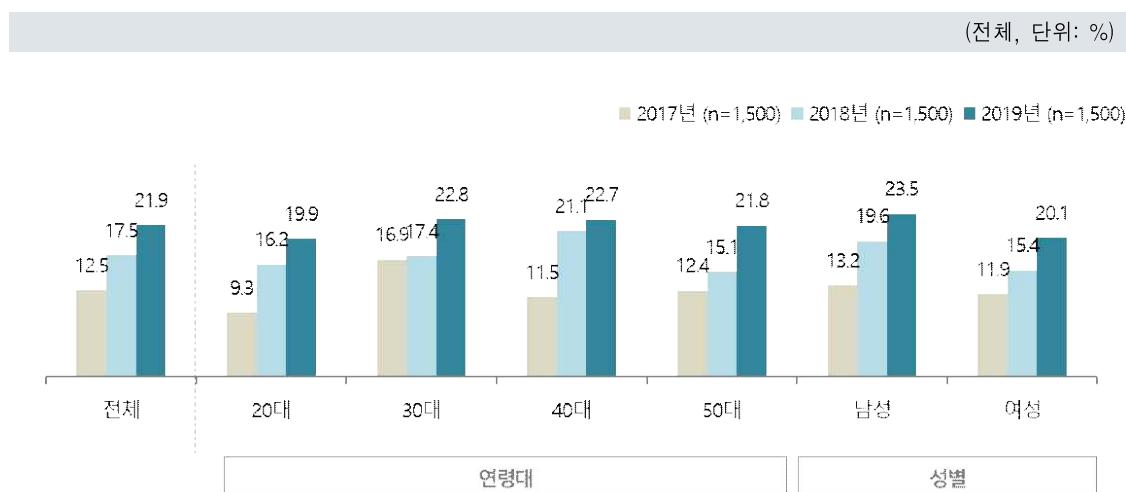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다. 목격 현황

(1) 목격 현황

- 조사에 응답한 성인의 21.9%가 최근 1년 이내에 주변에서 사이버폭력(가해 또는 피해 상황)을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함(전년 대비 목격 경험률 4.4%p 증가)
-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30대, 40대의 목격 경험률이 각각 22.8%, 22.7%로 가장 높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목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IV-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표 IV-6]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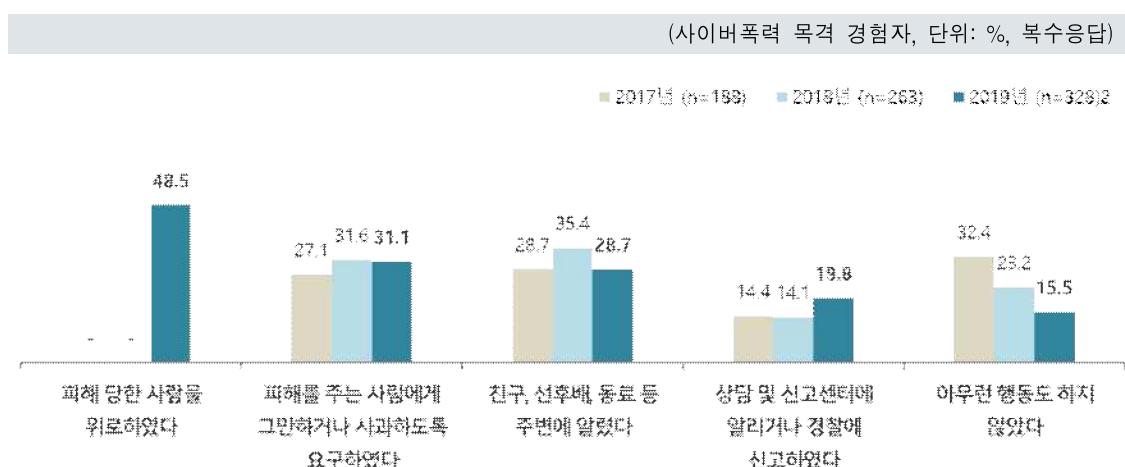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1,500)	(326)	(347)	(410)	(417)	(769)	(731)
본 적 있음	21.9	19.9	22.8	22.7	21.8	23.5	20.1
본 적 없음	78.1	80.1	77.2	77.3	78.2	76.5	79.9

(2) 목격 후 대응

- 사이버폭력 목격 후 ‘피해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가 48.5%로 가장 많고²³⁾,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31.1%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임
-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7] 목격 후 대응



[표 IV-7] 목격 후 대응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전체 (328)	연령대별				성별	
		20대 (65)	30대 (79)	40대 (93)	50대 (91)	남성 (181)	여성 (147)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	48.5	67.7	49.4	38.7	44.0	44.8	53.1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31.1	30.8	25.3	37.6	29.7	32.0	29.9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주변에 알렸다	28.7	23.1	32.9	28.0	29.7	29.8	27.2
상담 및 신고센터(경찰 사이버 수사대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19.8	26.2	19.0	16.1	19.8	19.9	19.7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15.5	12.3	13.9	16.1	18.7	16.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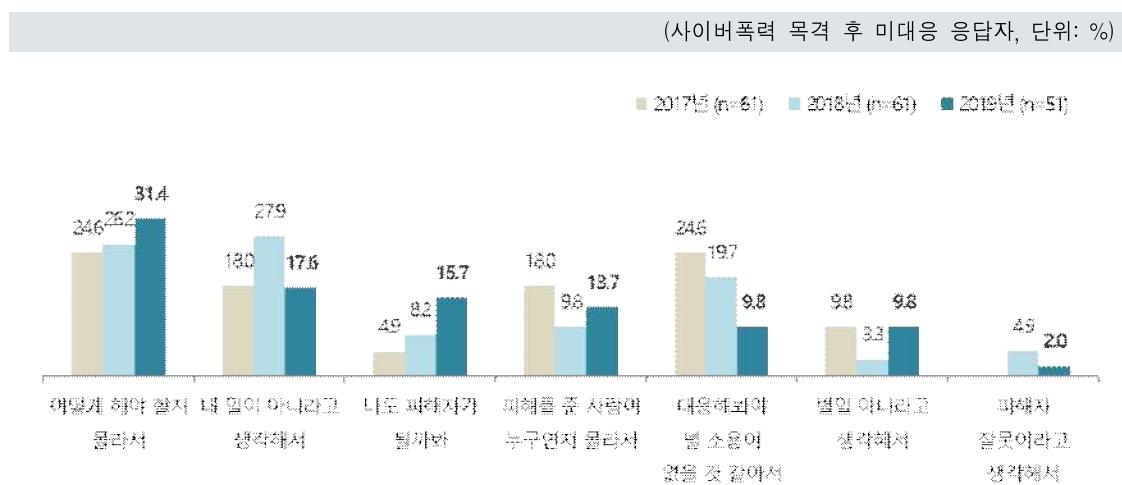
23) 2019년 조사 진행 시 보기 문항 ‘피해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를 새롭게 추가함.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3) 목격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²⁴⁾

- 사이버폭력 상황을 목격한 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31.4%로 가장 많음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는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대응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는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함

[그림 IV-8] 목격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표 IV-8] 목격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사이버폭력 목격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51)	(8)	(11)	(15)	(17)	(29)	(22)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31.4	25.0	36.4	33.3	29.4	31.0	31.8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17.6	12.5	18.2	20.0	17.6	17.2	18.2
나도 피해자가 될까 봐	15.7	12.5	27.3	13.3	11.8	17.2	13.6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13.7	12.5	9.1	13.3	17.6	13.8	13.6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9.8	12.5	0.0	6.7	17.6	10.3	9.1
대응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9.8	25.0	9.1	6.7	5.9	10.3	9.1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2.0	0.0	0.0	6.7	0.0	0.0	4.5

24) 총 사례 수는 51명이며, 연령대별/성별 사례 수가 각각 25명 미만인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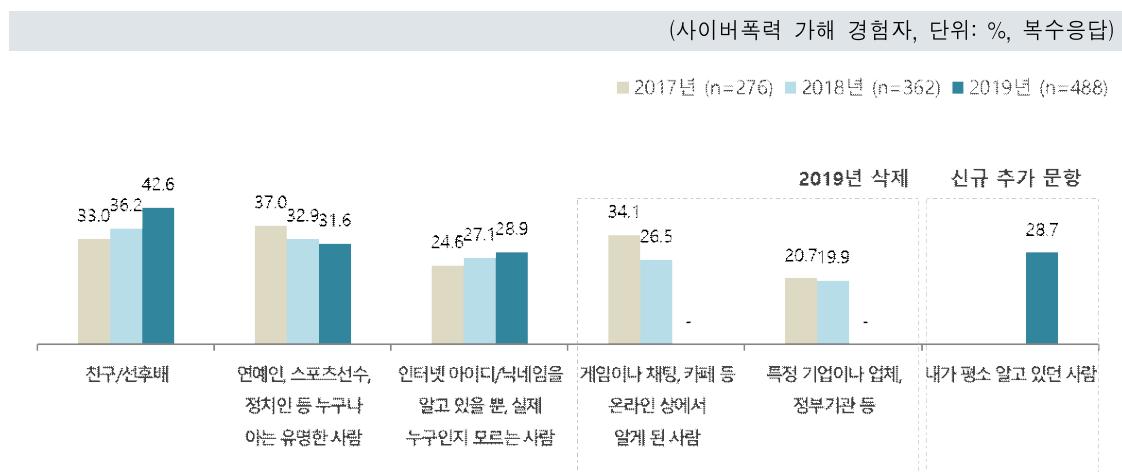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특성

가. 가해 행태

(1) 가해 대상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들 42.6%는 ‘친구 또는 선·후배’를 대상으로 가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1.6%는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친구/선·후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 대상 가해 행위는 감소함
- 여성의 경우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IV-9] 가해 대상



[표 IV-9] 가해 대상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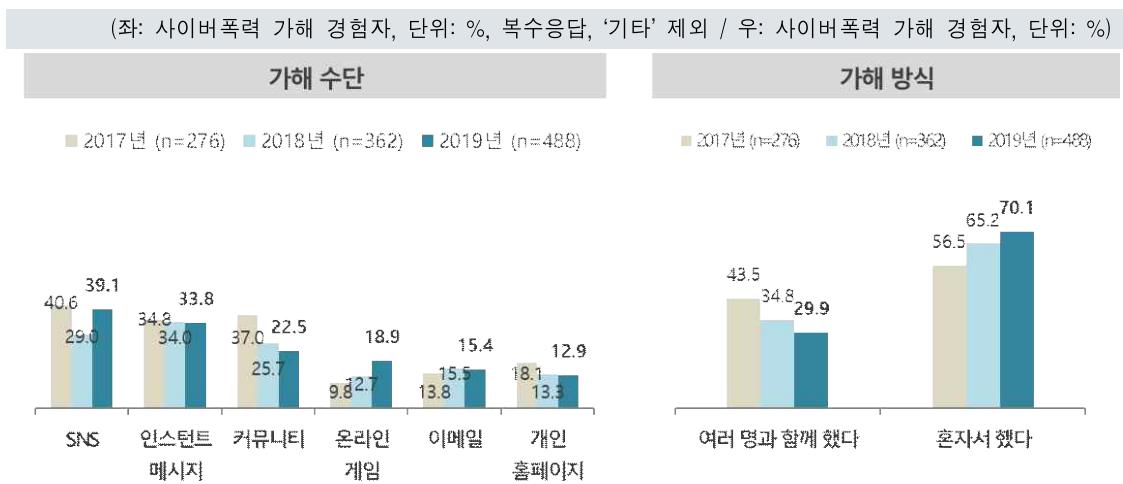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488)	(125)	(124)	(133)	(106)	(278)	(210)
친구/선·후배 (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42.6	41.6	40.3	42.1	47.2	44.2	40.5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31.6	30.4	44.4	23.3	28.3	33.1	29.5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28.9	35.2	29.0	25.6	25.5	31.7	25.2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28.7	31.2	29.8	29.3	23.6	26.3	31.9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2) 가해 수단 및 방식

- 가해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은 ‘SNS’(39.1%)와 ‘인스턴트 메시지’(33.8%)임. 그 외 ‘커뮤니티’(22.5%)와 ‘온라인 게임’(18.9%)에서도 가해 행동을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게임’에서 가해 행위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40~50대는 ‘인스턴트 메시지’가 높음
- 가해 방식은 ‘혼자서 했다’는 응답이 70.1%로 ‘여러 명과 함께 했다’는 비율보다 높음

[그림 IV-10] 가해 수단 및 가해 방식



[표 IV-10] 가해 수단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488)	(125)	(124)	(133)	(106)	(278)	(210)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39.1	35.2	41.9	37.6	42.5	42.1	35.2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33.8	24.8	31.5	39.8	39.6	30.2	38.6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22.5	23.2	29.0	20.3	17.0	24.1	20.5
온라인 게임	18.9	25.6	18.5	20.3	9.4	23.4	12.9
이메일	15.4	17.6	15.3	15.8	12.3	15.8	14.8
개인 홈페이지	12.9	15.2	18.5	4.5	14.2	11.2	15.2

[표 IV-11] 가해 방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488)	(125)	(124)	(133)	(106)	(278)	(210)
여러 명과 함께 했다	29.9	38.4	32.3	27.8	19.8	29.1	31.0
혼자서 했다	70.1	61.6	67.7	72.2	80.2	70.9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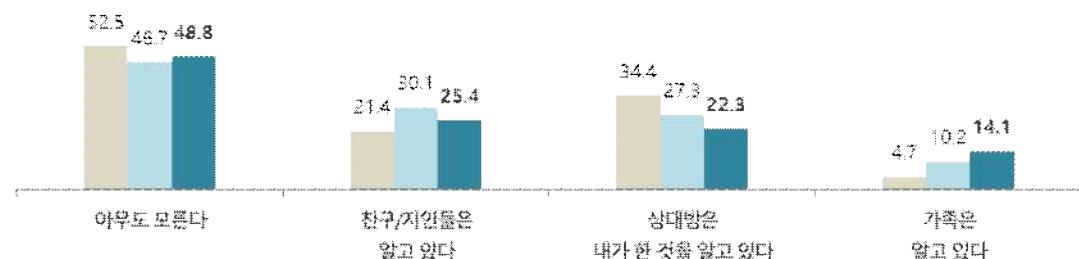
(3) 가해 사실 주변 인지

- 응답자 본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에 대하여 주변에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25.4%), ‘상대방은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22.3%)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구나 지인’에게 본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알리는 경우가 많음

[그림 IV-11] 가해 사실 주변 인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 2017년 (n=276) ■ 2018년 (n=362) ■ 2019년 (n=488)



[표 IV-12] 가해 사실 주변 인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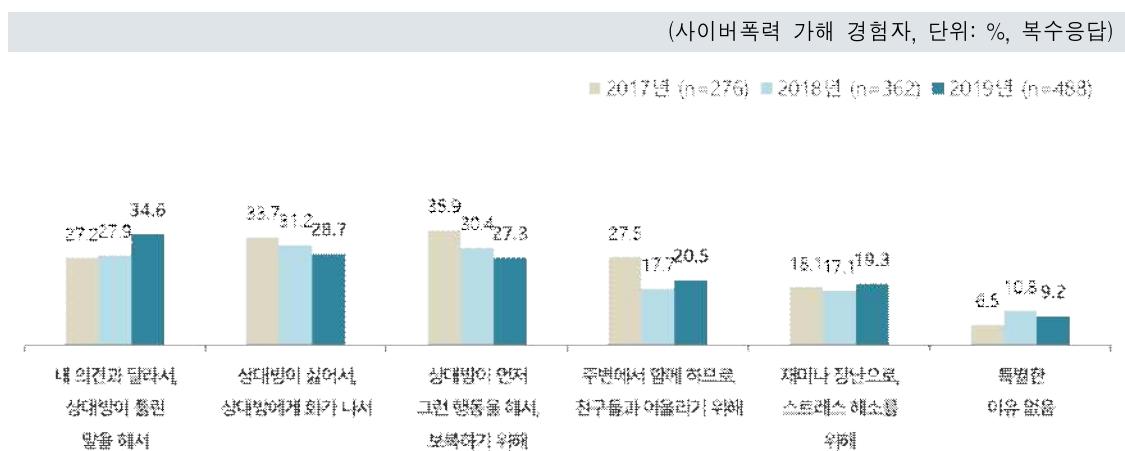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488)	(125)	(124)	(133)	(106)	(278)	(210)
아무도 모른다	48.8	40.0	46.8	51.9	57.5	49.6	47.6
친구/지인들이 알고 있다	25.4	29.6	27.4	20.3	24.5	21.9	30.0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22.3	24.8	25.0	22.6	16.0	24.5	19.5
가족이 알고 있다	14.1	16.8	16.9	11.3	11.3	15.1	12.9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4) 가해 이유

- 가해 이유는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34.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28.7%),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서’(2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가 6.7%p 상승하였고,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나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에서는 각각 2.5%p, 3.1%p로 하락함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나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해 행동을 한 경우가 높음

[그림 IV-12] 가해 이유



[표 IV-13] 가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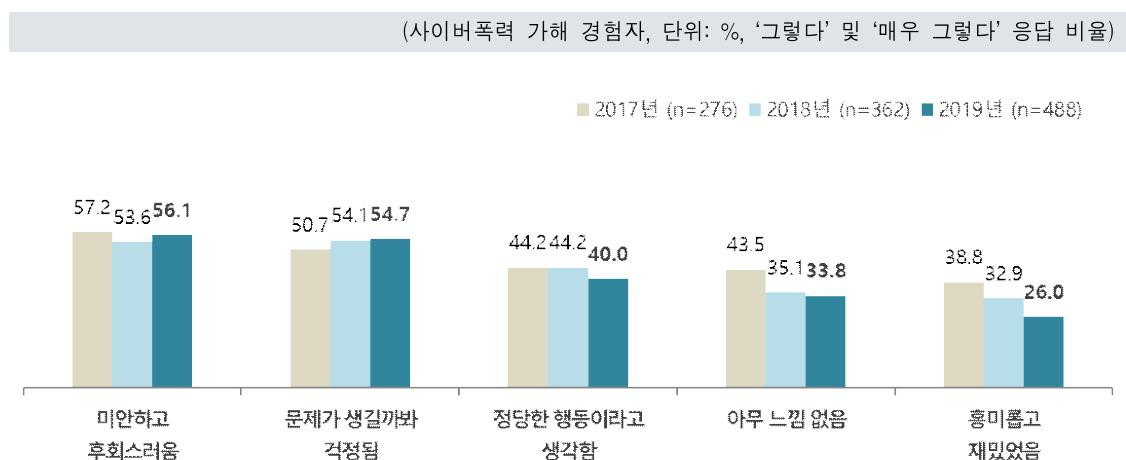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488)	(125)	(124)	(133)	(106)	(278)	(210)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34.6	28.0	36.3	35.3	39.6	34.5	34.8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28.7	38.4	27.4	25.6	22.6	28.1	29.5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27.3	27.2	29.0	30.1	21.7	29.9	23.8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20.5	19.2	26.6	16.5	19.8	21.9	18.6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9.3	22.4	21.0	15.8	17.9	23.7	13.3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9.2	9.6	8.9	7.5	11.3	7.2	11.9

(5) 가해 후 심리

-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 경험자는 가해 후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미안함/후회스러움’(56.1%)과 ‘걱정’(54.7%)임.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 ‘아무 느낌 없음’, ‘흥미롭고 재미있음’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20~40%로 집계됨
- 전년 대비 전반적인 응답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문제 생길까 봐 걱정됨’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임
- 연령대별로는 50대의 ‘미안함/후회스러움’과 ‘걱정’에 대한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정당한 행동’, ‘아무 느낌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임

[그림 IV-13] 가해 후 심리



[표 IV-14] 가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488)	(125)	(124)	(133)	(106)	(278)	(210)
미안하고 후회스러움	56.1	53.6	54.0	57.1	60.4	54.3	58.6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됨	54.7	52.8	55.6	49.6	62.3	55.0	54.3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함	40.0	42.4	43.5	38.3	34.9	41.4	38.1
아무 느낌 없었음	33.8	36.0	41.1	32.3	24.5	34.9	32.4
흥미롭고 재밌었음	26.0	30.4	28.2	23.3	21.7	28.4	22.9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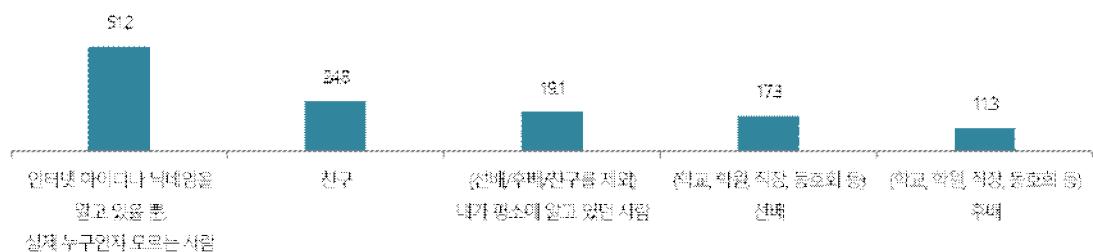
나. 피해 행태

(1) 가해 주체²⁵⁾

- 20~50대 성인 중 최근 1년 이내에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해 주체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 알고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음
-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음

[그림 IV-14] 가해 주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표 IV-15] 가해 주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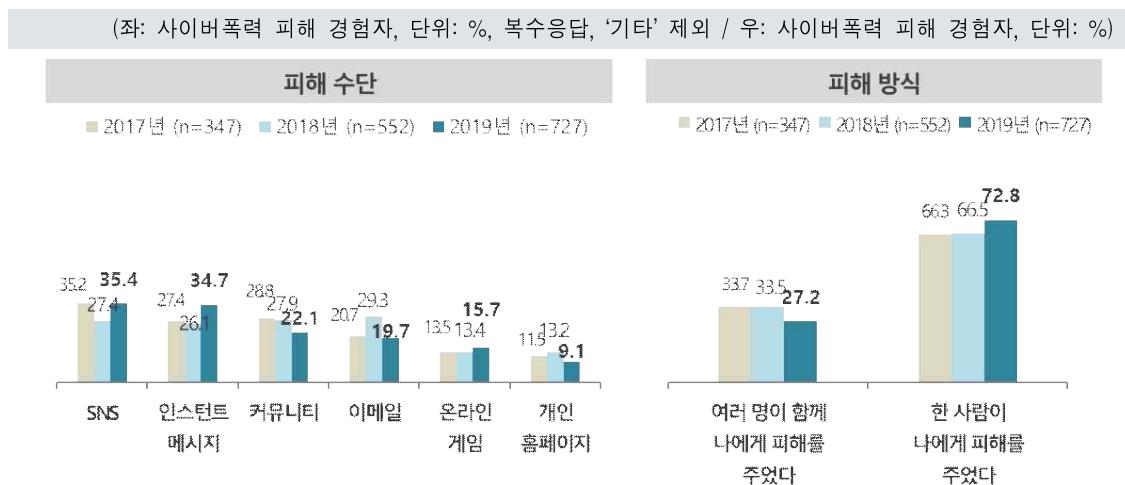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727)	(167)	(173)	(206)	(181)	(403)	(324)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51.2	53.3	51.4	51.5	48.6	49.6	53.1
친구	24.8	29.9	26.0	19.4	24.9	24.8	24.7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19.1	18.0	18.5	20.9	18.8	18.6	19.8
선배 (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17.3	17.4	23.7	13.1	16.0	19.4	14.8
후배 (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11.3	13.8	12.7	11.2	7.7	13.2	9.0

25) 2019년 보기가 변경되어 2018년과 비교분석하지 않음

(2) 피해 수단 및 방식

-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수단은 온라인 공간 중 ‘SNS’(35.4%), ‘인스턴트 메시지’(34.7%), ‘커뮤니티’(22.1%), ‘이메일’(19.7%), ‘온라인 게임’(15.7%), ‘개인 홈페이지’(9.1%) 순임
-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인스턴트 메시지’ 응답률이 42.5%로 전 연령대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SNS’가 상대적으로 높음
- 피해 방식으로는 ‘여러 명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27.2%)보다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72.8%)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그림 IV-15] 피해 수단 및 피해 방식



[표 IV-16] 피해 수단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727)	(167)	(173)	(206)	(181)	(403)	(324)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35.4	41.9	34.7	29.1	37.0	33.7	37.3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34.7	25.7	37.6	32.5	42.5	34.0	35.5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22.1	17.4	27.7	24.3	18.8	23.8	20.1
이메일	19.7	15.0	19.1	24.3	19.3	19.6	19.8
온라인 게임	15.7	24.6	17.3	14.6	7.2	19.9	10.5
개인 홈페이지	9.1	15.6	11.0	7.3	3.3	9.7	8.3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표 IV-17] 피해 방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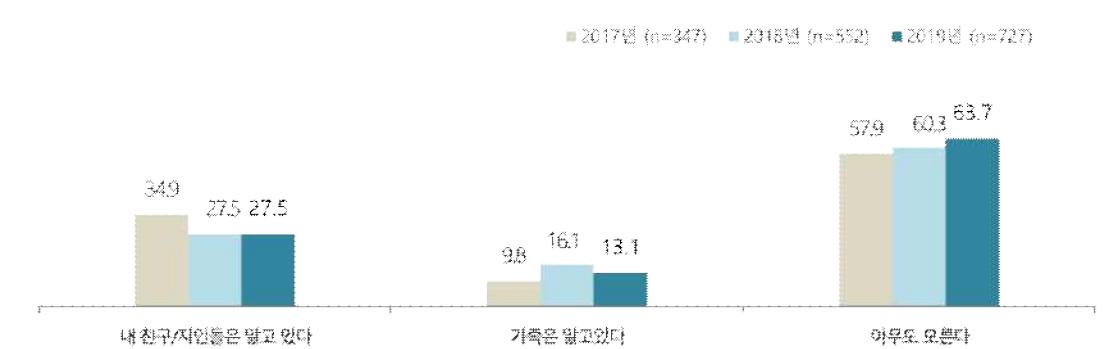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727)	(167)	(173)	(206)	(181)	(403)	(324)
여러 명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27.2	28.7	31.8	27.2	21.5	27.3	27.2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72.8	71.3	68.2	72.8	78.5	72.7	72.8

(3) 피해 사실 주변 인지

- 본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주변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 63.7%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응답자 중 27.5%는 ‘내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3.1%는 ‘가족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그림 IV-16] 피해 사실 주변인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표 IV-18] 피해 사실 주변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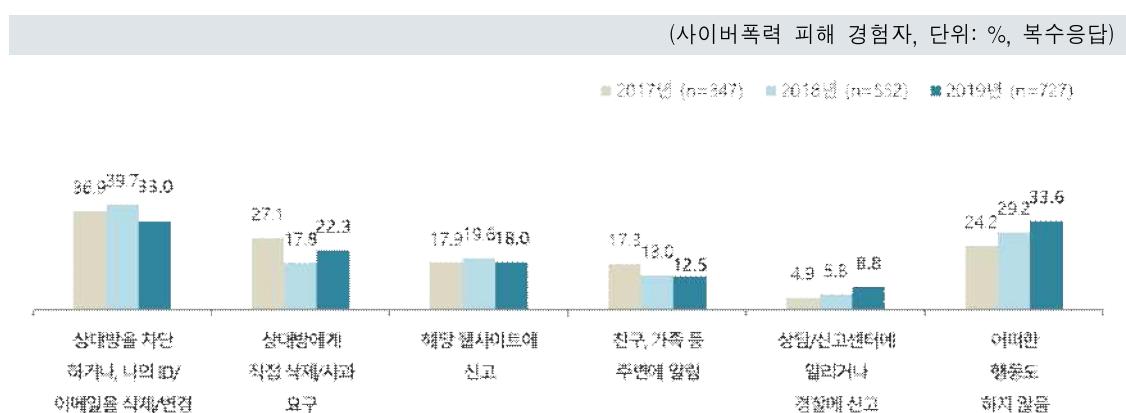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727)	(167)	(173)	(206)	(181)	(403)	(324)
내 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	27.5	33.5	25.4	27.7	23.8	26.8	28.4
가족은 알고 있다	13.1	18.0	15.6	10.2	9.4	12.2	14.2
아무도 모른다	63.7	55.1	64.7	64.6	69.6	66.3	60.5

(4) 피해 후 대응

- 피해 후 대응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이메일을 삭제/변경’하는 경우가 33.0%로 가장 많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3.6%임
- 전년에 비해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이메일을 삭제/변경’은 6.7%p 하락하였고,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사과요구’하거나 ‘상담/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각각 4.5%p, 3.0%p씩 증가함
- 50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이 42.0%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그림 IV-17] 피해 후 대응



[표 IV-19] 피해 후 대응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727)	(167)	(173)	(206)	(181)	(403)	(324)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나 이메일을 삭제/변경	33.0	28.1	32.4	36.9	33.7	31.3	35.2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사과 요구	22.3	22.2	27.7	18.9	21.0	22.1	22.5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	18.0	28.1	16.2	17.5	11.0	19.1	16.7
친구, 가족, 교수님, 동료 등 주변에 알림	12.5	16.2	17.3	10.7	6.6	12.9	12.0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	8.8	12.0	9.8	8.7	5.0	10.7	6.5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	33.6	26.3	34.1	31.6	42.0	33.5	33.6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5) 피해 후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5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44.3%로 나타남
- 30대와 40대는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59.3%,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와 50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각각 63.6%, 57.9%로 나타남
- 남성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54.1%로 가장 높고, 여성은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49.5%로 가장 높음

[그림 IV-18] 피해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표 IV-20] 피해 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사이버폭력 피해 후 미대응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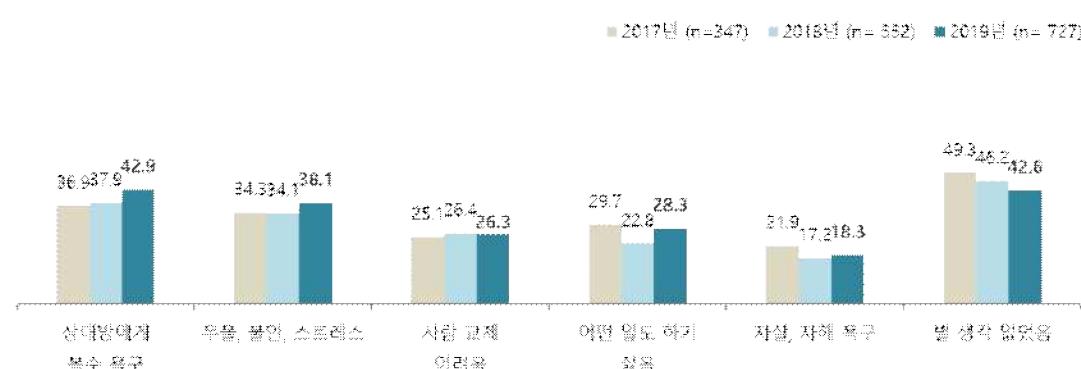
구분	전체 (사례수)	연령대별				성별	
		20대 (244)	30대 (44)	40대 (59)	50대 (65)	남성 (135)	여성 (109)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50.0	63.6	45.8	35.4	57.9	54.1	45.0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44.3	45.5	59.3	41.5	34.2	40.0	49.5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15.2	13.6	13.6	16.9	15.8	10.4	21.1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9.4	11.4	13.6	6.2	7.9	7.4	11.9
주위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4.9	4.5	1.7	7.7	5.3	5.2	4.6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4.9	4.5	8.5	7.7	0.0	4.4	5.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3.3	2.3	5.1	1.5	3.9	4.4	1.8

(6) 피해 후 심리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10명 중 3~4명은 상대방에 대한 ‘복수’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자살, 자해 욕구’를 느끼는 경우도 18.3%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후 심리적인 피해를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9]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표 IV-21]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단위: %,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구분	전체	연령대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사례수)	(727)	(167)	(173)	(206)	(181)	(403)	(324)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	42.9	43.7	42.2	44.7	40.9	41.7	44.4
우울, 불안, 스트레스	38.1	40.7	34.1	36.9	40.9	36.5	40.1
학교/직장/가사 등 어떤 일도 하기 싫었음	28.3	36.5	26.0	26.2	25.4	25.8	31.5
사람 교제 어려움	26.3	26.9	27.7	25.2	25.4	26.1	26.5
자살, 자해 욕구	18.3	21.6	20.2	17.5	14.4	18.9	17.6
별 생각 들지 않음	42.6	43.1	38.2	43.2	45.9	45.2	39.5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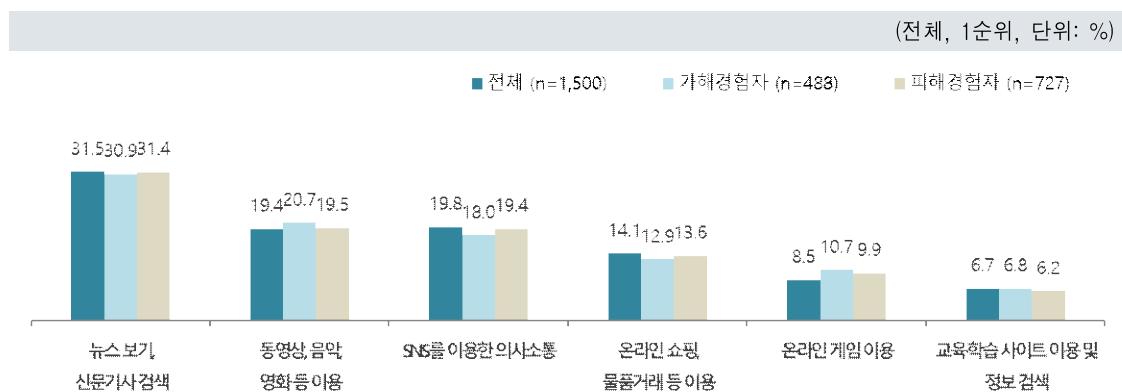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원인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1)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 응답자의 31.4%는 평상시 PC,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뉴스보기, 신문기사 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자 모두 ‘뉴스보기, 신문기사 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해 경험자는 ‘뉴스보기, 신문기사 검색’(30.9%) > ‘동영상, 음악, 영화’(20.7%) >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18.0%) 순
 - 피해 경험자는 ‘뉴스보기, 신문기사 검색’(31.4%) > ‘동영상, 음악, 영화’(19.5%) >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19.4%) 순

[그림 IV-20] 사이버폭력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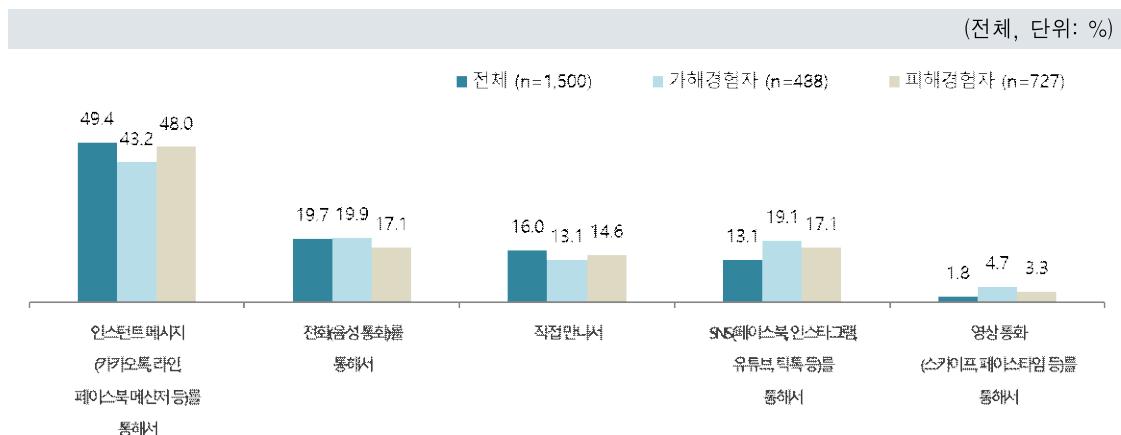
[그림 IV-21] 사이버폭력 경험별 인터넷 주 이용 서비스

구분	전체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비경험자	경험자	비경험자
(사례수)	(1,500)	(488)	(1,012)	(727)	(773)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31.5	30.9	31.8	31.4	31.7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이용	19.4	20.7	18.8	19.5	19.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이용	19.8	18.0	20.7	19.4	20.2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14.1	12.9	14.7	13.6	14.6
온라인 게임 이용	8.5	10.7	7.4	9.9	7.1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정보 검색	6.7	6.8	6.6	6.2	7.1

(2) 선호하는 소통방식별 사이버폭력 경험

- 성인들의 선호하는 소통방식은 ‘인스턴트 메시지’(49.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경험별로 살펴보면, 가해 및 피해 경험자 모두 소통방식으로 ‘인스턴트 메시지’를 가장 선호함
 - 가해 경험자는 ‘인스턴트 메시지’(43.2%) > ‘전화’(19.9%) > ‘직접 만나서’(13.1%) 순
 - 피해 경험자는 ‘인스턴트 메시지’(48.0%) > ‘전화’(17.1%) > ‘직접 만나서’(14.6%) 순

[그림 IV-22] 선호 소통방식별 사이버폭력 경험



[표 IV-22] 선호 소통별 사이버폭력 경험

(전체, ‘기타’응답 제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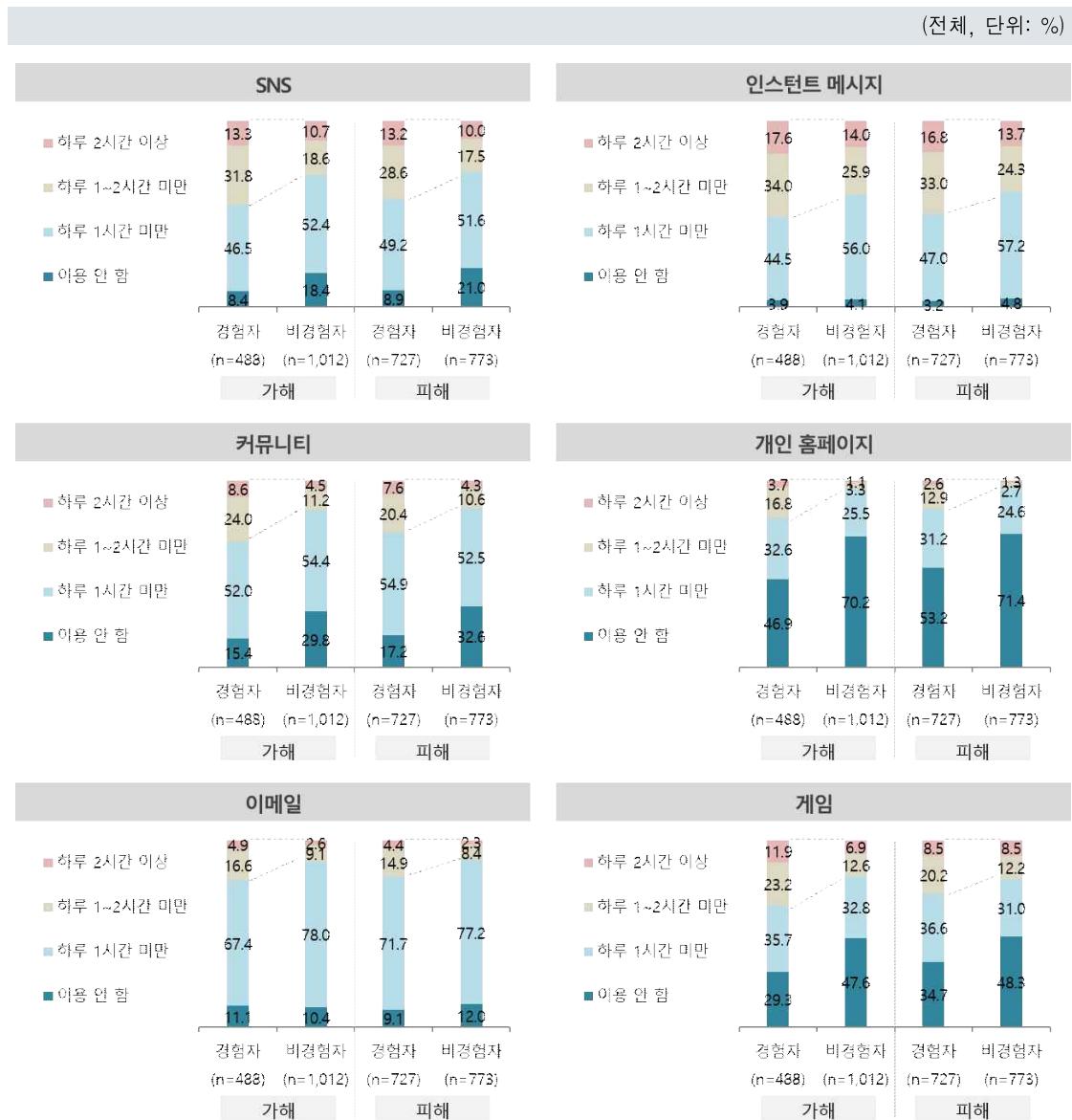
구분	전체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	비경험자	경험자	비경험자
(사례수)	(1,500)	(488)	(1,012)	(727)	(773)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49.4	43.2	52.4	48.0	50.7
전화(음성 통화)	19.7	19.9	19.7	17.1	22.3
직접 만나서	16.0	13.1	17.4	14.6	17.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3.1	19.1	10.2	17.1	9.3
영상통화(스카이프, 페이스타임 등)를 통해서	1.8	4.7	0.4	3.3	0.4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3)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간

-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자는 ‘SNS’, ‘인스턴트 메시지’, ‘게임’의 이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없는 성인들보다 이용 시간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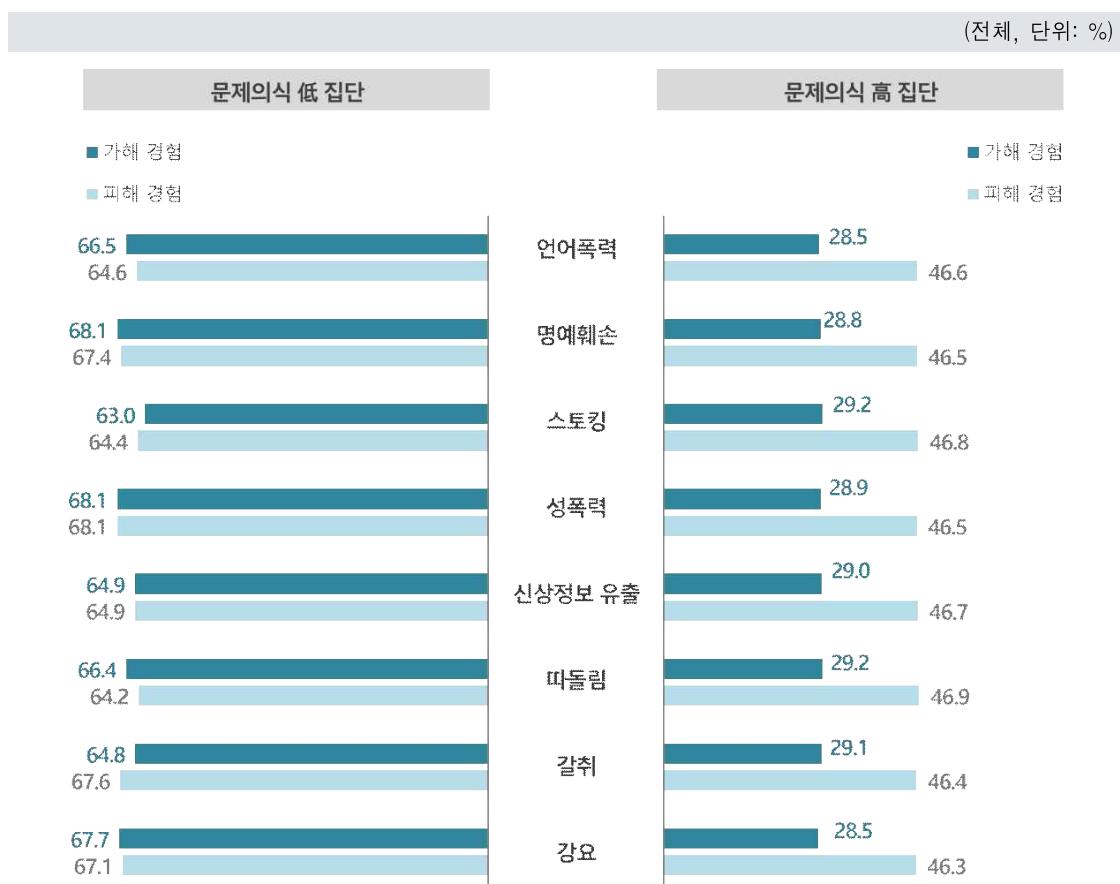
[그림 IV-2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4)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높은 집단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30%이고, 문제의식이 낮은 집단은 약 2배에 달하는 60%대의 가해 경험률을 보임
- 문제의식이 높은 집단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문제의식이 낮은 집단의 피해 경험률보다 낫음

[그림 IV-24] 폭력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별 사이버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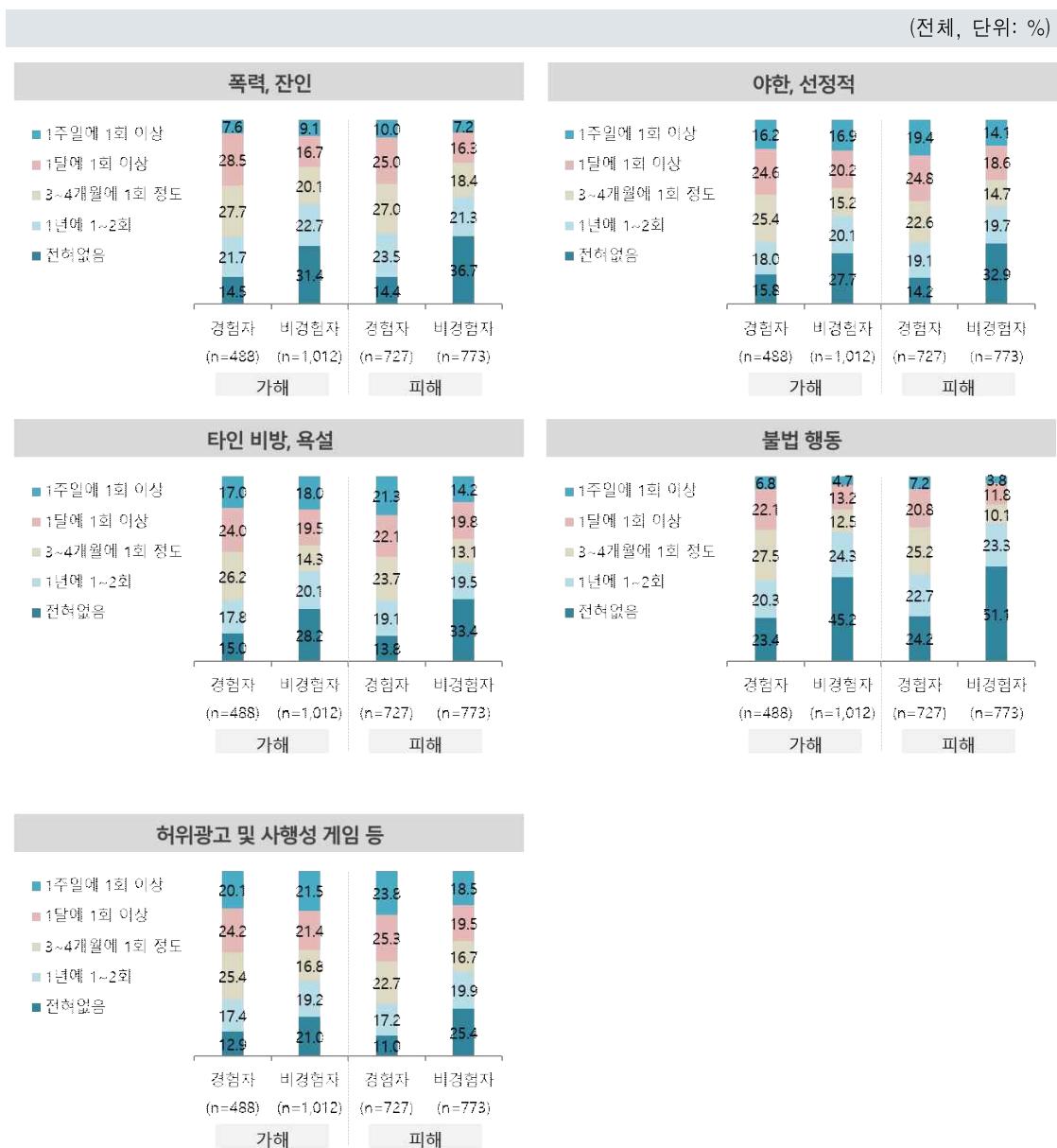
* 문제의식 고집단 정의 :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문제가 된다(3점 또는 4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5개 이상인 집단
문제의식 저집단 정의 :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문제가 안된다(1점 또는 2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4개 이하인 집단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5)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은 콘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사이버폭력 경험이 없는 성인들에 비해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가 많음

[그림 IV-25] 유해콘텐츠 접촉빈도별 사이버폭력 경험



나. 사회·심리 환경요인별

(1) 개인 심리요인

- ‘자아존중감’, ‘공감능력’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낮고, ‘공격성’과 ‘충동성’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낮음

[그림 IV-26] 개인 심리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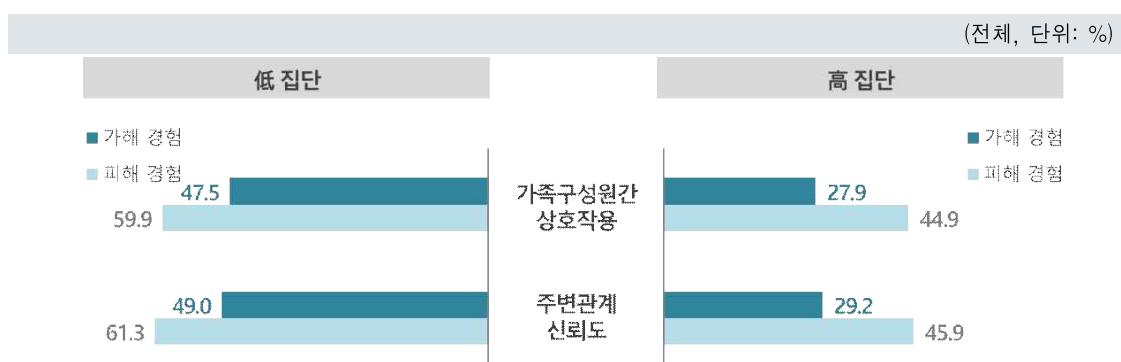
* 高집단 정의 : 개인 심리요인별 ‘그렇다(3점 또는 4점)’라고 응답한 집단

低집단 정의 : 개인 심리요인별 ‘그렇지 않다(1점 또는 2점)’라고 응답한 집단

(2) 대인관계 요인

- 평소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집단의 경우 가해 경험이 27.9%이고, 상호작용이 저조한 집단은 47.5%로 가해 경험률이 높음
- 주변인들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가해 경험률이 49.0%이고, 피해 경험률이 61.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IV-27] 대인관계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 高집단 정의 :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교우관계 신뢰도별 ‘그렇다(3점 또는 4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2개 이상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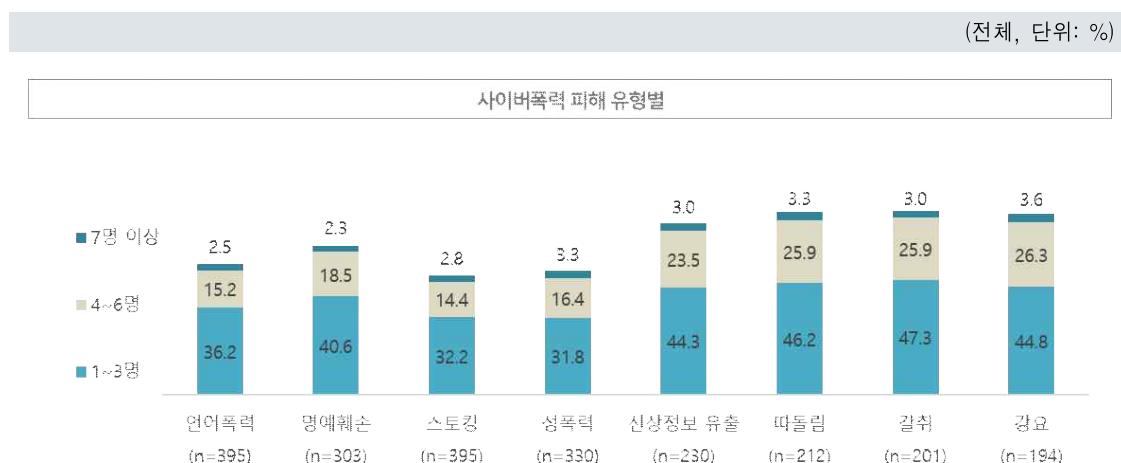
低집단 정의 :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교우관계 신뢰도별개인 ‘그렇지 않다(1점 또는 2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1개 이하인 집단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3) 사이버폭력 노출 환경

-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 채팅, 문자, SNS, 게시판 등에서 친구나 선·후배/동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수를 확인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 중 ‘신상정보 유출’나 ‘따돌림’, ‘갈취’, ‘강요’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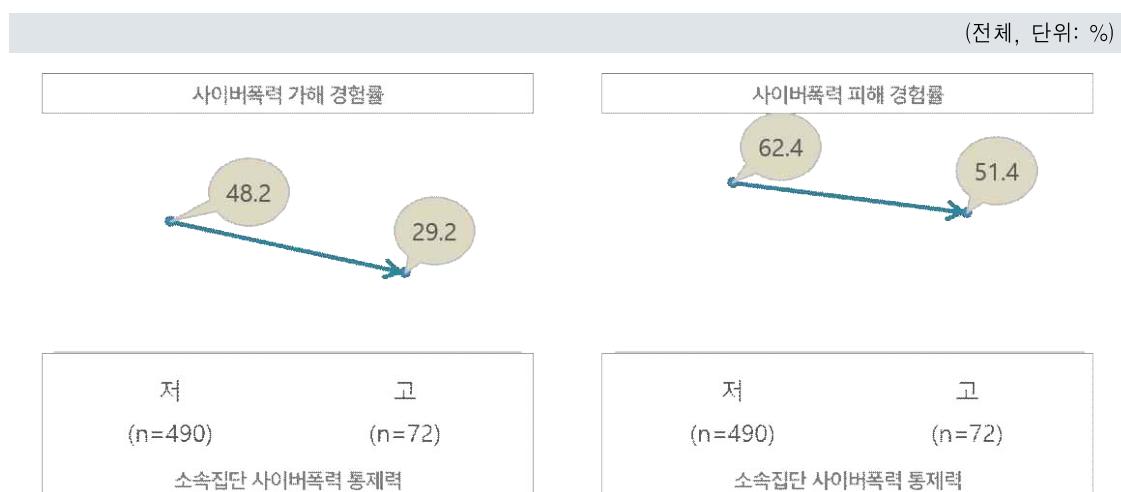
[그림 IV-28]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별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수



(4)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

- 응답자가 소속된 직장이나 학교, 단체 등에서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 활동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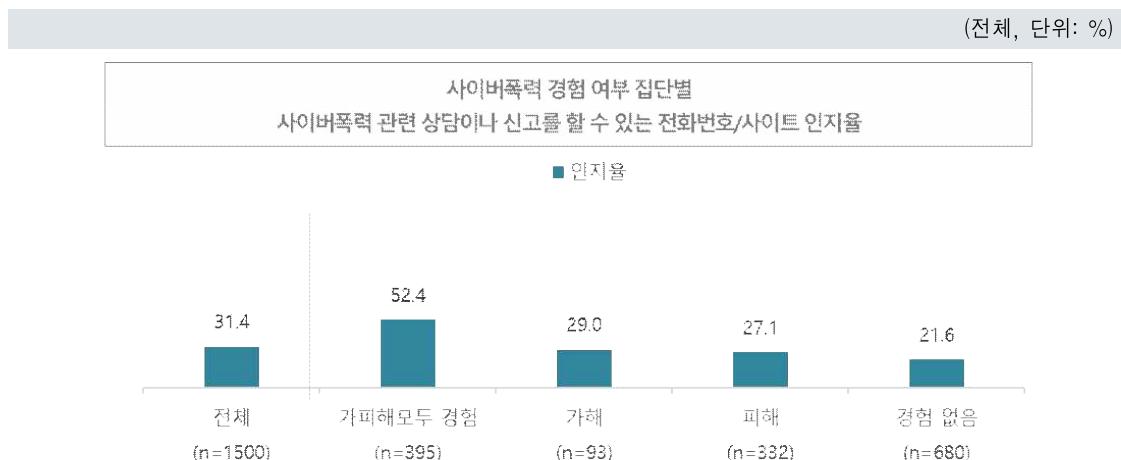
[그림 IV-29] 사이버폭력 통제 환경에 따른 사이버폭력 경험



(5) 사이버폭력 자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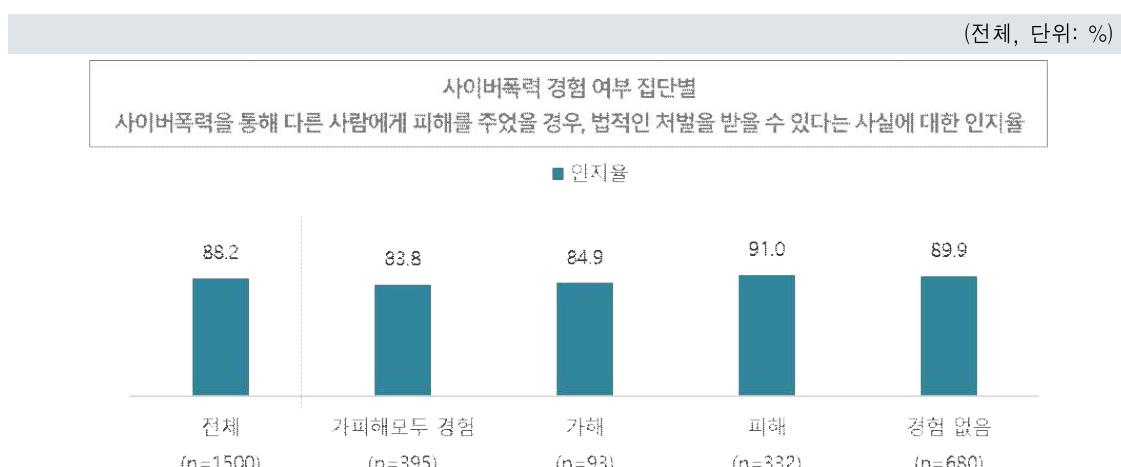
-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처를 알고 있는 경우 전체 31.4%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해 및 피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에서 가장 높고, 경험이 없는 집단은 21.6%로 가장 낮음

[그림 IV-30]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이나 신고처 인지율



-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88.2%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별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83.8%로 가장 낮음

[그림 IV-31] 사이버폭력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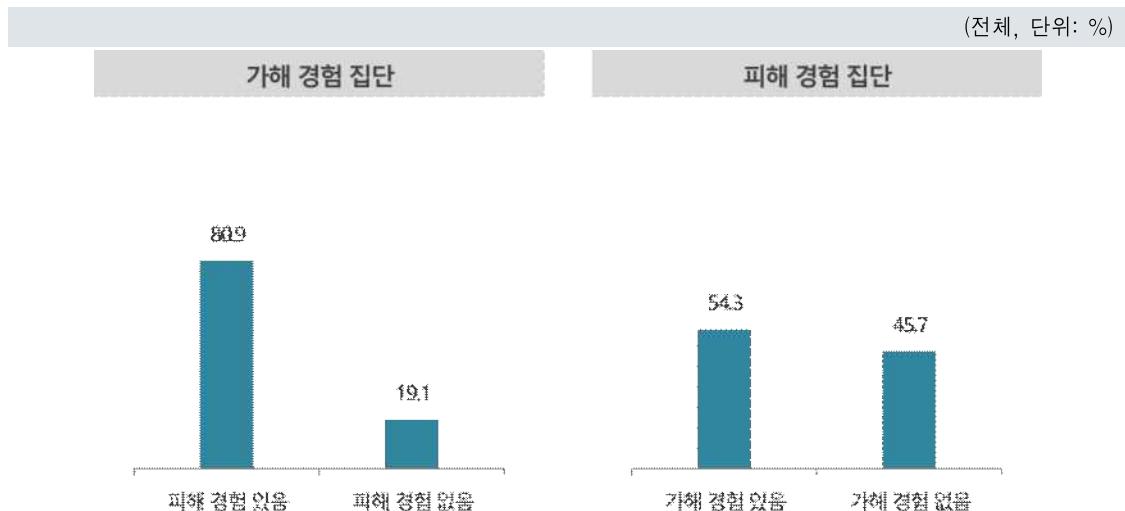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상관성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 중 80.9%가 피해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자의 54.3%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2]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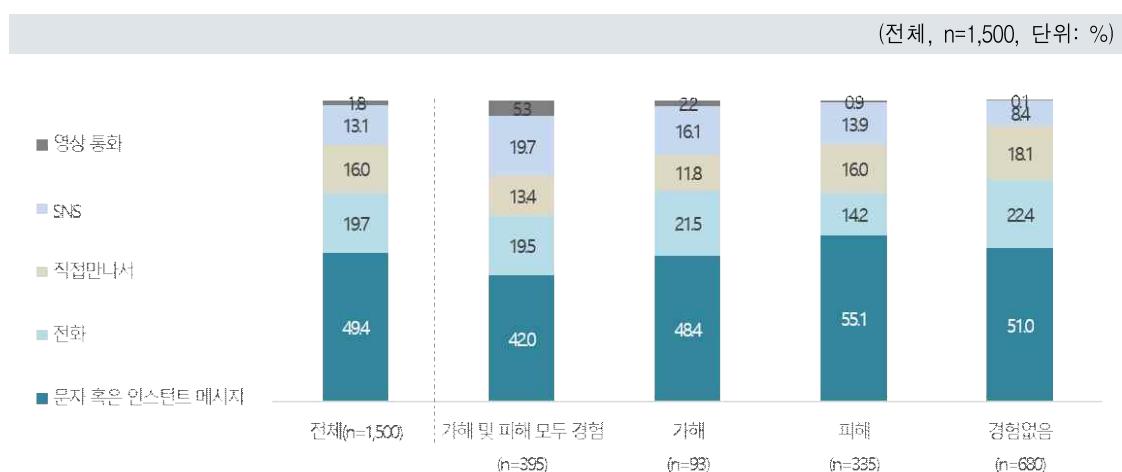
4. 성인의 디지털 생활

가. 성인의 SNS 이용과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

(1) 선호 소통방식

- 성인들은 소통방식으로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전화, 직접 만나서, SNS, 영상통화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이 직장인(57.3%)이며,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보다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선호함
- 성인들은 사이버폭력 경험과 상관없이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3] 선호 소통방식



[표 IV-23] 선호 소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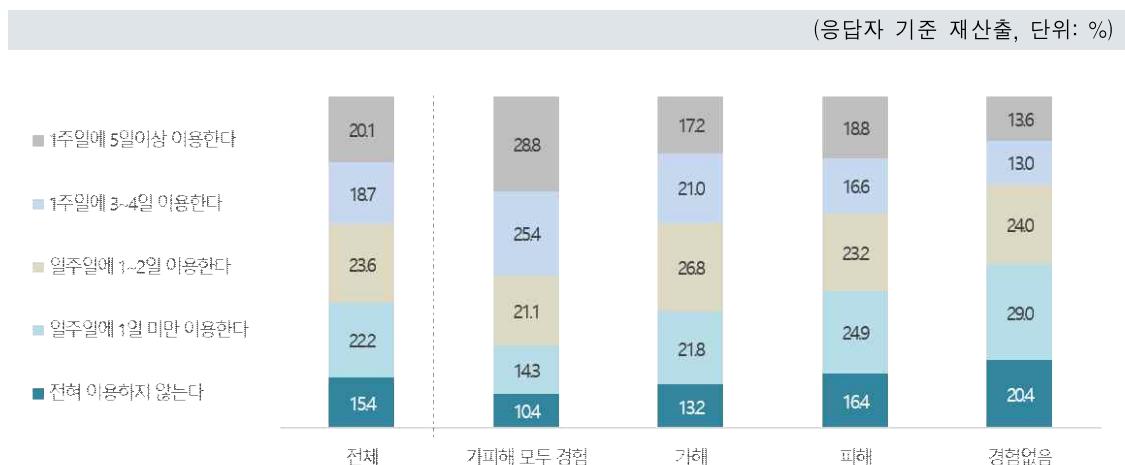
구분	전체	집단별			
		기해 및 피해 경험	기해 경험	피해 경험	경험없음
(사례수)	(1500)	(395)	(93)	(332)	(680)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	49.4	42.0	48.4	55.1	51.0
전화	19.7	19.5	21.5	14.2	22.4
직접 만나서	16.0	13.4	11.8	16.0	18.1
SNS	13.1	19.7	16.1	13.9	8.4
영상통화	1.8	5.3	2.2	0.9	0.1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2) SNS 이용 빈도

- 성인들 중 1주일에 5일 이상 SNS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남

[그림 IV-34] SNS 이용 빈도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집단별 SNS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경우 ‘1주일에 5일 이용’ 비율이 28.8%로 사이버폭력 경험 이 없는 집단(13.6%)보다 많음
-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SNS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4%로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높음

[표 IV-24] SNS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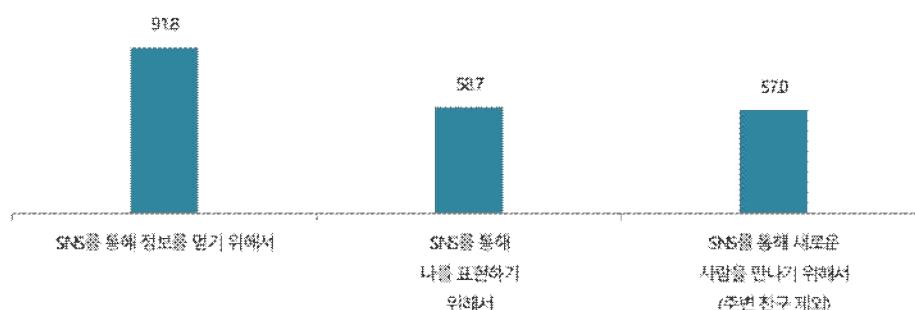
구분	전체	집단별			
		가해 및 피해 경험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경험없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5.4	10.4	13.2	16.4	20.4
1주일에 1일 미만 이용한다	22.2	14.3	21.8	24.9	29.0
1주일에 1~2일 이용한다	23.6	21.1	26.8	23.2	24.0
1주일에 3~4일 이용한다	18.7	25.4	21.0	16.6	13.0
1주일에 5일 이용한다	20.1	28.8	17.2	18.8	13.6

(3) SNS 이용 목적

- 성인들의 SNS 이용 목적은 91.8%가 ‘SNS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SNS를 통해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58.7%),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57.0%)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5] 인터넷 이용 목적

(SNS이용자, 복수응답, 단위: %)



-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나,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SNS를 이용하는 비율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IV-25] SNS 이용목적

(SNS이용자, 단위: %)

구분	전체	집단별			
		가해 및 피해 경험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경험 없음
(응답자의 수)	(1273)	(369)	(78)	(293)	(533)
정보를 얻기 위해서	91.8	87.0	92.3	95.6	92.9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주변 친구 제외)	58.7	67.2	59.0	57.0	53.7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57.0	65.9	50.0	57.7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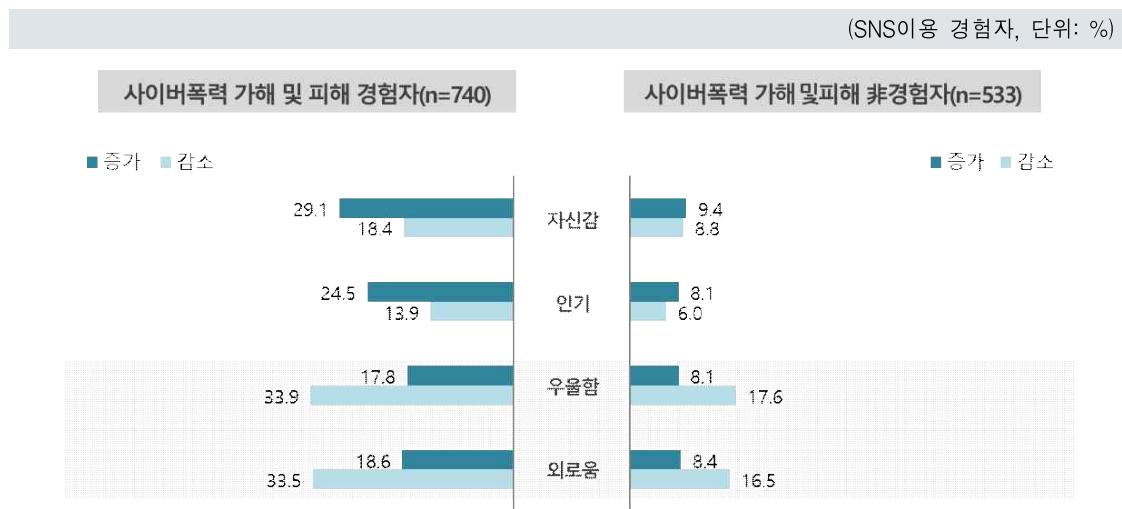
IV. 성인 대상 조사결과

나. SNS의 긍정적인 효과

(1)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성인들 보다 긍정적인 심리 요소(자신감, 인기)는 증가하고, 부정적인 요소(우울함, 외로움)는 감소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36]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에 따른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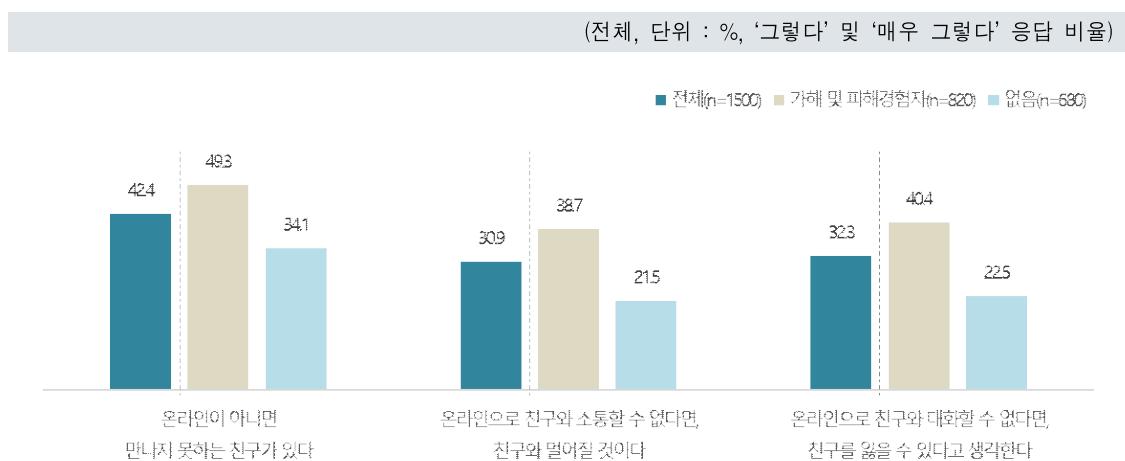
[표 IV-26]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

구분	전체	경험 여부		세부 집단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	가해만 경험	피해만 경험
(응답자의 수)	(1273)	(740)	(533)	(369)	(78)	(293)
자신감	증가했다	20.8	29.1	9.4	39.0	26.9
	감소했다	14.4	18.4	8.8	22.5	14.1
	변화 없음	64.8	52.6	81.8	38.5	68.6
인기	증가했다	17.6	24.5	8.1	31.4	17.9
	감소했다	10.6	13.9	6.0	20.6	14.1
	변화 없음	71.8	61.6	85.9	48.0	77.1
우울함	증가했다	13.7	17.8	8.1	23.0	12.8
	감소했다	27.1	33.9	17.6	42.0	29.5
	변화 없음	59.2	48.2	74.3	35.0	62.5
외로움	증가했다	14.4	18.6	8.4	26.0	16.7
	감소했다	26.4	33.5	16.5	37.4	29.4
	변화 없음	59.2	47.8	75.0	36.6	60.8

(2) SNS의 긍정적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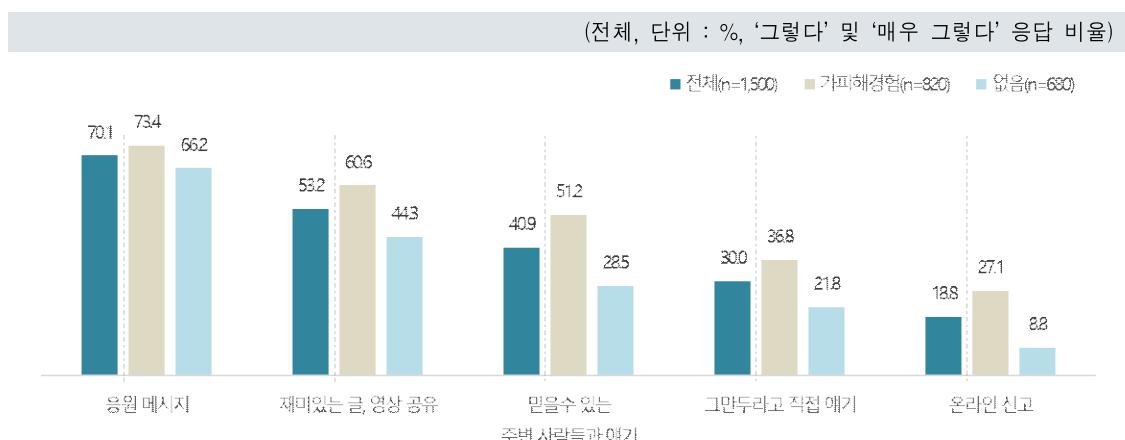
- 성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온라인이 아니면 만나지 못하는 친구(주변사람)가 있다고 10명중 4명이 응답함
-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온라인을 친구(주변사람) 관계 형성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7] 온라인과 친구 관계 형성



- 온라인에서 주변 사람들이 슬프거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의 대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응원메시지’(70.1%)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73.4%가 주변 사람들이 슬프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온라인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8] 난처한 상황의 지인을 위한 온라인 활동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1. 지도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태	99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99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01
가. 사이버폭력 인식	101
나. 사이버폭력 대응	104
3. 사이버폭력 예방	107
가.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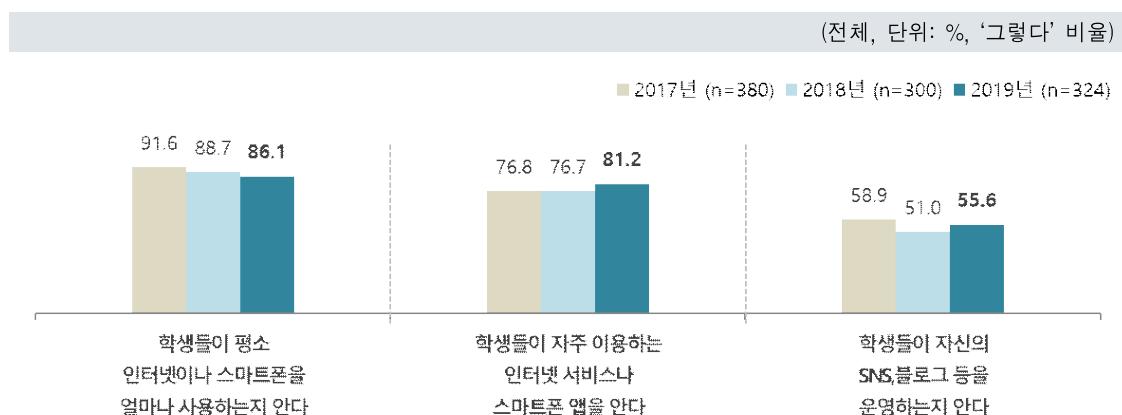
1. 지도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태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들의 평소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량을 알고 있거나(86.1%),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알고 있는 것(81.2%)으로 나타남
- 교사의 절반 정도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개인 SNS나 블로그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 (55.6%)
- 교사가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안다는 응답 비율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임
- 학생들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지율은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V-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표 V-1] 학생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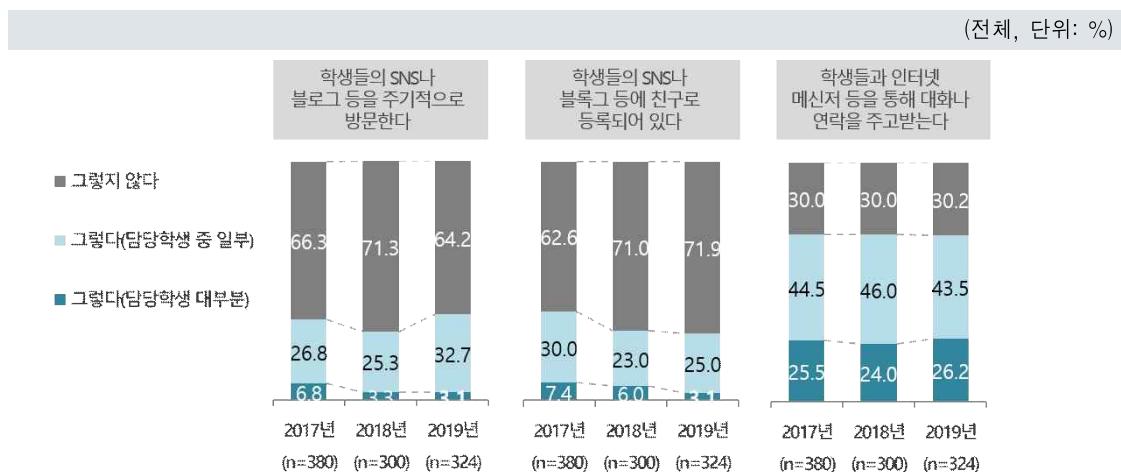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학생들이 평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안다	86.1	87.2	86.1	85.0	81.4	88.6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을 안다	81.2	82.6	79.6	81.3	84.1	79.6
학생들이 자신의 SNS,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지 안다	55.6	51.4	61.1	54.2	52.2	57.3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2)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 교사가 학생들의 SNS나 블로그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비율(담당 학생 중 일부 비율 + 담당 학생 대부분 비율)은 35.8%이며, SNS나 블로그 등에 친구로 등록된 비율은 28.1%로 나타났음
- 교사 중 69.7%는 학생들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함
-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활동이 활발하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일수록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V-2]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표 V-2]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학생들의 SNS나 블로그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35.8	22.9	46.3	38.3	31.9	37.9
학생들의 SNS나 블로그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28.1	15.6	37.0	31.8	25.7	29.4
학생들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한다	69.8	52.3	77.8	79.4	61.9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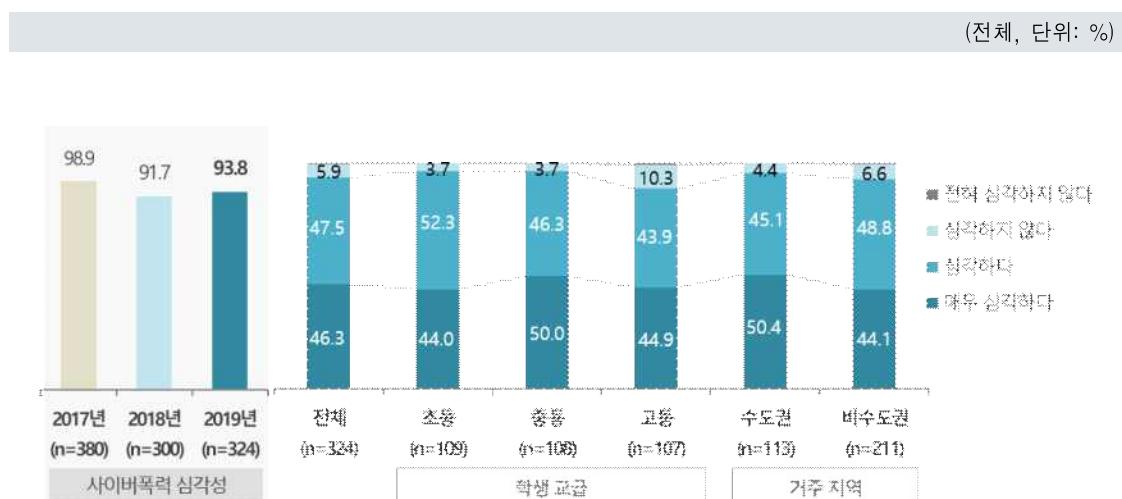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가. 사이버폭력 인식

(1) 사이버폭력 심각성

- 사이버폭력에 대해 교사의 93.8%(심각하다 비율 + 매우 심각하다 비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3] 사이버폭력 심각성



[표V-3]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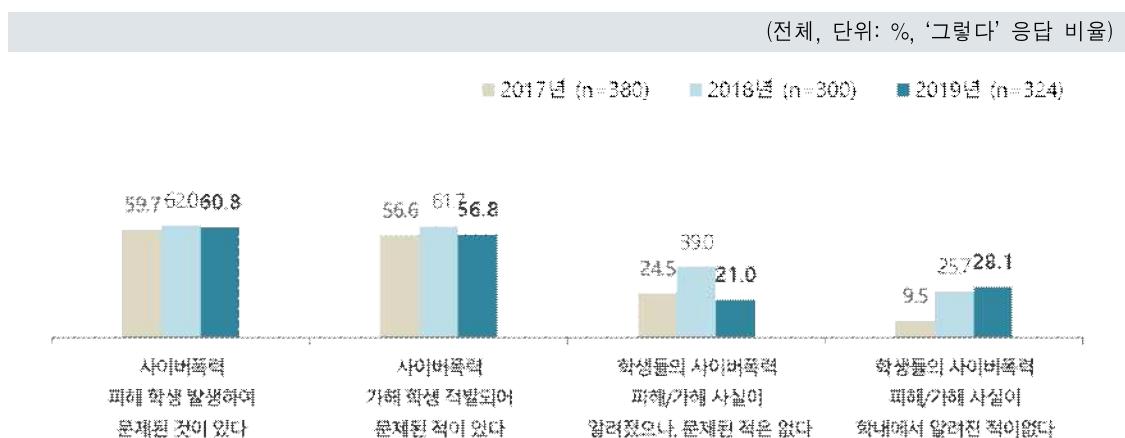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0.3	0.0	0.0	.9	0.0	.5
② 심각하지 않다	5.9	3.7	3.7	10.3	4.4	6.6
③ 심각하다	47.5	52.3	46.3	43.9	45.1	48.8
④ 매우 심각하다	46.3	44.0	50.0	44.9	50.4	44.1
종합 결과	①+② 심각하지 않음	6.2	3.7	3.7	11.2	4.4
	③+④ 심각함	93.8	96.3	96.3	88.8	95.6
						92.9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2)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 교사의 60.8%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여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또한 56.8%는 가해 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전년 대비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비율이 소폭 하락(피해 학생 발생 1.2%p 하락, 가해 학생 발생 4.9%p 하락)하였으며,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이 학내에서 알려진 적이 없다는 응답은 2.4%p 증가함
-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또는 가해 때문에 문제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측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V-4]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표V-4]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	60.8	54.1	75.0	53.3	70.8	55.5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된 적이 있다	56.8	52.3	68.5	49.5	67.3	51.2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이 알려졌으나, 문제된 적은 없다	21.0	24.8	24.1	14.0	21.2	20.9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가 알지 못 한다	28.1	22.9	24.1	37.4	26.5	28.9

(3) 학교 내 사이버폭력 심각성 인식

- 교사 중 38.0%가 재직 학교의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함(심각하다 34.6% + 매우 심각하다 3.4%)
- 중학교 교사는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교사 대비 수도권 교사들이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V-5]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표V-5] 재직 학교 사이버폭력 심각성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3.7	3.7	2.8	4.7	1.8	4.7
② 심각하지 않다	58.3	58.7	50.0	66.4	52.2	61.6
③ 심각하다	34.6	33.0	43.5	27.1	41.6	30.8
④ 매우 심각하다	3.4	4.6	3.7	1.9	4.4	2.8
종합 결과	①+② 심각하지 않음	62.0	62.4	52.8	71.0	54.0
	③+④ 심각함	38.0	37.6	47.2	29.0	46.0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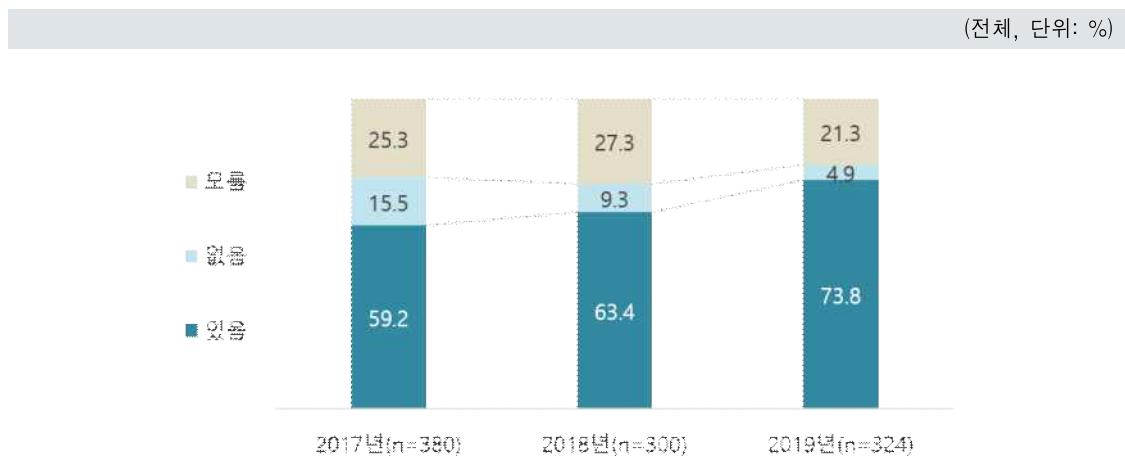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나. 사이버폭력 대응

(1) 학교 내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한 인지

- 교사 중 73.8%가 재직 학교에 사이버폭력 관련 공식 규정 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1.3%는 해당 규정 또는 프로그램 유무에 대해 모르고 있음
- 재직 학교에 사이버폭력 관련 공식 규정 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이후 상승하고 있음
- 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들이 관련 교내 규정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관련 규정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는 비율이 높음

[그림 V-6]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 여부



[표 V-6]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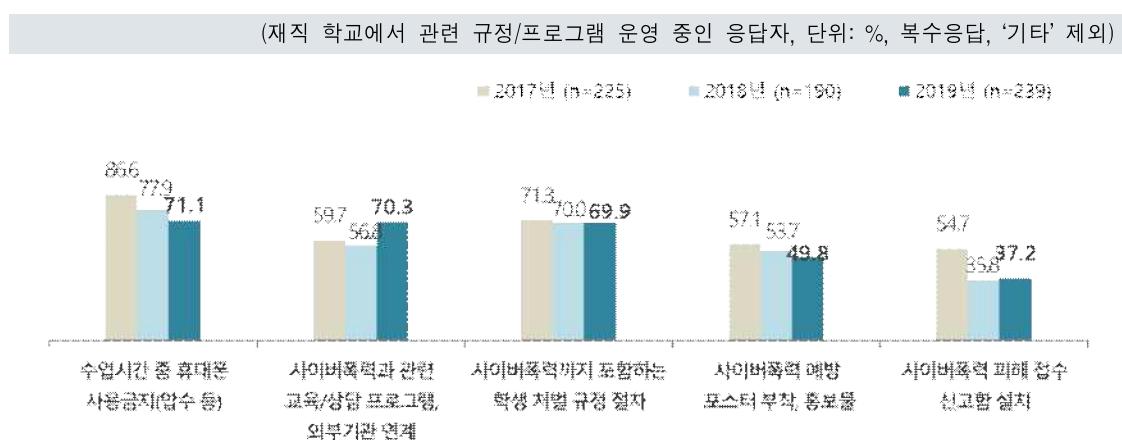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있음	73.8	73.4	76.9	71.0	77.9	71.6
없음	4.9	4.6	5.6	4.7	7.1	3.8
잘 모르겠음	21.3	22.0	17.6	24.3	15.0	24.6

(2)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

-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의 71.1%는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70.3%는 ‘사이버폭력과 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외부기관 연계’하고 있고, 69.9%는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교급 대비 높음
-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수도권 지역은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와 ‘사이버 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가 있다고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임

[그림 V-7]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표 V-7]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재직 학교에서 관련 규정/프로그램 운영 중인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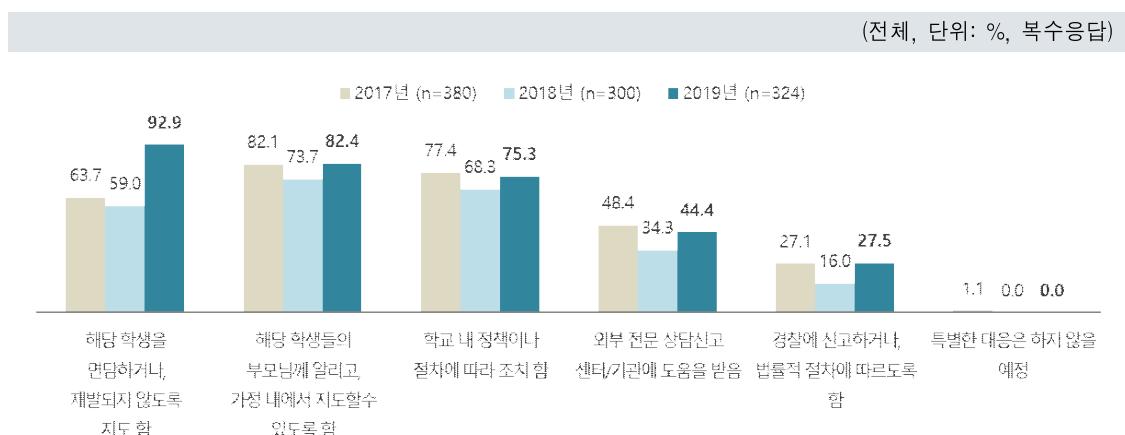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239)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80)	중학생 (83)	고등학생 (76)	수도권 (88)	비수도권 (151)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별도 보관 등)	71.1	71.3	74.7	67.1	65.9	74.2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	70.3	73.8	69.9	67.1	69.3	70.9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69.9	61.3	72.3	76.3	76.1	66.2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49.8	50.0	44.6	55.3	51.1	49.0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37.2	41.3	28.9	42.1	42.0	34.4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3)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 대부분의 교사들(92.9%)은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응답함
-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비율은 33.9%p 상승함
-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타 교급 대비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또는 ‘학생 부모님께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학생을 면담’하거나 ‘부모님께 알리’거나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고, 비수도권의 학교는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V-8]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표 V-8]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응 조치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함	92.9	96.3	91.7	90.7	93.8	92.4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께 알리고, 가정 내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함	82.4	91.7	80.6	74.8	85.8	80.6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함	75.3	70.6	75.9	79.4	78.8	73.5
외부 전문 상담신고 센터/기관에 도움을 받음	44.4	49.5	43.5	40.2	40.7	46.4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에 따르도록 함	27.5	29.4	32.4	20.6	25.7	28.4

3. 사이버폭력 예방

가.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1)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 및 평가

- 교사 중 86.7%가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5.4%p 증가함
- 고등학교 교사의 이수 경험률이 타 교급보다 낮았으며, 비수도권 교사들이 수도권 교사에 비해 교육 이수 경험률이 높음
- 사이버폭력 교육 이수자의 80.8%가 해당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도 학생 교급이 낮은 교사일수록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V-9]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및 평가



[표V-9]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이수 경험 있음	86.7	87.2	87.0	86.0	85.8	87.2
이수 경험 없음	13.3	12.8	13.0	14.0	14.2	12.8

[표V-10]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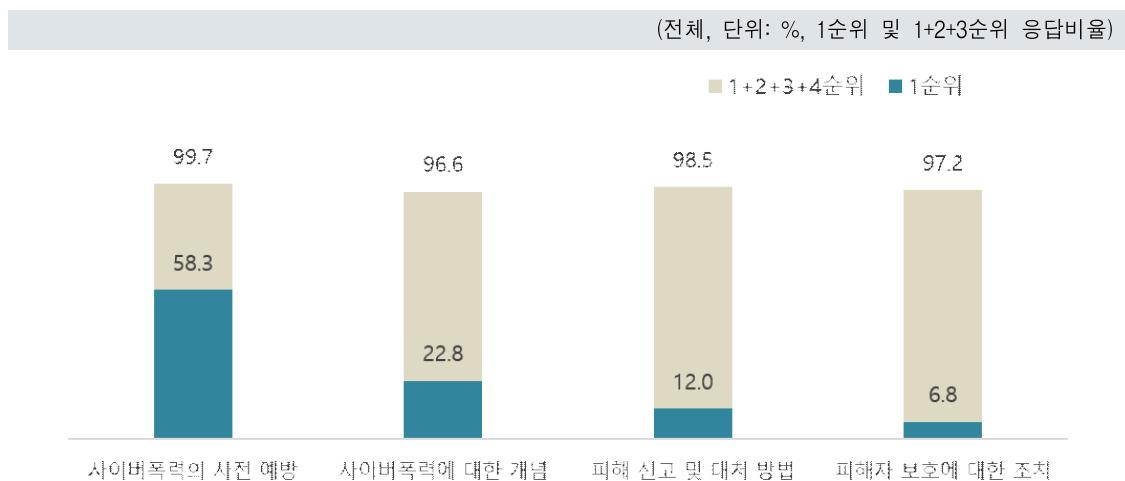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81)	(95)	(94)	(92)	(97)	(184)
효과적임	80.8	84.2	80.9	77.2	80.4	81.0
효과적이지 않음	19.2	15.8	19.1	22.8	19.6	19.0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2)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별 중요도

- 교사 대부분이 ‘사이버폭력의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개념, 피해 신고 및 대처 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 순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수도권 지역 학교보다 사이버폭력의 사전 예방이나 피해 신고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V-10] 사이버폭력 교육 내용별 중요도



[표V-11] 사이버폭력 교육 내용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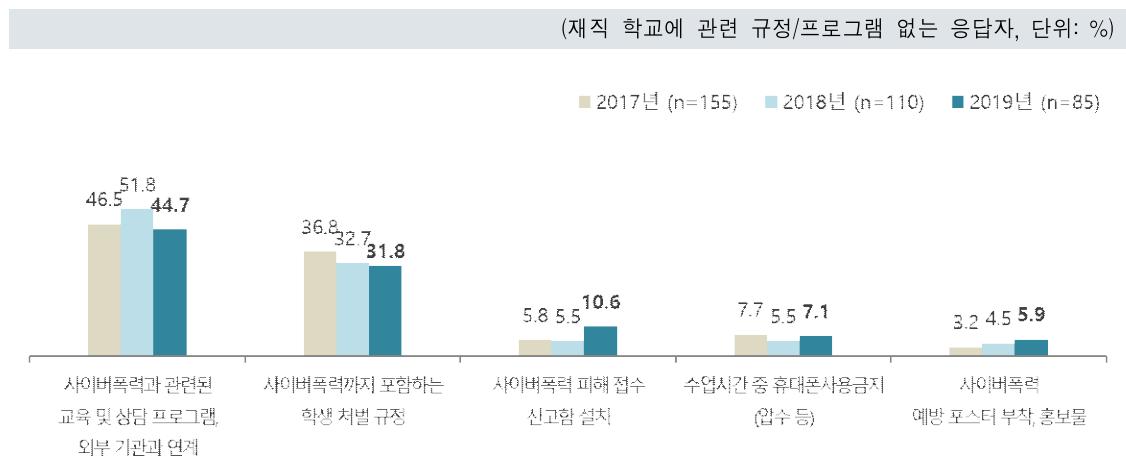
(전체, 단위: %, 1+2+3순위 응답비율)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사이버폭력의 사전 예방	99.7	100.0	99.1	100.0	99.1	100.0
피해 신고 및 대처 방법	98.5	98.2	98.1	99.1	98.2	98.6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97.2	97.2	97.2	97.2	99.1	96.2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96.6	98.2	94.4	97.2	98.2	95.7

(3)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 재직 중인 학교에 별도의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의 44.7%는 ‘외부기관과 연계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세부집단별로는 재직 중인 학교의 교급이 낮을수록 ‘외부기관과 연계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

[그림 V-11]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표V-12] 도입 필요 규정 및 프로그램

(재직 학교에 관련 규정/프로그램 없는 응답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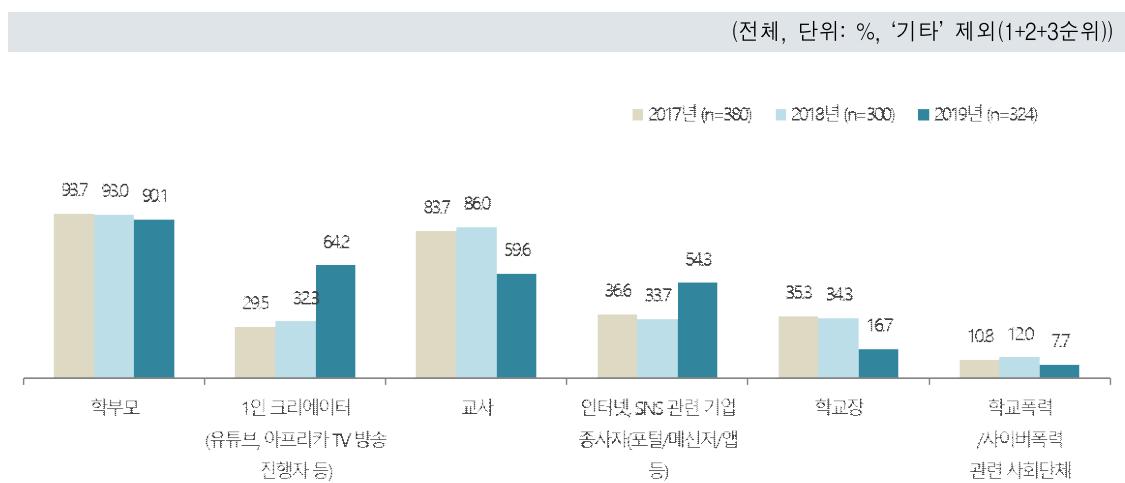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85)	(29)	(25)	(31)	(25)	(60)
외부기관과 연계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44.7	51.7	44.0	38.7	48.0	43.3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31.8	34.5	32.0	29.0	28.0	33.3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10.6	3.4	12.0	16.1	4.0	13.3
수업시간 중 휴대폰(스마트폰) 사용금지	7.1	3.4	8.0	9.7	12.0	5.0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5.9	6.9	4.0	6.5	8.0	5.0

V. 교사 대상 조사결과

(4) 교육 대상 우선순위

-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는 ‘학부모’(90.1%), ‘1인 크리에이터(유튜브, 아프리카TV방송 진행자 등)’(64.2%)을 1순위, 2순위로 선택함
- ‘1인 크리에이터’는 전년 32.3%에서 64.2%로 가장 많이 상승(31.9%p)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SNS 관련 기업 종사자’가 전년 대비 20.6%p 상승함
- ‘교사’, ‘학교장’은 전년 대비 각각 26.4%p, 17.6%p 하락함

[그림 V-12] 교육 대상 우선순위



[표V-13] 교육 대상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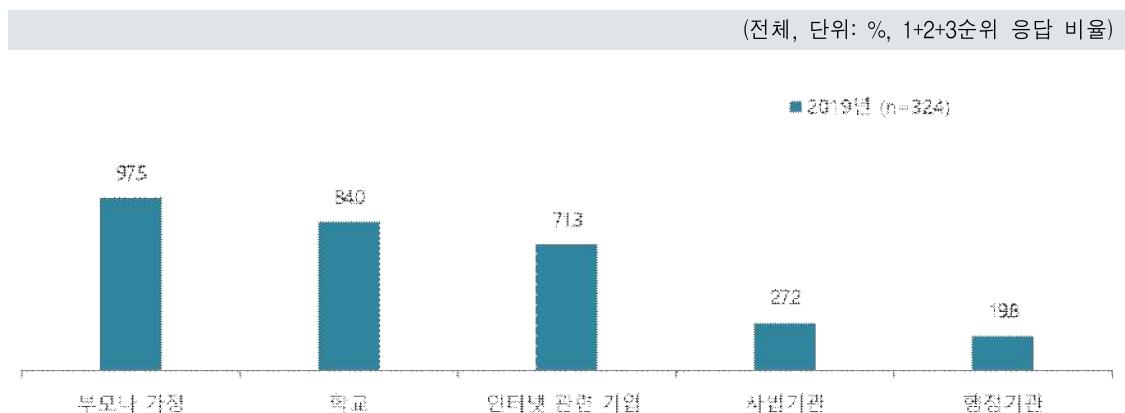
(전체, 단위: %, ‘기타’ 제외(1+2+3순위))

구분	전체 (사례수)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324)	중학생 (109)	고등학생 (108)	수도권 (107)	비수도권 (113)
학부모	90.1	96.3	88.9	85.0	91.2	89.6
1인 크리에이터(유튜브, 아프리카 TV 방송 진행자 등)	64.2	76.1	53.7	62.6	64.6	64.0
교사	59.6	54.1	64.8	59.8	59.3	59.7
인터넷, SNS 관련 기업 종사자(포털/메신저/앱 등)	54.3	51.4	60.2	51.4	51.3	55.9
학교장	16.7	11.9	14.8	23.4	16.8	16.6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7.7	3.7	11.1	8.4	5.3	9.0

(5)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 학생들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나 가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인터넷 관련 기업, 사법기관, 행정기관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교사들은 타 교급 교사 대비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인터넷 및 SNS관련 기업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타 교급 교사 대비 높음

[그림 V-13]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표V-1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전체, 단위: %, 1+2+3 순위 응답 비율)

구분	전체	학생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324)	(109)	(108)	(107)	(113)	(211)
부모나 가정	97.5	99.1	97.2	96.3	97.3	97.6
학교	84.0	88.1	80.6	83.2	87.6	82.0
인터넷, SNS 관련 기업	71.3	77.1	65.7	71.0	69.0	72.5
사법기관	27.2	19.3	34.3	28.0	30.1	25.6
행정기관	19.8	16.5	21.3	21.5	15.9	21.8

V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1.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태	115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115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17
가. 사이버폭력 인식	117
나. 사이버폭력 대응	119
3. 사이버폭력 예방	121
가. 사이버폭력 교육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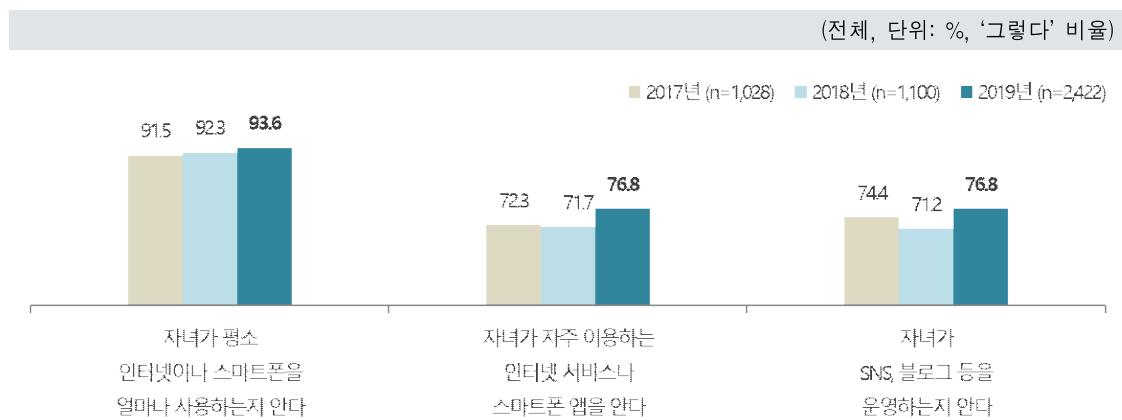
1.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태

가. 인터넷 이용 특성별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학부모의 대부분은 자녀가 평소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93.6%), 이는 전년 대비 1.3%p 상승함
-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 앱, SNS, 블로그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약 76% 정도 수준으로 사용량에 대한 인지도 대비 낮은 수준임
- 자녀의 교급이 낮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이용량 및 구체적인 인터넷 이용 범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그림 VI-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표VI-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전체, 단위: %,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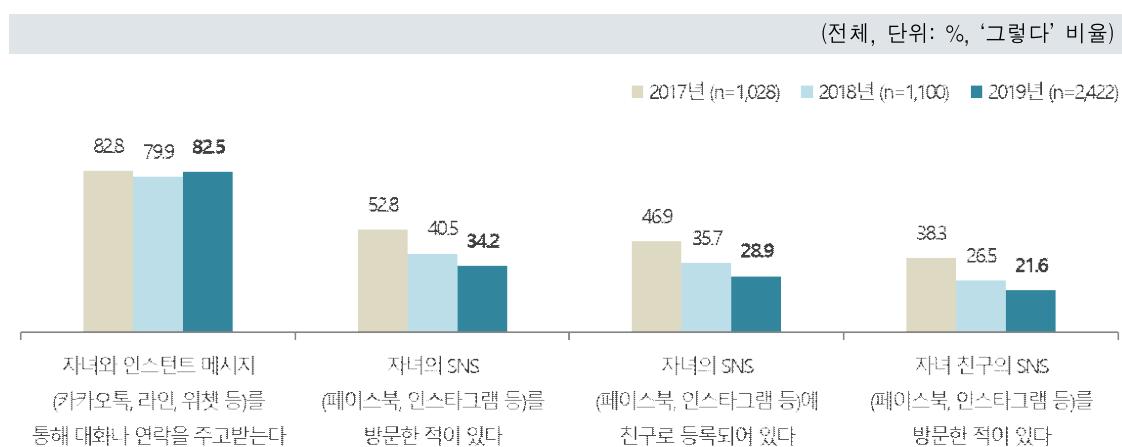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자녀가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안다	93.6	97.8	93.5	88.4	93.3	93.7
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을 안다	76.8	90.1	73.6	63.6	81.2	74.7
자녀가 SNS,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지 안다	76.8	86.9	76.6	63.9	80.4	75.1

VI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2)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자녀와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방식(자녀 또는 친구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방문하거나 친구로 등록된 경우 포함)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초등학교 자녀의 학부모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 비해 자녀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녀의 페이스북나 인스타그램 등에 방문하거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친구의 페이스북나 인스타그램 등을 방문한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음
- 수도권 학부모들은 자녀와 온라인을 통해 대화하는 비율이 비수도권의 학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VI-2]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표VI-2]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 경험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자녀와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위쳇 등)를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다	82.5	78.1	87.0	82.5	83.8	81.9
자녀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방문한 적이 있다	34.2	37.5	35.7	28.0	35.6	33.5
자녀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28.9	32.2	28.4	25.2	28.6	29.0
자녀 친구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방문한 적이 있다	21.6	24.5	21.6	17.7	24.3	20.3

2.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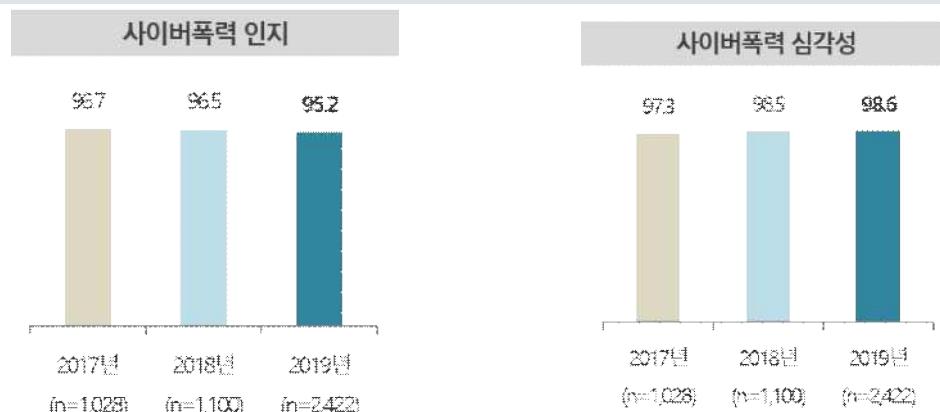
가. 사이버폭력 인식

(1) 사이버폭력 인지 및 심각성

- 학부모들의 사이버폭력 인지율 및 심각성은 각각 95.2%와 98.6%로,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
-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타 교급에 비해 높음

[그림 VI-3] 사이버폭력 인지 및 심각성

(전체, 단위: %, 좌: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 비율, 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응답비율)



[표VI-3] 사이버폭력 심각성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0.3	0.6	0.1	0.1	0.4	0.2
② 심각하지 않다	1.1	0.6	1.3	1.5	.9	1.1
③ 심각하다	41.2	38.2	40.2	46.2	39.3	42.0
④ 매우 심각하다	57.5	60.7	58.4	52.1	59.4	56.6
종합 결과	①+② 심각하지 않음 ③+④ 심각함	1.4	1.1	1.4	1.6	1.3
		98.6	98.9	98.6	98.4	98.6

VI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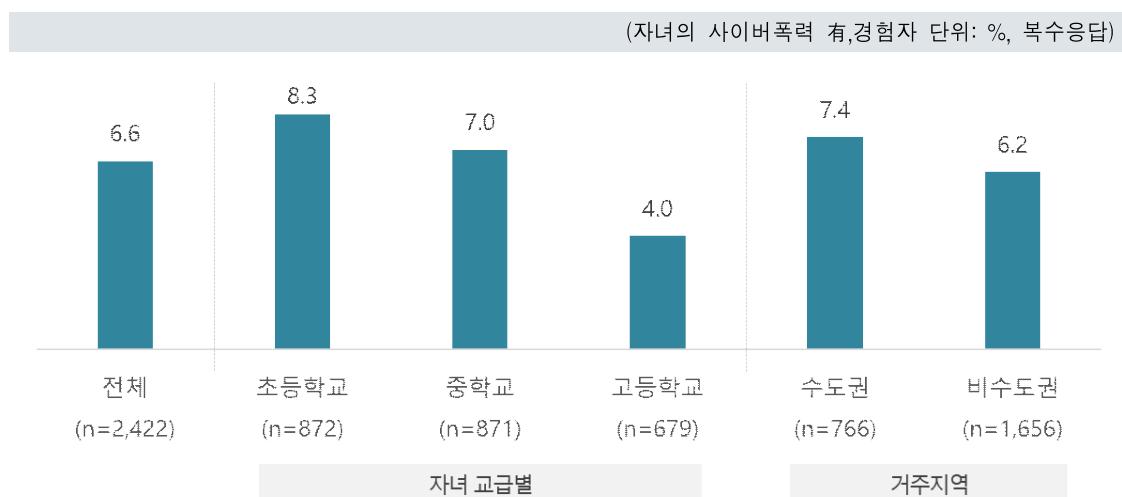
(2)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 학부모의 87.0%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전년 대비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가·피해나 목격 경험 등 포함)이 있는 학부모 비율은 2.5%p 상승함
-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초등학생(8.3%) > 중학생(7.0%) > 고등학생(4.0%) 자녀를 둔 학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비수도권 거주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높음

[그림 VI-4]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2017년~2019년)



[그림 VI-5]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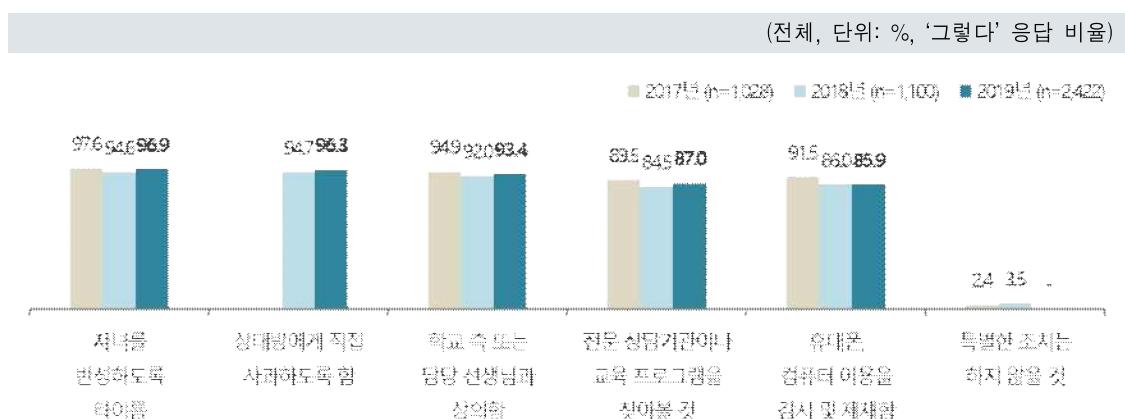


나. 사이버폭력 대응

(1)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²⁶⁾

-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행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함’, ‘학교 측 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함’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교 학부모 대비 높고, 고등학교 학부모는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수도권 학부모들이 수도권의 학부모보다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고, 수도권 학부모들은 ‘전문 상담기관을 찾음’, ‘자녀의 휴대폰, 컴퓨터 이용을 감시’하는 비율이 비수도권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VI-6]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



[표VI-4]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시 대응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름	96.9	97.6	97.1	95.7	96.5	97.1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함	96.3	96.1	96.3	96.5	95.6	96.6
학교 측 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함	93.4	94.7	93.1	92.2	92.7	93.8
전문 상담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볼 것	87.0	89.3	86.0	85.4	87.2	87.0
휴대폰, 컴퓨터 이용을 감시 및 제재함	85.9	89.2	87.0	80.1	86.6	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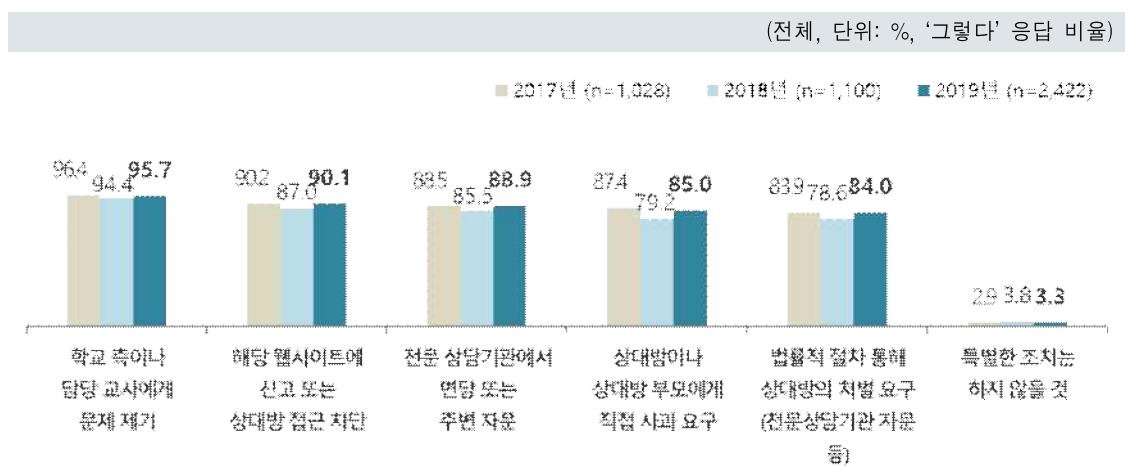
26)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함’은 2018년 신규 추가된 보기이며,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 보기 항목은 2019년에 제외

V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2)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 자녀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학교 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응답이 95.7%로 가장 높음
- 자녀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측 문제 제기’나 ‘해당 웹 사이트의 조치’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에 자문’하는 편이며, 자녀 교급이 높을수록 ‘상대방 측에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법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비율이 높음

[그림 VI-7]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표VI-5]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학교 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 제기	95.7	96.2	95.6	95.3	96.1	95.6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 또는 상대방 접근 차단	90.1	91.4	89.3	89.4	89.8	90.2
전문 상담기관에서 면담 또는 주변 자문	88.9	90.6	87.5	88.7	89.7	88.6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사과 요구	85.0	83.0	84.4	88.2	83.6	85.6
법률적 절차 통해 상대방의 처벌 요구	84.0	79.7	83.4	90.4	83.9	84.1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	3.3	3.2	3.6	3.1	4.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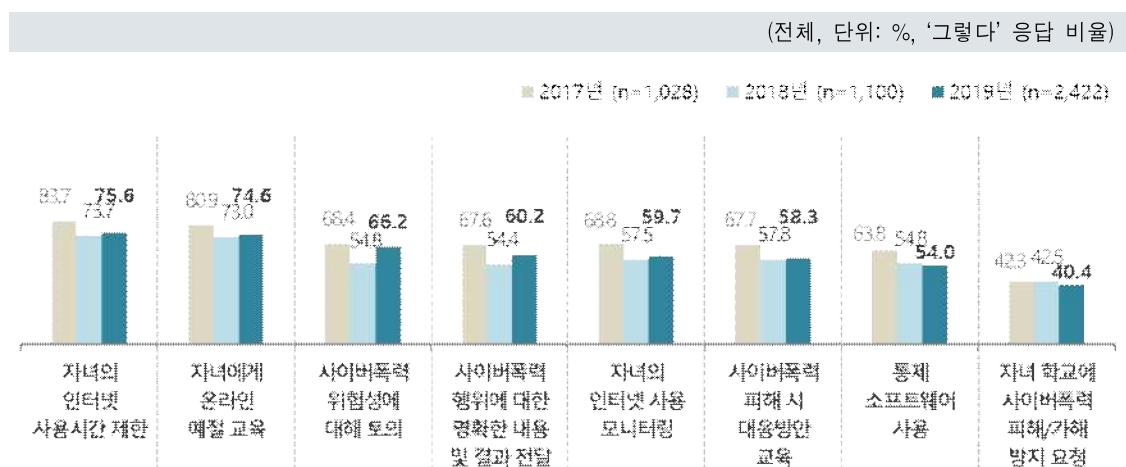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예방

가. 사이버폭력 교육

(1)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모가 취한 방법

-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4명 중 3명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반적으로 자녀 교급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예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들이 비수도권의 학부모들에 비해 사이버폭력 예방법을 좀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8]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모가 취한 방법



[표VI-6]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모가 취한 방법

(전체, 단위: %, ‘그렇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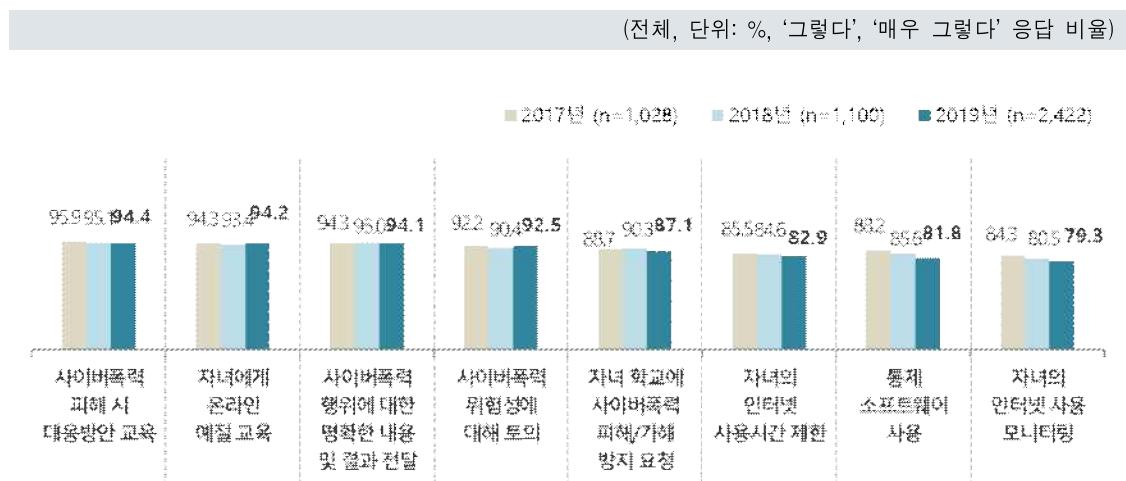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	75.6	89.9	74.7	58.3	76.6	75.1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교육	74.6	83.5	74.9	62.9	76.8	73.6
사이버폭력 위험성에 대해 토의	66.2	74.4	67.6	53.8	71.1	63.9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및 결과 전달	60.2	64.2	62.7	51.8	61.6	59.5
자녀의 인터넷 사용 모니터링	59.7	79.2	56.8	38.4	61.7	58.8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58.3	62.0	61.2	49.8	59.1	57.9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54.0	67.9	51.8	38.9	54.2	53.9
자녀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 요청	40.4	44.8	40.3	34.8	42.6	39.4

VI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2)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 학부모들은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을 교육하는 것’(94.4%)과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을 시키는 것’(94.2%)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 학부모들은 대부분 효과적인 예방 방법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과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교육’,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및 결과 전달’ 방법이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이라고 응답함

[그림 VI-9]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표VI-7]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예방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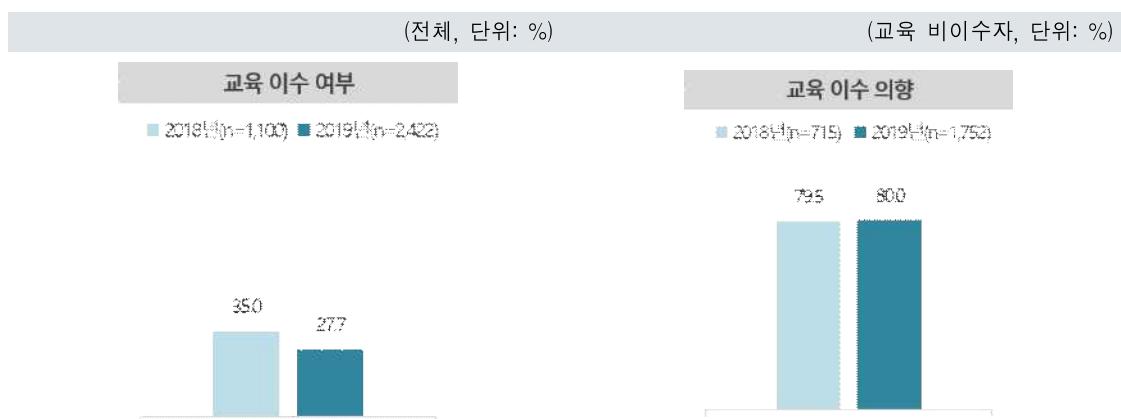
(전체, 단위: %,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구분 (사례수)	전체 (2,422)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872)	중학생 (871)	고등학생 (679)	수도권 (766)	비수도권 (1656)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94.4	95.5	95.9	91.0	95.0	94.1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교육	94.2	96.6	95.5	89.4	94.1	94.2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및 결과 전달	94.1	95.4	95.8	90.4	95.3	93.6
사이버폭력 위험성에 대해 토의	92.5	95.0	94.3	87.2	93.2	92.2
자녀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 요청	87.1	89.6	87.4	83.5	86.9	87.1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82.9	90.1	84.2	72.2	83.7	82.6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81.8	87.8	83.9	71.3	81.9	81.8
자녀의 인터넷 사용 모니터링	79.3	88.5	79.7	66.9	79.9	79.0

(3) 교육 이수 여부 및 향후 이수 의향

-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는 전년 대비 7.3%p 하락함
- 학부모 10명 중 8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율은 타 교급에 비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높음
-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이수 의향은 자녀 교급이 낮을수록 높음

[그림 VI-10] 교육 이수 여부 및 향후 이수 의향



[표VI-8] 교육 이수 여부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이수 경험 있음	27.7	25.9	31.7	24.7	27.7	27.7
이수 경험 없음	72.3	74.1	68.3	75.3	72.3	72.3

[표VI-9] 교육 이수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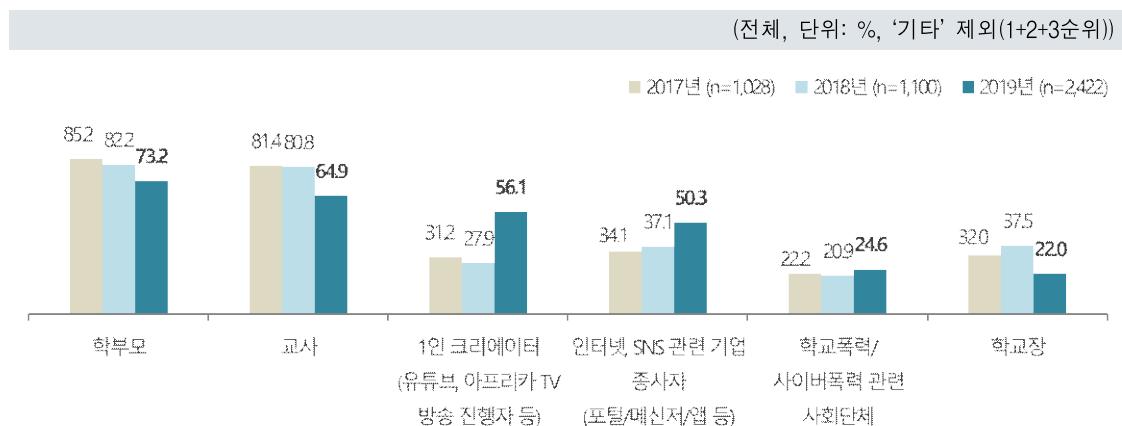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1,752)	(646)	(595)	(511)	(554)	(1198)
이수 의향 있음	80.0	86.1	79.8	72.4	79.1	80.4
이수 의향 없음	20.0	13.9	20.2	27.6	20.9	19.6

VI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4) 교육 대상 우선순위

-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을 학부모와 교사가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3.2%, 64.9%로 높고, 그 다음으로 1인 크리에이터(56.1%), 인터넷/SNS 관련 기업 종사자(5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부모와 교사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각각 9.0%p, 15.9% 감소), 1인 크리에이터와 인터넷/SNS 관련 기업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증가함(각각 28.2%p, 13.2% 상승)
- 자녀 교급이 낮을수록 학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인터넷, SNS 종사자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사회단체가 받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VI-11] 교육 대상 우선순위



[표VI-10] 교육 대상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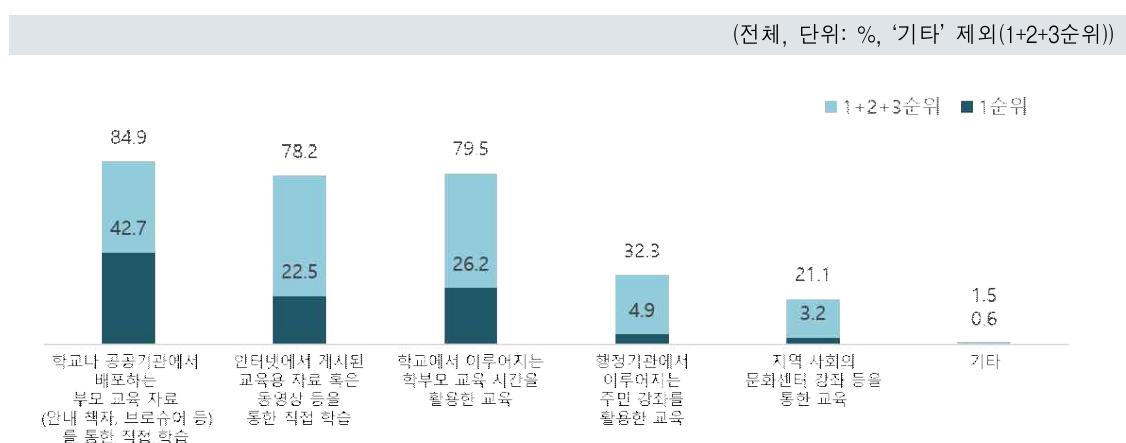
(전체, 단위: %, '기타' 제외(1+2+3순위))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학부모	73.2	78.7	74.4	64.5	70.0	74.6
교사	64.9	62.3	67.4	64.9	62.5	65.9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 진행자 등)	56.1	63.2	51.8	52.6	60.2	54.2
인터넷, SNS 관련 기업 종사자	50.3	47.2	51.8	52.4	55.4	48.0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24.6	20.9	22.3	32.3	23.0	25.3
학교장	22.0	17.9	22.3	27.1	20.5	22.8

(5)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선호 방식

- 학부모 대부분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모 교육 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부모 교육 자료를 통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부모 교육 자료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 시간을 활용한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행정기관이나 지역 문화센터 강좌 등을 통한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12]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선호 방식



[표VI-11] 사이버폭력 관련 희망 교육방법

(전체, 단위: %, '기타' 제외(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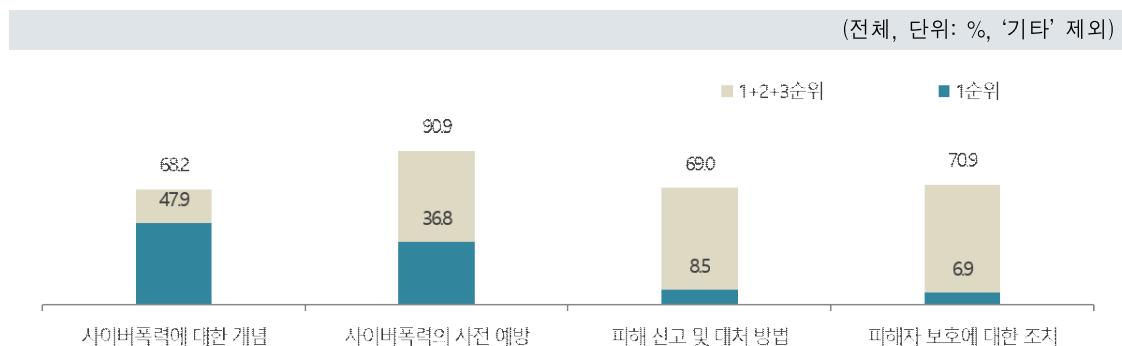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부모교육 자료(직접 학습)	84.9	87.5	84.3	82.3	84.9	84.9
인터넷에서 게시된 교육용 자료 혹은 동영상(직접 학습)	78.2	78.1	78.9	77.6	77.9	78.4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시간을 활용한 교육	79.5	82.3	79.6	75.8	79.9	79.3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강좌를 활용한 교육	32.3	28.9	32.7	36.1	34.1	31.5
지역사회 문화센터 강좌 등을 통한 교육	21.1	17.3	21.9	25.0	20.1	21.6

VII.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6)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별 중요도

-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이나 ‘사이버폭력의 사전 예방’ 교육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교급이 낮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그림 VI-13]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별 중요도



[표VI-12]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별 중요도

(전체, 단위: %, '기타' 제외(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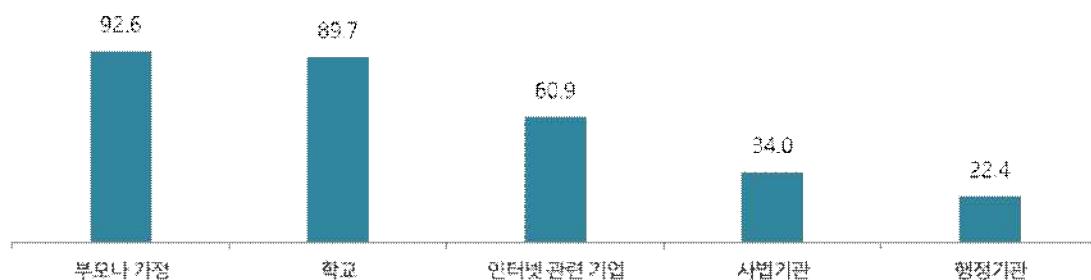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2,422)	(872)	(871)	(679)	(766)	(1,656)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68.2	71.1	68.8	63.8	69.8	67.5
사이버폭력 예방	90.9	90.9	91.6	90.0	91.4	90.7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70.9	68.6	69.0	76.4	70.2	71.3
피해 신고 및 대처 방법	69.0	68.8	70.3	67.6	67.4	69.7

(7) 보호기관 역할의 중요성

-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김
- 교급과 상관없이 가정과 학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그림 VI-14]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전체, 단위: %, 1+2+3순위 비율)



[표VI-13] 보호기관 역할 중요성

(전체, 단위: %, '1+2+3순위' 응답 비율)

구분	전체	자녀 교급			거주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1,100)	(336)	(362)	(402)	(392)	(708)
부모나 가정	92.6	95.1	92.9	89.1	92.0	92.9
학교	89.7	89.1	91.2	88.5	89.4	89.8
인터넷, SNS 관련 기업(포털/메신저/앱 등)	60.9	64.2	61.9	55.4	66.2	58.5
사법기관(경찰/검찰)	34.0	32.2	33.4	37.1	31.3	35.3
행정기관	22.4	18.7	20.6	29.5	20.5	23.2

VII. 부록

1. 설문지	131
가. 학생용	131
나. 성인용	142
다. 교사용	152
라. 학부모용	157

1. 설문지

가. 학생용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생용)		ID											
검증원 확인	(학교에서 가입할 필요 없음)	코딩원 확인	(학교에서 가입할 필요 없음)										
<p>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p> <p>본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답변 내용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p>■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증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p>													
주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기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기관	KRI 								
조사내용 문의	<p>(주) 코리아리서치인티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co.kr - 담당자 : 박종범 책임컨설턴트(02-3415-5146, jongbeom@krio.com), 권연경 선임컨설턴트(02-3415-5166, yjkwon@krio.com)</p>												
<p><응답방법></p> <p>* 질문을 읽은 후 내 생각이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로 표시해 주세요.</p> <p>*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세요.</p> <p>* 진행자(선생님)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마세요.</p>													
<p><응답자 정보></p> <p>학생 여러분의 성별, 학교 지역, 학년을 <input checked="" type="checkbox"/>로 표시해 주세요. 몇 반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쓸 필요 없습니다.</p>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학교 지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학년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초등학교</td> <td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4학년 <input type="checkbox"/> 5학년 <input type="checkbox"/> 6학년</td> </tr> <tr> <td>중학교</td> <td><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td> </tr> <tr> <td>고등학교</td> <td><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td> </tr> </table>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4학년 <input type="checkbox"/> 5학년 <input type="checkbox"/> 6학년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4학년 <input type="checkbox"/> 5학년 <input type="checkbox"/> 6학년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학교 명													
설문 일시	2019년 (_____) 월 (_____) 일												

(선생님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마세요.)

VII. 부록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1. 인터넷 이용 행태

▣ '인터넷 이용' 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부하기, 정보 검색하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하기, 동영상(유튜브 등)보기, TV보기, 음악듣기, 게임하기 등)

문1번. 평상시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나요? 평일과 주말/공휴일 간을 모두 채워주세요.

구분	PC,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평일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주말/공휴일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문2번. 평상시 아래 내용 중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용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동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기입
1)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정보 검색	(①)
2)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이용	(②)
3) 온라인 게임 이용	(③)
4)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④)
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이용 ※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이며, 웹(인터넷)이나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친구, 동료, 선우배, 지인들과의 연락을 쉽게 취하면서 인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하고, 새로운 인맥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예,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라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⑤)
6)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⑥)

문3번. 친구들과 이야기(소통)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내 용	✓ 선택
1) 직접 만나서	(①)
2) 전화(음성 통화)를 통해서	(②)
3)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를 통해서 ※ 인스턴트 메시지란?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③)
4)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④)
5) 영상 통화(스카이프, 페이스타임 등)를 통해서	(⑤)
6) 기타(자세히: _____)	(⑥)

문4번. 평상시 아래 각각의 항목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1)~6)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기타'에 기입해주세요.

내 용	이용 안 함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2시간 미만	하루 2시간 이상
1)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①	②	③	④
2)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①	②	③	④
3)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①	②	③	④
4) 개인 홈페이지	①	②	③	④
5) 이메일	①	②	③	④
6) 온라인 게임	①	②	③	④
7) 기타(자세히))	①	②	③

☞ **지시문**

☞ 보기 1)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항목에서 1. 이용 안함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5로 이동.

☞ 보기 1)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항목에서 2, 3, 4를 선택한 응답자는 문4_1로 이동

문4_1번. (☞문4번의 1) SNS에 2~4번 응답자만 응답) 학생은 다음 항목의 SNS를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이용하시나요?

내 용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일 미만 이용한다	일주일에 1~2일 이용한다	1주일에 3~4일 이용한다	1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다
1) 네이버밴드	①	②	③	④	⑤
2) 블로그	①	②	③	④	⑤
3) 유튜브	①	②	③	④	⑤
4) 인스타그램	①	②	③	④	⑤
5) 틱톡	①	②	③	④	⑤
6) 트위터	①	②	③	④	⑤
7) 페이스북	①	②	③	④	⑤

문4_2번. SNS 이용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SNS를 이용하는 주요한 목적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1순위 혹은 2순위까지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기입
1)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주변 친구 제외)	①
2) SNS를 통해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②
3) SNS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	③

문4_3번.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동의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증가했다	감소했다	변화 없음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으로 자신감이	①	②	③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으로 인기가	①	②	③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으로 우울함이	①	②	③
4)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으로 외로움이	①	②	③

VII. 부록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5번. 다음은 **온라인(인터넷)과 친구 관계 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인터넷)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온라인(인터넷)으로 친구(주변사람)와 대화할 수 없다면, 친구(주변사람)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온라인(인터넷)으로 친구와 소통할 수 없다면, 친구와 멀어질것이다	①	②	③	④

문6번.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친구들이 슬프거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본인이 친구들을 위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힘들어하는 친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글, 영상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2)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응원 메시지(문자 등)를 보냈다	①	②	③	④
3) 친구를 괴롭히는 상대에게, 그만 두라고 직접 얘기했다	①	②	③	④
4) 슬퍼하는 친구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부모님,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어른들과 이야기 했다	①	②	③	④
5) 온라인에서 친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신고했다	①	②	③	④

문7번. 다음 제시된 행동들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1)부터 8)까지 8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된다	매우 문제 된다
1)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①	②	③	④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관련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동	①	②	③	④
3)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페스북을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와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동	①	②	③	④
4)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동	①	②	③	④
5)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동	①	②	③	④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①	②	③	④
7)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사이버 게임 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동	①	②	③	④
8)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①	②	③	④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작성 중

문7_1번. 다음 제시된 행동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1순위 혹은 2순위까지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기입
1)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①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동	②
3)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폭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동	③
4)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싫어 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동	④
5)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동	⑤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회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⑥
7)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사이버 게임 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동	⑦
8)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⑧

문8번. 인터넷 상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를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다면 얼마나 자주 봤나요?
인터넷 창에 우연히 접속 되거나(내가 누르지 않았는데 창이 뜨거나) 채널 탐색을 하다가 원하지 않았으나 보게 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내 용	전혀 없음	1년에 1~2회	3~4개월에 1회 정도	1달에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1)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예: 애완동물 학대, 폭행, 사고 현장 등)	①	②	③	④	⑤
2) 야한 내용 (예: 신체 중요부위 노출, 성인 사이트 광고 등)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인, 혹은 유명인 등을 헐뜯는(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내용 (예: 신상정보, 소문, 특정 집단 비하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법 행동에 대한 내용 (예: 미성년자의 술·담배 사는 법, 도둑질 등)	①	②	③	④	⑤
5) 허위 정보 (예: 거짓 제품 후기, 과대광고 등)	①	②	③	④	⑤

☞ 지시문

☞ 보기 1~5) 5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9번으로 이동.

☞ 나머지 응답자는 문8_1번으로 이동

문8_1번. 위 문제에서 본 적 있다고 선택한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를 주로 어디서 봤나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동영상 제공 서비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①
2) SNS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②
3)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	③
4) 기타()	④

VII. 부록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친구나 선우배,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참관!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해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혼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7. 사이버 갈취는 인터넷에서 나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
8. 사이버 강요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문9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내용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1) 나는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악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뇌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의 사이버 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지시문**

☞ 보기 1~8) 8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10번으로 이동.

☞ 나머지 응답자는 문10번으로 이동

문10번. 문9번에서 응답한 행동을 누구를 상대로 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용	✓ 선택
1)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①
2)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선배/후배	②
3)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선배/후배	③
4) (위의 보기 1~3의 사람들이 아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④
5)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⑤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점증

문11번. 문9번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했나요. 아니면 혼자 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자주 있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여러 명과 함께 했다	①
2) 혼자서 했다	②

문12번. 문9번에서 응답한 행동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비고
1) 아무도 모른다	①	▣ 단독선택만 가능
2)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②	-
3) 친구들이 알고 있다	③	-
4)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	④	-

문13번. 문9번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메이스북 메신저 등)	①
2) 커뮤니티 (카페, 동호회 등)	②
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③
4) 개인 홈페이지	④
5) 이메일	⑤
6) 온라인 게임	⑥
7) 기타(자세히:)	⑦

문14번. 문9번에서 응답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①
2)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②
3)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③
4)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④
5)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⑤
6)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⑥

문15번. 문9번에서 응답한 행동을 한 후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1)부터 5)까지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2)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	①	②	③	④
3)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①	②	③	④
4)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5)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VII. 부록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3.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친구나 선우배,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과롭힘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16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내용	전혀 없음 ①	지난 8개월간 한두번 ②	한 달에 한두번 ③	일주일 에 한두번 ④	거의 매일 ⑤
1)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폭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인터넷 공간에서 나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나의 사이버 게임 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나에게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자세히

☞ 보기 1~8) 8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23번으로 이동.

☞ 나머지 응답자는 문17번으로 이동

문17번. 문16번에서 응답한 피해는 누구로부터 당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선택해 주세요.

내용	✓ 선택
1)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①
2)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②
3) (위의 보기 1~3의 사람들이 아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③
4)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④

문18번. 그 피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주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주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자주 있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내용	✓ 선택
1) 여러 명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①
2)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②

문19번. 그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용	✓ 선택	비고
1) 아무도 모른다	①	☞ 단독선택만 가능
2) 내 친구들이 알고 있다	②	-
3) 가족이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	③	-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생용

문20번. 문16번에서 응답한 피해는 다음 중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당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①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②
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③
4) 개인 홈페이지	④
5) 이메일	⑤
6) 온라인 게임	⑥
7) 기타(자세히:)	⑦

문21번. 그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하였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지시문
1)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①	
2)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②	
3)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③	
4)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	④	
5)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⑤	
6)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⑥	☞ 21_1번으로 이동

문21_1번. (☞문21번에서 6) 응답자만)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①
2)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②
3)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③
4)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④
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보복(복수)하거나 협박할까봐	⑤
6)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⑥
7)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⑦
8)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⑧

문22번. 그 피해를 당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를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2)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	①	②	③	④
3)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4)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6)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VII. 부록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4.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친구나 선우배, 또는 모르는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문23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지시문
1) 본 적이 있다	①	☞ 문24번으로 이동
2) 본 적이 없다	②	☞ 문25번으로 이동

문24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지시문
1)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①	☞ 문25번으로 이동
2) 친구, 선우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②	
3)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	③	
4)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④	
5)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⑤	☞ 단독선택만 가능 ☞ 문24_1번으로 이동

문24_1번. (☞ 문24번에서 5) 응답자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①
2)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②
3)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③
4)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④
5)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⑤
6) 대응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⑥
7)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⑦

5. 사회/심리 환경요인

문25번.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주세요.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친구를 유탄하기 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못살게 굴려줘야 속이 시원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작은 일에도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문26번.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3) 사소한 것도 여쭈어보면 잘 듣고 응답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점 등

문27번. 다음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문28번.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없으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없음	1~3명	4~6명	7명 이상
책임, 문자, SNS, 게시판 등에서 친구나 선/후배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	①	②	③	④

문29번.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나요? 해당되는 것에 **모두 선택해주세요.**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 선택	지시문
1) 내 컴퓨터/스마트폰에 유해(해로운 내용의)콘텐츠 차단 앱 또는 인터넷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해 둔다	①	-
2) 나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앱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다	②	-
3)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보호 및 관리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다	③	-
4) 나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경해 둔다	④	-
5) 위 4개 모두 해당되는 것 없음	⑤	▣ 단독선택만 가능

문30번. 우리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내 용	✓ 선택	지시문
1) 우리 학교에는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규칙이 있다	①	-
2) 우리 학교는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②	-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평소 사이버폭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③	-
4) 우리 학교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1년 이내)	④	-
5) 우리 학교 내에 사이버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⑤	-
6) 위 5개 모두 해당되는 것 없음	⑥	▣ 단독선택만 가능

문31번. 아래 정보를 알고 있나요? 아래 **2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예	아니오
1)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알고 있다	①	②
2)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VII. 부록

나. 성인용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일반성인용)					ID																																																																											
<p>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p>■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p> <table border="1"> <tr> <td>주최기관</td> <td> 방송통신위원회</td> <td>주관기관</td> <td>NIA 한국정보화진흥원</td> <td>조사기관</td> <td colspan="4"></td> </tr> <tr> <td>조사내용 문의</td> <td colspan="8">(주)코리아리서치인터넷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co.kr - 담당자 : 박종범 책임컨설턴트(02-3415-5146, jonbeom@knc.com), 권연정 선임컨설턴트(02-3415-5166, ykwon@kric.com)</td> </tr> </table>									주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기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기관					조사내용 문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넷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co.kr - 담당자 : 박종범 책임컨설턴트(02-3415-5146, jonbeom@knc.com), 권연정 선임컨설턴트(02-3415-5166, ykwon@kric.com)																																																													
주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기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기관																																																																												
조사내용 문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넷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co.kr - 담당자 : 박종범 책임컨설턴트(02-3415-5146, jonbeom@knc.com), 권연정 선임컨설턴트(02-3415-5166, ykwon@kric.com)																																																																															
<p>< 응답방법 ></p> <p>* 질문을 읽은 후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또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세요.</p>																																																																																
<p><응답자 정보></p> <table border="1"> <tr> <td>성별</td> <td colspan="8">① 남 ② 여</td> </tr> <tr> <td>연령</td> <td colspan="2">① 20대</td> <td colspan="2">② 30대</td> <td colspan="2">③ 40대</td> <td colspan="2">④ 50대</td> </tr> <tr> <td>거주지역</td> <td colspan="8">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td> </tr> <tr> <td>학력</td> <td colspan="2">① 중졸 이하</td> <td colspan="2">② 고졸</td> <td colspan="2">③ 대학 재학/졸업</td> <td colspan="2">④ 대학원 재학/졸업</td> </tr> <tr> <td>직업</td> <td colspan="2"> ① 관리직 예: 국회의원, 고위 관료, 기업 단체 또는 기관 고위직, 대기업 차장 등 ⑥ 농림어업 숙련직 예: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td> <td colspan="2"> ② 전문직 예: 교수, 교사, IT 및 전공 기술 전문가, 학 국·국제 기관 예: 연구원, 모설 가, 연예인 등 </td> <td colspan="2"> ③ 사무직 예: (중하위직) 공무원 문서 처리, 영업지원, 전산 계약/총무/행사 사무보조원, 비서 등 </td> <td colspan="2"> ④ 서비스직 예: 여행, 음식, 조리, 미 품, 기타, 물류 등 대인サー 험, 기획, 소방관, 소방관, 교도관 등 경찰관, 소방관, 소방관 등 </td> </tr> <tr> <td>개인 소득 (월평균 임금)</td> <td colspan="2">① 100만 원 미만</td> <td colspan="2">② 100~200만 원 미만</td> <td colspan="2">③ 200~300만 원 미만</td> <td colspan="2">④ 300~400만 원 미만</td> </tr> <tr> <td></td> <td colspan="2">⑤ 400~500만 원 미만</td> <td colspan="2">⑥ 500~600만 원 미만</td> <td colspan="2">⑦ 600~700만 원 미만</td> <td colspan="2">⑧ 700~800만 원 미만</td> </tr> <tr> <td></td> <td colspan="2">⑨ 800~900만 원 미만</td> <td colspan="2">⑩ 900~1,000만 원 미만</td> <td colspan="2">⑪ 1,000만 원 이상</td> <td colspan="2"></td> </tr> </table>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졸업		직업	① 관리직 예: 국회의원, 고위 관료, 기업 단체 또는 기관 고위직, 대기업 차장 등 ⑥ 농림어업 숙련직 예: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② 전문직 예: 교수, 교사, IT 및 전공 기술 전문가, 학 국·국제 기관 예: 연구원, 모설 가, 연예인 등		③ 사무직 예: (중하위직) 공무원 문서 처리, 영업지원, 전산 계약/총무/행사 사무보조원, 비서 등		④ 서비스직 예: 여행, 음식, 조리, 미 품, 기타, 물류 등 대인サー 험, 기획, 소방관, 소방관, 교도관 등 경찰관, 소방관, 소방관 등		개인 소득 (월평균 임금)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미만		③ 200~300만 원 미만		④ 300~400만 원 미만			⑤ 400~500만 원 미만		⑥ 500~600만 원 미만		⑦ 600~700만 원 미만		⑧ 700~800만 원 미만			⑨ 800~900만 원 미만		⑩ 900~1,000만 원 미만		⑪ 1,000만 원 이상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졸업																																																																									
직업	① 관리직 예: 국회의원, 고위 관료, 기업 단체 또는 기관 고위직, 대기업 차장 등 ⑥ 농림어업 숙련직 예: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② 전문직 예: 교수, 교사, IT 및 전공 기술 전문가, 학 국·국제 기관 예: 연구원, 모설 가, 연예인 등		③ 사무직 예: (중하위직) 공무원 문서 처리, 영업지원, 전산 계약/총무/행사 사무보조원, 비서 등		④ 서비스직 예: 여행, 음식, 조리, 미 품, 기타, 물류 등 대인サー 험, 기획, 소방관, 소방관, 교도관 등 경찰관, 소방관, 소방관 등																																																																									
개인 소득 (월평균 임금)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미만		③ 200~300만 원 미만		④ 300~400만 원 미만																																																																									
	⑤ 400~500만 원 미만		⑥ 500~600만 원 미만		⑦ 600~700만 원 미만		⑧ 700~800만 원 미만																																																																									
	⑨ 800~900만 원 미만		⑩ 900~1,000만 원 미만		⑪ 1,000만 원 이상																																																																											

[Programmer: 성, 연령, 지역 표본할당표 체크]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1. 인터넷 이용 행태

※ '인터넷 이용' 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1번. 귀하께서는 평상시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평일과 주말/공휴일 간을 모두 채워주세요.

구분	PC,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평일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주말/공휴일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문2번. 귀하께서는 평상시 아래 내용 중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용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동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기입
1)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정보 검색	①
2)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이용	②
3) 온라인 게임 이용	③
4)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④
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이용 ※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이며, 웹(인터넷)이나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친구, 동료, 선우배, 지인등과의 연락을 쉽게 취하면서 인맥 관계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새로운 인맥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예,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라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⑤
6)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⑥

문3번. 귀하께서는 주변 지인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소통)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내 용	✓ 선택
1) 직접 만나서	①
2) 전화(음성 통화)를 통해서	②
3) 문자 혹은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를 통해서 ※ 인스턴트 메시지란?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③
4)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를 통해서	④
5) 영상 통화(스카이프, 페이스타임 등)를 통해서	⑤
6) 기타()	⑥

문4번. 귀하께서는 평상시 아래 각각의 내용을 위해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1)~6)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기타'에 기입해주세요.

내 용	이용 안 함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2시간 미만	하루 2시간 이상
1)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①	②	③	④
2)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①	②	③	④
3)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①	②	③	④
4) 개인 홈페이지	①	②	③	④
5) 이메일	①	②	③	④
6) 온라인 게임	①	②	③	④
7) 기타(자세히:)	①	②	③	④

[Programmer: ④ 보기 1)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항목에서 1. 이용 안함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5로 이동.

※ 보기 1)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항목에서 2, 3, 4를 선택한 응답자는 문4_1로 이동

VII. 부록

성인용

문4_1번. (☞문4번의 1) SNS에 2~4번 응답자만 응답) 귀하는 다음 항목의 SNS를 일주일에 평균 몇칠 정도 이용하시나요?

내 용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일 미만 이용한다	일주일에 1~2일 이용한다	1주일에 3~4일 이용한다	1주일에 5일 이용한다
1) 네이버밴드	①	②	③	④	⑤
2) 블로그	①	②	③	④	⑤
3) 유튜브	①	②	③	④	⑤
4) 인스타그램	①	②	③	④	⑤
5) 틱톡	①	②	③	④	⑤
6) 트위터	①	②	③	④	⑤
7) 페이스북	①	②	③	④	⑤

문4_2번. SNS 이용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SNS를 이용하는 주요한 목적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혹은 2순위까지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기입
1)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주변 친구, 지인 제외)	①
2) SNS를 통해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②
3) SNS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	③

문4_3번. SNS를 통해 일어난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동의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증가했다	감소했다	변화 없음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으로 자신감이	①	②	③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으로 인기가	①	②	③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으로 우울함이	①	②	③
4)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으로 외로움이	①	②	③

문5번. 다음은 온라인(인터넷)과 친구 관계 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인터넷)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온라인(인터넷)으로 친구(주변사람)와 대화할 수 없다면, 친구(주변사람)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온라인(인터넷)으로 친구와 소통할 수 없다면, 친구와 멀어졌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6번.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주변 사람들이 슬프거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글, 영상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2)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 메세지(문자 등)를 보냈다	①	②	③	④
3)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대에게, 그만 두라고 직접 얘기했다	①	②	③	④
4)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지인, 전문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했다	①	②	③	④
5) 온라인에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신고했다	①	②	③	④

문7번. 다음 제시된 행동들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부터 8)까지 8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된다	매우 문제 된다
1)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①	②	③	④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동	①	②	③	④
3)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폭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동	①	②	③	④
4)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동	①	②	③	④
5)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동	①	②	③	④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뇌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①	②	③	④
7)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사이버 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동	①	②	③	④
8)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①	②	③	④

문7-1번. 다음 제시된 행동들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혹은 2순위까지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기입
1)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①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동	②
3)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폭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동	③
4)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동	④
5)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동	⑤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뇌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⑥
7)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사이버 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동	⑦
8)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⑧

VII. 부록

성인용

- 문8번. 인터넷상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를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이 있으신 경우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인터넷 창에 우연히 팝업 되거나(내가 누르지 않았는데 창이 뜨거나) 채널 탐색을 하다가 원하지 않았으나 보게 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내 용	전혀 없음	1년에 1~2회	3~4개월에 1회 정도	1달에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1)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예: 예안동물 학대, 폭행, 사고 현장 등)	①	②	③	④	⑤
2) 야한 내용 (예: 신체 중요부위 노출, 성인 사이트 광고 등)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인, 혹은 유명인 등을 헐뜯는 내용 (예: 신상정보, 소문, 특정 집단 비하 등)	①	②	③	④	⑤
4) 불법 행동에 대한 내용 (예: 미성년자의 술·담배 사는 법, 도둑질 등)	①	②	③	④	⑤
5) 허위 정보 (예: 거짓 제품 후기, 과대광고 등)	①	②	③	④	⑤

[Programmer: ↗ 1)~5)의 5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9번으로 이동]

↗ 나머지 응답자는 문8_1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 문8_1번. 위 문제에서 본 적 있다고 선택한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를 주로 어디서 보셨나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동영상 제공 서비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①
2) SNS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②
3)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	③
4) 기타()	④

2.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자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잠깐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육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육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도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7. 사이버 갈취는 인터넷에서 나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
8. 사이버 강요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9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시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내용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주번	일주일에 한주번	거의 매일
1) 나는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페스팅을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직장,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의 사이버 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rogrammer: ☐ 1)~8)의 8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16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 나머지 응답자는 문10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문10번. 앞서 응답하신 행동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용	✓ 선택
1)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①
2) 친구/선·후배(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②
3) (위의 보기 1~2 외의 사람들이 아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③
4)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④

문11번. 앞서 응답하신 행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하셨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자주 있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내용	✓ 선택
1) 여러 명과 함께 했다.	①
2) 혼자서 했다.	②

문12번. 앞서 응답하신 행동을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용	✓ 선택	비고
1) 아무도 모른다.	①	▣ 단독선택만 가능
2)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②	-
3) 친구/지인들이 알고 있다.	③	-
4) 가족이 알고 있다.	④	-

문13번. 앞서 응답하신 행동은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용	✓ 선택
1)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①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②
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③
4) 개인 홈페이지	④
5) 이메일	⑤
6) 온라인 게임	⑥
7) 기타(자세히:)	⑦

VII. 부록

성인용

문14번. 앞서 응답하신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①
2)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②
3)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③
4)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④
5)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들린 말을 해서	⑤
6)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⑥

문15번. 앞서 응답하신 행동을 하신 후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1)부터 5)까지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2)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	①	②	③	④
3)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①	②	③	④
4)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5)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16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시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1)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인터넷 공간에서 나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직장,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가 나의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Programmer: ↪ 1~8)의 8개 항목에서 모두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문23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 나머지 응답자는 문17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

문17번. 앞서 응답하신 피해는 누구로부터 당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친구	①
선배(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②
후배(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③
2) (위의 보기 1~ 2의 사람들이 아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④
3)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⑤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18번. 앞서 응답하신 피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주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주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여러 개의 경우 가장 자주 있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여러 명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①
2)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②

문19번.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비고
1) 아무도 모른다	①	☞ 단독선택만 가능
2) 내 친구/지인들이 알고 있다	②	-
3) 가족이 알고 있다	③	-

문20번. 앞서 응답하신 피해는 다음 중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당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①
2)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②
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③
4) 개인 홈페이지	④
5) 이메일	⑤
6) 온라인 게임	⑥
7) 기타(자세히:)	⑦

문21번. 앞서 응답하신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지시문
1)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①	
2)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②	
3) 친구, 가족, 교수님, 동료 등 주변에 알렸다	③	
4)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	④	
5) 상담 및 신고센터(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⑤	
6)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⑥	☞ 문21_1번으로 이동

문21_1번. (☞문21번에서 6) 응답자만) 앞서 응답하신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주위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①
2)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②
3)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③
4)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④
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⑤
6)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⑥
7)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⑦

VII. 부록

성인용

문22번. 앞서 응답하신 피해를 당한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직장·가사 등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①	②	③	④
3)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4)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5)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6)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4.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나 선후배,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문23번. 최근 1년 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용	✓ 선택	지시문
1) 본 적이 있다.	①	☞ 문24번으로 이동
2) 본 적이 없다.	②	☞ 문25번으로 이동

문24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셨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지시문
1)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①	
2)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주변에 알렸다.	②	
3)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	③	☞ 문25번으로 이동
4) 상담 및 신고센터(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④	
5)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⑤	☞ 단독선택만 가능 ☞ 문24_1번으로 이동

문24_1번. (☞문24에서 5) 응답자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 선택
1)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①
2)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②
3)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③
4)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④
5)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⑤
6) 대응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⑥
7)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⑦

5. 사회/심리 환경요인

문25번.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을 폭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못살게 굴던지 굴려줘야 속이 시원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작은 일에도 홍분한다	①	②	③	④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26번. 다음은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결정/선택을 격려하고 응원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회생활/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들어본다.	①	②	③	④
3) 사소한 것도 물어보면 잘 듣고 대답해준다.	①	②	③	④

문27번. 다음은 동료/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문28번.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동료가 있나요?

내 용	없음	1~3명	4~6명	7명 이상
채팅, 문자, SNS, 게시판 등에서 친구나 선후배/동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동료	①	②	③	④

문29번. 다음은 귀하가 소속된 직장이나 학교, 단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내 용	✓ 선택	비고
1) 직장 내 사이버폭력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적 있다(최근 1년 이내).	①	-
2)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시행 또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최근 1년 이내).	②	-
3) 직장 내 온라인상에서의(메신저, 이메일, SNS 등) 명예훼손 발언이 적은 편이다.	③	-
4) 위 3개 모두 해당되는 것 없음	④	▣ 단독선택만 가능
5) 현재 소속된 직장/학교/단체 없음	⑤	▣ 단독선택만 가능

문30번. 귀하께서는 아래 정보를 알고 있었나요? 아래 2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예	아니오
1) 사이버폭력에 관하여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알고 있다.	①	②
2)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VII. 부록

다. 교사용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교사용)				ID															
검증원 확인	(학교에서 기입할 필요 없음)	코딩원 확인	(학교에서 기입할 필요 없음)																
<p>안녕하십니까?</p> <p>본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p> <p>■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주최기관</td> <td> 방송통신위원회</td> <td style="width: 20%;">주관기관</td> <td>NIA 한국정보화진흥원</td> <td style="width: 20%;">조사기관</td> <td></td> </tr> <tr> <td>조사내용 문의</td> <td colspan="5">(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co.kr - 담당자 : 박종범 책임컨설턴트(02-3415-5146, jongbeom@krio.com), 권연정 선임컨설턴트(02-3415-5166, yjkwon@krio.com)</td> </tr> </table>								주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기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기관		조사내용 문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co.kr - 담당자 : 박종범 책임컨설턴트(02-3415-5146, jongbeom@krio.com), 권연정 선임컨설턴트(02-3415-5166, yjkwon@krio.com)				
주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기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기관															
조사내용 문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co.kr - 담당자 : 박종범 책임컨설턴트(02-3415-5146, jongbeom@krio.com), 권연정 선임컨설턴트(02-3415-5166, yjkwon@krio.com)																		

<응답방법>

- * 질문을 읽은 후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로 표시 또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해당란에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정보>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학교지역(광역)	<input type="radio"/> 서울	<input type="radio"/> 부산	<input type="radio"/> 대구	<input type="radio"/> 인천	<input type="radio"/> 광주	<input type="radio"/> 대전	<input type="radio"/> 울산	<input type="radio"/> 세종
	<input type="radio"/> 경기	<input type="radio"/> 강원	<input type="radio"/> 충북	<input type="radio"/> 충남	<input type="radio"/> 전북	<input type="radio"/> 전남	<input type="radio"/> 경북	<input type="radio"/> 경남
학교지역(기초)	() 시/군/구							
재직 교급 및 담당 학년	초등학교	<input type="radio"/> 4학년 <input type="radio"/> 5학년 <input type="radio"/> 6학년						
	중학교	<input type="radio"/> 1학년 <input type="radio"/> 2학년 <input type="radio"/> 3학년						
	고등학교	<input type="radio"/> 1학년 <input type="radio"/> 2학년 <input type="radio"/> 3학년						
설문 일시	2019년 () 월 () 일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1. 학생 인터넷 이용 행태

☞ '인터넷 이용' 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부하기, 정보 검색하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하기, 동영상(유튜브 등)보기, TV 보기, 음악 듣기, 게임하기 등)

문1번.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모른다	알고 있다
1) 학생들이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2)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3) 학생들이 자신의 SNS,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①	②

문2번. 선생님께서는 평상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담당 학생 중 일부만	담당 학생 대부분
1)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방문한다	①	②	③
2)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①	②	③
3) 학생들과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를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2. 학생 사이버폭력 경험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지도종인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경험 및 **선생님의 대응 경험**에 대해 물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육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혼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육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도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7. 사이버 갈취는 인터넷에서 나의 사이버(게임) 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
8. 사이버 강요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문3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VII. 부록

고사용

문4번. 선생님께서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 2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그렇지 않다	문제가 될 때만 한다	주기적으로 한다
1)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하거나 상담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2)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주변 선생님들과 대화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문5번.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	①	②
2)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된 적이 있다	①	②
3)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이 알려졌으나, 문제된 적은 없다	①	②
4)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이 학내에서 알려진 적이 없다	①	②

문6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사이버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3. 예방 활동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7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관련 공식적인 규정 혹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 규정 내에 포함된 하위 규정이나 사이버폭력 별도 규정 모두 해당)

내 용	선택	지시문
1) 그렇다	①	☞ 문8로 이동
2) 아니다	②	☞ 문10으로 이동
2) 잘 모른다	③	☞ 문10으로 이동

문8번. (☞문7에서 1) 응답자만) 다음 중 어떤 형태의 규정 혹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5)까지의 보기 중에 없다면, '6)기타'를 선택한 후 내용을 자세히 기입해 주십시오.

내 용	선택	지시문
1)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①	☞ 문8_1로 이동
2)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②	☞ 문9로 이동
3)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③	☞ 문9로 이동
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충보를 배포 등	④	☞ 문9로 이동
5) 수업시간 중 휴대폰(스마트폰) 사용금지(별도 보관 등)	⑤	☞ 문9로 이동
6) 기타 (자세히 기입:)	⑥	☞ 문9로 이동

문8_1번. (☞문8에서 1) 응답자만) 근무 학교의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다	구체적인 편이다	매우 구체적이다
①	②	③	④

문9번. (☞문8에서 2)~6)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 혹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10번. (☞문7에서 2), 3)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는 어떤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 혹은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도입이 시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2)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3)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5) 수업시간 중 휴대폰(스마트폰) 사용금지(별도 보관 등)

문11번. 선생님께서는 담당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 선택
1)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다	①
2) 해당 학생의 부모님께 알리고, 가정 내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②
3)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③
4) 외부 전문 상담신고 센터/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④
5)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⑤

문12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문제 외에 아래와 같은 학생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의 육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 폭력 문제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 문제	①	②	③	④
4) 학생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	①	②	③	④
5) 음란물, 폭력을 등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①	②	③	④

문13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외에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상담, 권고, 조언 등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의 육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 폭력 문제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 문제	①	②	③	④
4) 학생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	①	②	③	④
5) 음란물, 폭력을 등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①	②	③	④

문14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상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1) 교사
2) 학교장
3) 학부모
4) 1인 크리에이터(유튜브, 아프리카 TV 방송 진행자 등)
5) 인터넷, SNS 관련 기업 종사자(포털/메신저/앱 등)
6)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7) 기타 (자세히 기입: _____)

VII. 부록

고사용

문15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용	✓ 선택	지시문
1) 예	①	☞ 문16으로 이동
2) 아니오	②	☞ 문17로 이동

문16번. (☞문15에서 1)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16.1번. (☞문16에서 ①, ②)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_____)

(☞응답 후 문18로 이동)

문17번. (☞문15에서 2)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내 용	✓ 선택
1) 예	①
2) 아니오	②

문18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중 어떠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부터 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내 용
1)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2) 사이버폭력의 사전 예방
3)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4) 피해 신고 및 처리 방법

문19번.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보기에 제시된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1) 부모나 가정
2) 학교
3) 행정기관
4) 사법기관(경찰/검찰)
5) 인터넷 관련 기업(포털/메신저/앱 등)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라. 학부모용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부모용)		ID			
-------------------------	--	----	--	--	--

[조사내용 문의]					
주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기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기관	
조사내용 문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co.kr - 담당자 : 박종범 책임컨설턴트(02-3415-5146, jongbeom@krc.com), 권연경 선임컨설턴트(02-3415-5166, yjkwon@krc.com)				

< 응답방법 >

- * 모든 응답은 본 설문지를 받아온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질문을 읽은 후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로 표시 또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세요.

〈응답자 정보〉

VII. 부록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1. 자녀 인터넷 이용 행태

※ '인터넷 이용' 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부하기, 정보 검색하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하기, 동영상(유튜브 등)보기, TV 보기, 음악 듣기, 게임하기 등)

문1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모른다	알고 있다
1) 자녀가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2) 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3) 자녀가 본인의 SNS,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①	②

문2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자녀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방문한 적이 있다	①	②
2) 자녀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①	②
3) 자녀 친구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방문한 적이 있다	①	②
4) 자녀와 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를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다	①	②

문3번. 귀하께서는 평상시 자녀가 아래 내용으로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부터 6)까지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1)~6)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기타'에 기입해 주세요.

내 용	거의 이용 안 함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2시간 미만	하루 2시간 이상
1)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①	②	③	④
2) 커뮤니티 (카페, 동호회 등)	①	②	③	④
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4) 개인 홈페이지	①	②	③	④
5) 이메일	①	②	③	④
6) 온라인 게임	①	②	③	④
7) 기타(자세히:)	①	②	③	④

2. 자녀 사이버폭력 경험

지금부터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및 부모님의 대응 경험에 대해 물겠습니다.

* 사이버폭력

☞ 잠깐!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육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침해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육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도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7. 사이버 갈취는 인터넷에서 나의 사이버(게임) 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
8. 사이버 강요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문4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알지 못함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1)	(2)	(3)	(4)

문5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2)	(3)	(4)

문6번.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장 문제 되는 청소년 비행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응답
1) 성비행(성희롱, 성관계, 신체적 성폭력)	(1)
2) 음주	(2)
3) 출연	(3)
4) 가출	(4)
5) 왕따	(5)
6) 사이버폭력	(6)
7) 신체 폭력	(7)

VII. 부록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7번. 귀하의 자녀가 사이버폭력에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 선택	비고
1)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①	-
2)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②	-
3) 자녀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	③	-
4) 자녀가 목격자인 경우	④	-
5) 모르겠음	⑤	▣ 단독선택만 가능
6) 없음	⑥	▣ 단독선택만 가능

문8번. 귀하께서는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아래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예	아니오
1)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2)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①	②
3) 학교 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①	②
4)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다	①	②
5) 전문 상담기관에서 면담을 받거나, 주변의 자문을 구할 것이다	①	②
6)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①	②

문9번. 귀하께서는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행한 사실(가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예	아니오
1)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를 것이다	①	②
2)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게 할 것이다	①	②
3) 학교 측이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할 것이다	①	②
4)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용을 감시하거나 통제 할 것이다	①	②
5) 전문 상담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볼 것이다	①	②

3. 예방 활동

지금부터는 학부모님께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및 교육 경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10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래 8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예	아니오
1)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자녀와 토의	①	②
2)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①	②
3)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	①	②
4)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①	②
5)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위험에 대해 교육	①	②
6)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	①	②
7) 자녀안심차단과 같은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①	②
8)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를 요청	①	②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부모용

문11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각각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8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자녀와 토의	①	②	③	④
2)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3)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	①	②	③	④
4)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①	②	③	④
5)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위험에 대해 교육	①	②	③	④
6)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	①	②	③	④
7) 자녀안심차단과 같은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①	②	③	④
8)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를 요청	①	②	③	④

문12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용	✓ 선택	지시문
1) 예	①	☞ 문12_1로 이동
2) 아니오	②	☞ 문13으로 이동

문12_1번. (☞문12번에서 1) 응답자만) 그렇다면, 최근 1년 이내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으셨습니까?

내 용	✓ 선택
1) 1회	①
2) 2회	②
3) 3회	③
4) 4회 이상	④

문12_2번. (☞문12번에서 1) 응답자만) 귀하께서 받으셨던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12_3번. (☞문12_2번에서 3) ①, ② 응답자만) 귀하께서 사이버폭력에 관련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_____)

문13번. (☞문12번에서 2)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향후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 용	✓ 선택
1) 예	①
2) 아니오	②

VII. 부록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문14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상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응답
1) 교사	①
2) 학교장	②
3) 학부모	③
4) 1인 크리에이터(유튜브, 아프리카 TV 방송 진행자 등)	④
5) 인터넷, SNS 관련 기업 종사자(포털/메신저/앱 등)	⑤
6)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⑥
7) 기타(자세히: _____)	⑦

문15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응답
1)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부모 교육 자료(안내 책자, 브로슈어 등)를 통한 직접 학습	①
2) 인터넷에서 게시된 교육용 자료 혹은 동영상 등을 통한 직접 학습	②
3)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 시간을 활용한 교육	③
4) 행정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강좌를 활용한 교육	④
5) 지역 사회의 문화센터 강좌 등을 통한 교육	⑤
6) 기타(자세히: _____)	⑥

문16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중 어떠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응답
1)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①
2) 사이버폭력의 사전 예방	②
3)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③
4) 피해 신고 및 처리 방법	④

문17번. 귀하께서는 자녀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보기에 제시된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부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내 용	✓ 순위 응답
1) 부모나 가정	①
2) 학교	②
3) 행정기관	③
4) 사법기관(경찰/검찰)	④
5) 인터넷, SNS 관련 기업(포털/메신저/앱 등)	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인 쇄 : 2019년 12월

발 행 : 2019년 12월

발 행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분석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

<비매품>

1.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사업의 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소유하고 있으며, NIA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